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 연구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권 근 영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 연구

지도교수 윤 대 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권 근 영

권근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탈북자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통일 문학교육은 분과 체제의 제재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나,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다기한 측면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별 교과의 논리로 전유했을 때 문학사적 가치가 큰 작품 이해에 중점을 둘 수 있지만 개별 교과의 경계를 넘어선 사회적 요구를 실천적으로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을 경로로 하여 통일 문학교육을 재정립하고, 탈북자 소설을 제재로 삼아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범교과 교육은 단일 교과 영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여러 교과의 협력 속에 두고자 하는 일종의 주제 교육이다. 분단 이후 70여 년이 흐르며 남북한의 이질성이 커진 한편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인 남한의 상황, 통일 주체들의 변화, 국제 정세 등이 얽힌 현실 속에서 통일 문제는 보다 복잡하고 깊어진 양상을 보이곤 한다.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통일 교육은 융합 교육적 접근을 촉구한다. 융합 교육은 근대 학문의 분절적 체계를 비판하며 등장한 학제 간 연구를 교육 담론으로 들여온 것으로, 필히 여러 교과의 협력이 요청되는 범교과 교육의 경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여러 교과의 통섭적인 논의에 주목하는 융합 교육을 내세우되 국어과의 특성을 살린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 통일 문학교육을 탐색하고자 했다. 융합 교육으로서 인접 교과의 통일 교육을 살폈을 때, 낙관적이기보다 현실적·미래지향적인 다문화적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국어과의 언어성은 크게 기본교과와 개별교과로서 문학교육 두 측면에서 살필 수 있는데, 전자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후자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반하여 인간의 삶에 주목하고 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까지 의미한다. ‘사람의 통일’을 지향하는 다문화적 통일로 나아가는 오늘날, 개별 인간들의 삶에 주목하고자 하는 언어 중심의 융합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바다.

탈북자 소설은 위와 같은 통일 문학교육의 측면에 부합하는 제재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탈북자는 남북한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존재로 통일 한국 사회의 양상을 살피게 하는 실험적 존재이기도 하다. 탈북자 소설은 이러한 탈북자를 다룬 소설을 통칭할 수 있으나,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통일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탈북자 소설을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을 사유하게 하는 소설'로 상정하였다.

탈북자 소설을 분석하는 관점은 탈식민주의 이론에 의거하여 비판점과 지향점, 곧 대극적인 지점을 내세워 설정하였다. 이에 인물 형상화는 정형성과 복수성으로, 인물들의 관계는 억압·배제와 환대로, 인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균질성과 혼종성으로 살폈다.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분석한 탈북자 소설은 정형성을 넘어 주체성으로 향하는 인물 형상화, 고립과 타자화를 넘어 연대로서 만남, 균질적 공간을 넘어 혼종적 공간에 주목하게 한다. 이들은 남한 사회의 탈북자를 향한 편견과 배제를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탈북자들의 주체적 면모와 남한 주민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모습까지 핍진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통일 문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점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을 설계하고자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안은 학습자들의 감상문 양상을 함께 살핌으로써 현장 교육과의 관련성을 도모하였다. 그 교육 내용은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 '북한 주민과의 연대로서 만남의 태도 모색', '통일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상상'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비판적 검토를 통한 편견 점검',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한 타 교과 내용과의 접목', '사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 '토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개별 교과의 논리에서 벗어나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재정립하고 탈북자 소설이라는 통일 문학교육의 새로운 제재를 발굴했다는 점, 나아가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범교과 교육의 특성을 살려 오늘날의 통일 담론과 밀접한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핵심어: 통일 문학교육, 다문화적 통일, 탈북자 소설, 범교과 교육, 융합 교육, 통일 교육, 탈북자, 탈식민주의

학번: 2017-29311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4
3.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 12

Ⅱ.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이론 ····· 17
1.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과 특성 ····· 18
1)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 ····· 18
2)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 ····· 22
3)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특성 ····· 26
2.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분석의 관점 ····· 03
1) 인물: 정형성과 복수성 ····· 32
2) 관계: 억압·배제와 환대 ····· 37
3) 공간: 균질성과 혼종성 ····· 43
3.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의의 ····· 05
1)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 체험의 확대·심화 ····· 51
2)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태도 증진 ····· 53
3) 통일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 촉구 ····· 55

Ⅲ. 통일 문학교육을 위한 탈북자 소설 분석 ····· 58
1. 정형성을 넘어 주체성으로 인물 형상화 ····· 59
1)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탈북자 ····· 60
2) 열등한 타자로서의 탈북자 ····· 68
3) 복합적 주체로서의 탈북자 ····· 74
2. 고립과 타자화를 넘어 연대로 관계 맺기 ····· 82

1) 현실 반영의 배타적 관계 ····· 82
2) 우열성에 따른 시혜적 연대 ····· 89
3) 상호 주체성에 입각한 연대 ····· 94
3. 균질적 공간에서 혼종적 공간으로 이행 ····· 102
1) 타자들의 고립된 공간 ····· 103
2) 타자성이 배제된 균질적 공간 ····· 109
3) 지향점으로서의 혼종적 화합의 공간 ····· 114

Ⅳ.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설계 ····· 123
1.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목표 ····· 125
2.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내용 ····· 127
1)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 ····· 128
2) 북한 주민과의 연대로서 만남의 태도 모색 ····· 132
3) 통일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상상 ····· 135
3.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방법 ····· 137
1) 비판적 검토를 통한 편견 점검 ····· 138
2)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한 타 교과 내용과의 접목 ····· 140
3) 사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 ····· 142
4) 토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144

Ⅴ. 결론 ····· 147

참고문헌 ····· 152
Abstract ····· 166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 소설 목록> ····· 41
<표 2. 학습자 정보> ····· 42
<표 3. 학습자 활동사항> ····· 44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효과적으로 구안하기 위해 탈북자 소설을 활용하여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은 다양한 변인들이 혼재된 현상이자 분단 극복의 시대적 요구로서 범교과 주제로 자리하고 있으나,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은 분과 체제의 제재 교육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복잡다기한 통일 현상에 대한 개별 교과로서의 접근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 측면에서 현 시대의 통일 담론과 밀접한 탈북자 소설을 제재로 하여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범교과 교육은 개별 교과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요청하는 복잡한 문제를 교육과정 내로 들여온 일종의 주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개별 영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의 반영으로, 범교과 교육의 필요성은 보다 높아지고 있다.[1] 이러한 가운데 통일 교육은 대표적인 범교과 교육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 분단 이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던 통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국의 이익 관계 및 국제 정세의 흐름이 맞물려 비단 한 영역도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닌 복잡성을 띠며 단일 학문 및 단일 교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기(多岐)한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러 교과들의 협력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대적 요청 속에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지는 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 문학교육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통일 문학교육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국가를 이루

---

1) 이미숙,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교사·교육전문가의 인식 분석」; 최홍원, 「범교과 학습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2)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통일 문학교육'은 통일을 대비한 문학교육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용어 설정을 통해 통일 교육에서 문학교육 및 문학교육에서 통일 교육이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관련된 자세한 용어 설명은 Ⅱ장에서 후술하였다.

고자 하는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교육의 지향점을 반영하기보다 문학 작품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학교육의 일부 제재의 형태로 전유되곤 하였다. 궁극적으로 여러 분야의 통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자 하는 범교과 주제를 개별 교과의 관점에서 바라보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지향하고자 융합 교육에 주목한다. 융합 교육[3]은 학습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분절된 개별 교과의 틀에 갇히지 않고 여러 분야의 통합적 관점을 통해 문제 해결에 가닿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한 영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논제를 여러 영역들의 통섭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변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융합 교육은 현실 문제에 대해 통합적 관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범교과 교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 교육의 복잡다기한 측면은 본질적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있는 범교과적 내용으로서 비단 한 영역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게 된다.[4]

융합 교육을 표방하는 통일 문학교육은 여타 교과의 통일 교육 관점을 들여오길 촉구한다. 이는 개별 교과의 틀을 변화시키고 여러 교과의 통섭적인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범교과 교육의 지향점에 도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접 교과로서 사회과 및 도덕과가 통일 교육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다문화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5] 통일 과정에서 심각한 정서적·문화적 괴리의 형성은 자칫 내부적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 줄 위험성이 있다[6]라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통일의 상(像)은 한반도의 평화 및 발전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통일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사회통합[7]이 이루어져야 함에 '다름'에 대한 인정이 부각되는 것이다.

---

3) 일반적으로 통합은 물리적 결합을, 융합은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육의 장에서 이들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들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융합'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4) 박상욱, 「융합은 얼마나: 이론상의 가능성과 실천상의 장벽에 관하여」, 홍성욱 엮음, 『융합이란 무엇인가』, 사이언스북스, 2012; 김유신, 「융합 연구와 교육에서 '융합'의 의미」,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1, p.395.

5) 사회과는 사실 기반의 지식과 기능을, 도덕과는 태도 기반의 가치적 판단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변별되지만 통일 교육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다문화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6)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279.

이러한 점에서 타 교과의 관점과 통섭하고자 하는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은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온 방식을 재고하게 한다. 통일 문학교육은 그간 반공문학, 화해 지향의 분단 극복 문학, 남북한 공동 정전 마련 등 시대 변천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다만 이들 제재는 모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지향하는 것으로, 민족 중심의 문학사적 가치가 중시되는 문학교육과는 부합하지만 범교과 교육으로서 실천적인 통일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문화적 통일 담론과는 그 지향점을 달리한다. 인접 교과들이 공유하는 변화와 괴리를 둔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는 문학교육만의 논리로 다소 한정된 패러다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8] 궁극적인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융합 교육을 지향하는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탈북자 소설은 유의미하다. 탈북자 소설은 탈북자의 생활(lifeworld)에 밀착한 서사로 낯선 타자의 핍진한 묘사를 통해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문학이 사회적 현상을 소화하는 방식과 밀접하다. 한편 이는 남한 주민들의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첨예하게 그려내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미리 당겨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대하는 남한의 차별적인 시선을 반성적으로 살피게 한다. 종전의 분단 소설은 전쟁의 상흔 및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다면, 탈북자 소설은 국경을 넘고 이방인으로서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 인간 개별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향후 맞닥뜨릴 통일 한국사회의 문제가 여러 방면이 복합적으로 얽힌 범교과적 과제임을 함의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살피고 있는 탈북자

---

7) 통합(integration)은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새로운 하나의 행위자로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여기서 통합은 체제통합(system integration)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구분된다. 체제통합이 정치, 경제, 법 등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제도적 측면이라면, 사회통합은 체제통합에 대해 인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과 의식의 차원에서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임현진, 「남북한 통합의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이정복 외, 『21세기 민족 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101-102.)

8) 이들은 대체로 7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대거 따르고 있다.(성하진, 「중·고교 『국어』,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 소설의 성향 연구 -6·7차 교과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7;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조희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 교과서 현대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52, 2016 참조.)

소설은 분과 체제를 넘어선 융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 적확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소설을 통해 통일 문학교육은 낙관적이고 당위론적인 민족 화해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일 교육을 다루는 인접 학문들의 다문화적 관점을 접목하여 탈북자 소설을 제재로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제 통일 과정은 어느 개별 교과의 내용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교과의 지식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해결 가능한 복합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현상 자체로서 이미 실천성이 다분한 통일 교육은 개별 분과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통일 주체로서 학습자들의 삶과 보다 긴밀하게 연관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타 교과의 통일 교육의 내용 및 접근 방식은 개별 교과로서 문학교육이 다루지 못했던 시선까지 확장해주며, 탈북자 소설은 보다 복잡해진 통일 시대의 주체로서 살아갈 학습자들이 그 해결 방안을 입체적으로 모색하게 한다. 이 연구는 개별 교과 영역을 넘어 여러 교과들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탈북자 소설이라는 새로운 제재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제안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사 검토

이 절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을 탐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일 교육의 범교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융합 교육을 토대로 한 통일 문학교육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가 방향 짓고자 하는 통일 교육 관점의 타당성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탈북자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이 글이 제시하는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참고하는 기존 연구들의 맥락은 ⅰ) 범교과 교육과 이에 대한 접근으로서 융합 교육을 탐색한 연구, ⅱ) 인접 교과에서의 통일 교육을 탐구한 연구, ⅲ) 문학교육에서의 통일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 ⅳ) 탈북자 소설의 통일 교육적 의의를 탐색한 연구로 설정하였다.

우선 범교과 교육은 개별 교과 교육의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소를 담은 것으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오곤 했다. 그러나 점차 교과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범교과 주제 교육이 활발히 다루어지는 추세임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문학교육의 영역에서 범교과 교육이 다루어진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문학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범교과 주제는 소수자 문제를 다룬 다문화 교육 및 이의 연장선에서 젠더 문제를 다룬 페미니즘 교육, 환경 문제를 다룬 생태주의 교육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으로 올수록 양적·질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범교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커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소수자 문제를 다룬 논의에서는 타자의 타자성을 포용하는 탈근대적 관점이 두드러지는 한편[9] 최근 활발한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 젠더 문제를 다룬 논의는 남성 중심·가부장제의 근대적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었다.[10] 또한 비교적 역사성이 축적된 생태주의 교육은 문학교육과 결합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생태학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용하거나[11] 비평의 한 방법론으로서 생태주의를 문학 작품을 특정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12] 나누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문학교육에서의 범교과

---

9) 김세령,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에 재현된 조선족 이주민」, 『우리문학연구』 37, 우리문학회, 2012; 천경록,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이미림, 「다문화 서사구조와 문학적 특징」,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등.

10) 우신영, 「동화 독서와 젠더 이데올로기: 아동 권장도서목록 속 전래동화 여성인물 표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8, 한국독서학회, 2016;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이연승,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시교육 연구 -김승희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이지하, 「가부장적 고전텍스트에 대한 문학교육현장의 고민과 모색」,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방은수, 「미투 시대, 아동문학 교육의 방향 - 젠더 허물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우신영, 「문학 교과서의 성별 편중성 분석: 젠더의 눈으로 문학 교과서 읽기」, 『교육문화연구』 25(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등.

11) 이재형, 「생태주의적 문학교육을 위한 지향」,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3; 차봉준, 「환경 인문학 담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연구 -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15(3), 문학과환경학회, 2016; 오현진, 「국어교육 내 생태주의 반영 양상에 대한 고찰」, 『문학과환경』 17(4), 문학과환경학회, 2018 등.

12) 남진숙, 「융복합을 통한 생태교육 방법론」, 『문학과환경』 15(4), 문학과환경학회, 2016; 이은홍, 「문학교육에서 생태비평 수용의 의의와 방안」, 『문학교육학』 64, 한국문

교육은 개별 교과의 소재 차원이 아닌 범교과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관점, 곧 사회적 문제를 실천적으로 다루고자 함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문학교육의 특징을 고유하게 이어가고자 하면서도 문학교육의 근원적 특질이라는 단일한 정초를 내세우기보다, 대화적이고 통합적이며 연대적 측면을 취한다는 점에서 융합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학교육에서 융합 교육을 다루어온 방식을 살폈을 때, 교과 간의 화학적 융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고정희(2015; 2016)[13]에서는 언어적 리터러시와 시각적 리터러시가 호혜 관계에 있음을 살피는 한편 문학교육과 미술교육이 각각 교육할 때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양자의 교호작용에 의해 새롭고 창의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음을 밝혔고, 고정희·이옥선(2017)[14]에서는 문학교육과 체육교육에서 상호교섭할 수 있는 공통 요소를 통해 융합교육 내용을 탐구하여 개별 교과들의 교육 내용을 메타적으로 살핌으로써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김종철(2015; 2017)[15]에서 기존의 학문 및 중등교육에서의 교과교육을 융합의 관점에서 재인식할 필요를 논구하며 문학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방안을 제언했음은 이와 결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학교육만의 단일한 접근과는 또 다른 교육적 효용성을 창출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이라는 복잡다기한 현상에 대한 문학교육의 접근을 인접 학문의 고찰을 통해 관점을 융합하여 교육 내용을 도출해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던 바다. 이에 타 학문의 통일 교육에 대한 접근 관점 및 방법론과 연대적 측면을 취하고자 통일 교육을 활발히 다루어온 인접 교과에서 다루어진 통일 교육 연구를 살피고자 한다.

인접 교과로서 사회과·도덕과의 통일 교육은 익히 민족주의적 관점의 동

학교육학회, 2019 등.

13) 고정희, 「문학과 영상의 창의적 융합을 통한 공감교육」, 『문학치료연구』 3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 고정희, 「문학과 미술의 교육적 융합을 위한 제언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필리아>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14) 고정희·이옥선, 「문학과 체육 융합교육 내용 탐구 -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4, 국어교육학회, 2017.

15) 김종철, 「융합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의 소통과 언어적 창의성 - <농가월령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7, 한중인문학회, 2015; 김종철, 「<춘향전>과 지리 - 문학교육과 지리교육의 공동 영역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질성 회복 추구의 한계를 직시하고 다문화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한만길(1999; 2001)[16]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북한 주민에 초점을 둔 통일 논의를 하곤 했는데, 특히 통일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이념적이기보다 사회문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점차 확대되어 분단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상황에 맞게 통일 담론을 논해야한다는 최근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연장선에서 오기성(2008)[17]이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를 다룰 필요성을 타진하고, 추병완(2000; 2009; 2016)[18]은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다문화 시대를 직시하여 다문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 교육에서 간문화적 및 문화감응교육을 주장했으며, 박성춘·이슬기(2016)[19]에서는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통일 이전-과정-이후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업의 필요성 다루었던 것이다. 이들의 논의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식 주입 및 이해가 아닌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통일 담론을 추구하는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인접 학문의 통일 교육 연구들이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체제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의 통합은 사실상 다문화적 상황을 야기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때 통일 이후의 사회는 오히려 혼란스럽고 갈등이 만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우려 속에서 김국현(2004)[20]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월감 및 편견의 위험성을 논하며 이에 대한 반성적·성찰적 태도를 촉구하였고, 오기성(2016)[21]에서는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편견 극복의 인문학적 통일 교육을 주장하는데, 이들은 남한의 타자에 대한 편견 문제로 접근하며 보다 실천적 측면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통일 교육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혼란기를 지혜

---

16) 한만길,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17)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양서원, 2008.
18) 추병완, 「통일 교육의 현상학적 접근」,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추병완,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2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9; 추병완, 『문화 감응 교육학』, 도서출판 하우, 2016.
19) 박성춘·이슬기,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집문당, 2016.
20)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사랑, 2004.
21) 오기성,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 양성원, 2016.

롭게 극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인접 학문의 통일 교육 논의는 통일 한국 사회를 낙관적인 이상향으로 살피기보다 통일 한국 사회가 맞닥뜨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비를 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실천성을 도모하는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에 주목하는 이 연구의 관점에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바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문학교육에서 통일 교육을 다루어왔던 방식에 주목하는 논의들이다. 그간 통일 문학교육 연구는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우선 고전문학 영역에서 통일 문학교육 논의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왔는데, 분단 이전에 생성되어 향유된 북한의 고전문학은 남북한의 친연성을 띠고 있기에 효과적인 교육 제재라고 본 연구,[22]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남북한 고전문학 연구물의 통합적 모색을 추구한 연구[23]와 남북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를 통해 통일 이후 교육과정을 목표 모형과 내용 모형으로 나누어 고전문학의 가치를 탐색한 연구[24], 남북한 공통의 고전문학 작품을 제재로 통일 문학교육의 설계를 한 연구[25] 등 분단 이전의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함으로써 친연성을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통일 교육의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통일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현대문학 작품을 탐색한 연구는 특히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지도안 설계, 교수·학습법 연구가 두드러짐을 볼 수 있는데[26] 통일 문학교육과 현대소설의 밀접한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통일 교육에 있어서 문학교

---

22) 최홍원, 「북한의 고전문학 교육 내용 연구 - 교과서 수록 작품의 선정 배경과 맥락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23) 한길연, 「한민족 통일시대를 위한 고전소설의 성찰과 모색」,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24) 주재우, 「통일 이후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25) 고정희 외,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6, 2015.

26) 엄정미, 「분단시대의 소설교육: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강명순, 「분단 소설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채상훈, 「분단 소설 교육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선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 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등.

육의 역할 및 의의를 탐색하는 데 기반을 마련해주었으나, 민족주의 성찰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교과가 제시하는 다문화적 담론과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을 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한 김미영(2015)[27]의 연구는 본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을 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탐색하면서도 통일 문학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병행 가능성을 타진하며 통일에 있어서 탈북자 제재의 중요성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미영(2016)[28]에서는 통일 이후 한국 사회가 혼란과 갈등의 상황일 것임을 예측하며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이 '이해'에서 '소통과 통합'으로의 방향, 그리고 내용을 '동질성'에서 '다양성'으로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최홍원(2019)[29] 또한 그간의 통일 문학교육이 동질성 회복에 천착하였음을 비판적으로 살피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의 이질성에 주목하고 통일 문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문학교육에서 통일 교육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통일 교육에 문학 작품을 활용한다는 도구적 관점이라기보다 문학 작품 자체가 통일 교육에 함의하는 바에 주목하여 그 가능성을 살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일 교육과 변별되는 통일 문학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통일 문학교육의 연구와 관점을 같이하고자 민족주의적 동질성 회복의 관점과는 결을 다소 달리하지만,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학교육의 통일 교육 가능성과 실천성이 풍부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소설의 통일 교육적 의의를 탐색한 연구를 살필 수 있었다. 탈북자소설은 크게 분단 소설, 디아스포라 소설, 그리고 다문화 소설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곤 했는데 탈북자라는 특수한 존재가 공고한 근대성에

---

27) 김미영,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28) 김미영, 「통일한국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 『문학교육학』 5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29) 최홍원,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 『문학교육학』 62, 문학교육학회, 2019.

균열을 가하는 모습이 여러 관점의 접근을 촉구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분단 문학과의 연결 속에서 논의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한원균(2005)[30]에서 탈북자 문제가 90년대 이후 분단 극복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화두임을 논하였고, 우찬제(2011)[31]과 임헌영(2012)[32]에서 탈북 소재 소설을 오랜 반공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분단 문학의 계보에서 다루고 있었다. 박덕규(2018)[33]는 탈북 소재 문학에서 북한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미를 점검하며 통일에 있어서 탈북 관련 소재와 주제의 상징성을 타진하였는데 탈북자 소설이 나아가야 할 지점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탈북자라는 특수성을 지닌 존재가 결국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천착하여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의식을 고취하던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탈북자 소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 소설을 일찍이 분단 극복의 맥락에서 문학교육의 장으로 들여오고자 한 연구들도 있었다. 탈북자 '창작' 소설과 탈북자 '소재' 소설을 비교 검토하여 문화적 통합 교육을 논한 이영미(2014)[34]는 탈북자 소설의 교육적 의미화를 적극 시도했으며, 황선옥(2015)[35]에서도 탈북 소재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통해 남북 통합 과정에서 문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통일 미래를 위한 갈등 해소 방향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또한 통일 교육으로서 문학교육 제재 선정 기준을 탈북자 소설에 적용한 김미영·유리(2015)[36]는 통일 교육 일반에서 논해지던 '간문화적 역량'을 문학교육 측면으로 끌어와 탈북자 소설에 적용 및 교육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탈북자 소설을 통해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는 관점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 더불어 통일 시대 문학교육을 탐색한 김미영(2016)[37]에서 탈북자 제

30) 한원균, 「탈북자 문제의 소설사회학」, 『비판과 성찰의 글쓰기』, 청동거울, 2005.
31) 우찬제, 「분단 환경과 경계선의 상상력」, 『동아연구』 30(2), 서강대 연구소, 2011.
32) 임헌영, 「남북한 만남의 문학 변천사」, 『불확실 시대의 문학』, 한길사, 2012.
33) 박덕규, 「'북한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미 - 『고발』과 『잔혹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7(3), 2018.
34)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5(1), 한국평화통일학회, 2014.
35) 황선옥, 「탈북 소재 동화·청소년소설 연구 -인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6) 김미영·유리,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4,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재의 문학 작품의 의의를 다룸으로써 본 연구의 의의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한편 탈북자 소설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곤 했는데,[38] 이러한 시각은 탈북자 문제가 세계사적 관점으로 나아감을 시사한다. 중층적인 탈북자 문제의 해결은 민족적인 동시에 국제적인 지평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를 통해 탈북자 소설이 단순히 민족이라는 당위성을 넘어 탈경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족 분단이라는 특수성은 물론 국민국가의 폭력성에 맞서는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탈북자 소설에서 찾은 것이다. 통일 문제가 비단 한반도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러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의 탈북자 소설은 보다 넓은 시각의 통일 문학교육의 관점을 마련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다문화 이주민의 일환으로 탈북자를 바라보는 연구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접근으로서 탈북자 소설을 논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임영봉(2006)[39]과 오창은(2011)[40]은 탈북자를 인종과 문화가 혼재되는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사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관점으로 다루었으며, 유경수(2009)[41]에서는 탈북자와 같은 이방인이 지닌 연대 가능성을 살폈고 이미림(2012)[42]에서는 타자에 배타적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

37) 김미영, 위의 글, 2016.

38) 고인환,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이주 노동자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들』, 2008년 가을;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 - 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37, 한국비평문학회, 2010;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 생태의 비극성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학과 환경』 10(1), 문학과환경학회, 2009;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김원일과 정도상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 한국문학회, 2010; 한수영,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분단체제의 극복과 탈북자 문제의 소설화」, 『작가와 사회』, 2006년 겨울; 홍용희, 「통일시대와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정도상 『찔레꽃』, 이대환 『큰돈과 콘돔』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0, 한국언어문학회, 2009 등.

39) 임영봉, 「2006년 서울 율리시스, 그 좌절된 모험에 대한 기록 -김영하의 『빛의 제국』」, 『리토피아』, 2006년 겨울호.

40) 오창은, 「공간의 감수성과 제국의 감각」,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서사』, 실천문학사, 2011.

41)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2)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의 재현 양상 중 하나로 탈북자 인물을 살폈다. 홍순애(2016)[43]는 다문화 소설에서 이방인의 일환으로서 탈북자를 재현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다문화 타자들에 대한 남한인들의 시선을 살피는 한편 특히 타자화된 이주여성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했다. 다문화 재현에서 이주 여성들의 양상을 다루는 소설 및 연구가 적지 않은 가운데[44] 여성 탈북자 또한 다문화 여성 이주자들과 같은 선상에서 익히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가 다문화적 통일 문학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한 바, 이러한 다문화 측면의 탈북자 소설에 대한 논의는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탈북자 소설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탈북자 소설이 유용하다고 보고, 통일 문학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작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소설을 범박하게 말하자면 탈북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모두 칭할 수 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상황 속에서 그 현상만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탈북 관련 소설은 문학 연구에서는 익히 분단 소설, 다문화 소설, 디아스포라 소설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 왔음을 앞선 연구사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탈북자의 급증은 탈냉전시대의 전지구적 시장화에 상응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한반도 질서와 그 주변의 변화를 드러내는 징후로서, 위태로운 북한체제와 타자에 배타적인 남한 사회를 비롯하여 동북아 국제 질서 및 세계적으로

43) 홍순애, 「다문화사회의 문학적 상상력과 교육방안 연구: 다문화소설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6,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6.

44) 소영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 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김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 -『리나』와 『찔레꽃』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연남경, 「이주여성 재현의 서사학적 분석 -『리나』, 『테러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김소륜,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등.

만연한 제국주의적 자본 질서 등을 포괄하는 문제적 사건이기 때문이다.[45] 이러한 접근들이 비단 문학뿐만 아닌 오늘날 사회 전반의 화두라는 점에서 탈북자 소설은 그 자체로 풍부하게 논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시중에 출간된 탈북자 소설 30여 편을 수집 및 탐색하였다.[46]

그러나 남한의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를 살피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생활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혹은 탈북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받는지 재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소설보다는 서로에게 이질성을 느끼는 남북한 주민들의 관계 맺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소설이 논의의 효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질적인 남북한의 두 주체가 갈등하고 화합해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의 지향점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과 소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의 주 연구 대상이 되는 탈북자 소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

45) 홍용희, 위의 글, 2009, p.394.

46) 최윤, 「아버지 감시」,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김지수, 「무거운 생」, 『창작과 비평』, 1996 가을; 박덕규, 「노루사냥」, 『한국소설』 1996 가을;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동화 읽는 여자」, 「세 사람」, 『동서문학』 1988 봄; 정을병, 「남과 북, 그 흘러가는 이야기들」, 『꽃과 그늘』, 개미, 2001; 「남과 북」, 『꽃과 그늘』, 개미, 2001; 김정현, 『길없는 사람들 1,2,3』, 문이당, 2003; 김남일, 「중급 베트남어 회화」, 『실천문학』 2004 여름;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4; 문순태, 「울타리」, 『울타리』, 이룸, 2006;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2006; 김영하, 『빛의 제국』, 문학동네, 2006; 정철훈, 『인간의 악보』, 민음사, 2006;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리지명, 『삶은 어디에』, 아이엘엔피, 2008; 이호림, 『이매, 길을 묻다』, 아이엘앤피, 2008;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이대환, 『큰돈과 콘돔』, 실천문학, 2008;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정수인, 『탈북 여대생』, 새움출판사, 2009; 전성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 『늑대』, 창비, 2009;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11;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윤정은, 『오래된 약속』, 양철북, 2012; 이정, 『국경』, 책만드는집, 2012; 이경자, 『세 번째 집』, 문학동네, 2013; 이정명, 『천국의 소년』, 열림원, 2013; 전수찬, 『수치』, 창비, 2014; 최지영, 『북의』, 21세기북스, 2014 등.

번호	작가	작품명	출판사	출판 연도	비고
1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단편
2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장편
3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연작소설
4	이대환	큰돔과 콘돔	실천문학	2008	장편
5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장편
6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11	장편
7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장편
8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장편
9	이경자	세 번째 집	문학동네	2013	장편
10	전수찬	수치	창비	2014	장편

<표 1. 연구 대상 소설 목록>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지향하며, 탈북자 소설이라는 새로운 제재를 통일 문학교육에 활용하고자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존 논의와 차별화되는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통일 담론은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왔음에도 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던 개별 교과의 관점을 넘어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정립된 통일 문학교육에 부합하는 제재로서 탈북자 소설의 분석 관점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설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제재로 하는 탈북자 소설에서 비판점과 지향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우선 범교과 교육이 궁극적으로 여러 학문의 통섭적 논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융복합적 관점을 참고할 수 있다. 학제 간 융합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는 이성주의와 실증주의에 의거한 근대 학문 체계 속에서 고도로 세분화된 학문들을 통섭하고자 하는 개념이다.[47] 각 학문은 개별 영역을 구축하며 전문화를 이루었으나, 분과 학문 체계에서는 현상의 이해와 문제 해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학문 간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현대 사회

47) 노상우·안동순, 「학문융합 관점에서 본 현대교육의 이론적-실천적 변화 모색」, 『교육종합연구』 10(1), 교육종합연구소, 2012.

에서 새로운 관점과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으로 대두된 것이다.[48] 분과 학문 체계를 넘어선 융합적 접근이 기존의 논의를 넘어선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점차 주목받게 된 바[49]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단일 교과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된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교육에 대한 접근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접 교과의 통일 교육 접근법을 탐색하고 통일 문학교육의 논리를 검토하여, 범교과 교육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재정립된 통일 문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탈북자 소설 분석의 관점은 탈식민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모든 문화를 포괄하는 통칭적 개념으로,[50] 제국주의의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담론에서 유효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관점이다. 탈식민주의 논의는 폭력의 시대로 규정되는 20세기를 지나며,[51] 종래의 신식민주의, 파시즘, 독재, 비인간화 등이 근대성에 비롯되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발전되어 왔다. 자아동일성을 근거로 이분법적 논리를 형성한 근대주의는 타자를 배척하고 축출하는 식민주의라는 폭력성의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식민주의가 궁극적으로 다름을 배척하는 자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타자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논의하는 주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탈식민주의 관점은 타자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통일 문학교육과 밀접하다. 식민주의가 우열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상정하며 위계적 질서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겼던 것에 반해, 탈식민주의는 이의 대척점에 놓

---

48) 한승환·경정운,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한 실증분석 -학문분야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한국정책학회, 2011.

49) 이를 교육적 차원으로 환원하면, '서로 다른 교과 간에 관련되는 요소를 새로운 교과로 조직하여 융합시킴으로서 성립되는 교육 과정'을 일컫는 융합 교육으로 연결된다.(김지은·한규훈, 「광고학과 교육학의 학제 간 융합 가능성 진단을 위한 고찰 - 광고의 교육적 효과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을 토대로」, 『광고연구』 113, 한국광고홍보학회, 2017, p.70.)

50) Ashcroft, B.,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nial Literatures,* 이석호 옮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12.

51) 강제수용소, 가스실, 학살, 고문, 조작된 국가 범죄로 사유되는, 저주받은 20세기는 국가와 연관되면서부터 대량 학살을 특징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세기였다.(Badiou, A., *Le Siècle*, 박정태 역, 『세기』, 이학사, 2014, pp.11-12.)

인 전지구화 사회의 지향점, 이른바 타자지향적 윤리, 다문화주의, 탈근대적 인식 등을 포괄한다. 이는 남한 주민의 본질주의적 정체성이 이방인으로서의 탈북자를 배제하며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다문화적 통일 담론과 밀접한 것이다. 이처럼 차별적 시선과 같은 식민주의 유산을 청산하려는 탈식민주의 관점은[52] 자기 반성적 계기에서 스스로를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대결하려는 이론적 시도로 정립하며, 주체들이 자신들의 조건이 갖는 격차 및 균열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기 이해와 더불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53] '타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식민화의 본질이 자아와 타자의 이분법적·위계적 질서에 근거한다는 점은 이 글이 문제 삼는 남한이 북한을 보는 시선을 살피게 하는 기제가 되어주는 한편 근대적 담론에 대항하는 개인에 밀착한 서사를 살피고자 하는 탈북자 소설의 지향점과도 맞닿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논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학제 간 융합 연구 방식을 취하여 이 연구의 통일 문학교육의 관점을 명확히 하고,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재정립된 통일 문학교육 정의를 토대로 탈식민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탈북자 소설 분석 틀을 고안한다. 이는 탈북자 소설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남한인들의 시선을 재현하고 있음을 전제로 문헌연구에 기반하되, 실제 학습자 감상 양상을 수집하여 그 교육적 효용성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접목하여 탈북자 소설을 분석한 Ⅲ장에서는 탈북자가 공고한 국민국가의 특징을 지닌 남한 사회에 어떠한 균열을 내고 남한 주민과의 만남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도출해낸 지향점을 바탕으로 하되 학습자 반응 양상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한다.

---

52) McLeod, J., *Beginning Postcolonialism*, 박종성 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 2003, p.5.

53) Gandhi, L.,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p.16, p.21.

Ⅱ.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이론

이 장에서는 통일 문학교육 및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교육 내용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며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범교과 교육의 관점으로 통일 교육을 살피는 한편, 타 교과의 통일 교육 관점을 수용하여 기존 통일 문학교육의 문제점 및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관점을 전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새로운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기존의 탈북자 소설의 정의를 본고의 통일 문학교육적 측면에서 활용되기 위한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그 특성을 살피도록 한다.

또한 2절에서는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탈북자 소설이 이 연구가 지향하는 다문화적 접근의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부합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측면들을 인물 형상화, 인물들의 관계 맺기, 시공간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들은 소설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각각 대응하는 것으로 다문화적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관점이다. 이에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과 변별되는 다문화적 측면을 통일 교육의 관점들과 접목하여 소설 분석의 틀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이 지니는 의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수집한 학습자 반응 양상을 참고하였는데, 탈북자 소설이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실제 학습자의 반응을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밀접한 의의를 논구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이 장에서는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가능성을 면밀히 탐색함으로써 탈북자 소설 분석의 실제 및 구체적인 교육 설계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1.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과 특성

이 절에서는 문학교육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 교육 중에서도 이 연구가 초점화하고자 하는 통일 문학교육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범교과 교육의 주제로서 통일 교육 및 문학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연구의 방향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 삼고자 하는 탈북자 소설을 일반적 수준의 정의에서 통일의 관점으로 초점화하여 다루고자 한다. 다기한 특성으로 인해 다방면에서 연구되어 온 탈북자 소설이지만 통일 문학교육에서 유의미한 특성에 주목하여 살피고자 함이다. 이에 우선 통일 문학교육의 정의를 살피고, 이 연구가 지향하는 통일 문학교육을 위한 탈북자 소설의 정의를 다루도록 한다.

1)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

통일 문학교육을 통일 교육과 문학교육의 결합어라고 할 수 있을 때, 통일 교육과 문학교육 각각의 개념을 살피고 이들의 공통적 요소를 중점으로 그 개념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영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교육을 살피고 인접 교과의 통일 교육을 탐색하여 이 연구의 통일 문학교육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범교과 교육은 특정 교과에서만 다루기는 어려운 혹은 별도의 교과로 만들어 교육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적 요구들을 교육과정에 들여와 여러 교과에서 두루 다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다.[54] 단일 교과 범위를 넘어선

5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및 범교과 학습 내용'은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으로 제시된다. 해당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에 비해 범교과 주제 교육의 내용이 대폭 줄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39개 범교과 학습 주제를 추가, 삭제, 통합 등을 통해 10개 주제로 범주화"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연구』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61 참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교과의 협력을 필요로 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통일 교육은 대표적인 범교과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통일(re-unification)은 일반적으로 이질적 체제간의 대립과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분열된 남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외적 통일 환경과 남북 간 역학관계, 통일정책, 통일 운동, 국민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 문제가 보다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5] 교육과정 창안 이래 범교과 주제로서 줄곧 수록된 통일 교육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문제 상황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56]

이러한 국면에 놓인 통일 문제를 고려할 때, 여러 교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융합 교육을 바탕으로 하되 국어과의 언어적 특성에 기반하여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설정할 수 있다. 국어과에서 바라보는 언어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기본교과로서의 국어교육[57]과 개별 교과교육으로서 문학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기본교과로서의 국어과의 언어성은 교과 체계에 기반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구체화하며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8] 이는 특히 통일 교육과 같은 범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이 마주할 통일 환경은 교과 내의 구조화된 지식처럼 정돈된 상태로 주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변인들과 이질적인 문화들의 혼합으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여러 변인들이 혼재된 것이며 학습자들에게 북한은 여전히 미지(未知)의 세계일뿐만 아니라 여

55) 박찬석,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한국학술정보, 2006 참조.

56) 통일안보교육을 표방하던 시대가 도래하며 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범교과 학습 주제로 통일교육이 명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1차·2차)에는 반공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만 본고는 반공 시기에도 '흡수 통일'의 지향성을 취해왔기에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통일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57) 김종철(2016)에서는 타 교과를 학습하는 기초 단계로서 일종의 '도구성'으로 논해진 기존 논의를 탐색하며, 다소 편협한 '도구성'이라는 용어보다 타 교과 학습의 기본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본교과'라고 칭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도구성'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여 이를 '기본교과'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김종철, 「국어 교재의 성격과 위상 재검토 - 기본교육, 교과교육, 교과융합교육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1(3), 2016.)

58) 이경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분석」, 『청람어문교육』 26, 2003; 김창환·한상효, 「언어적 창의성의 개념적 고찰」, 『교육종합연구』 4(1), 2006; 서명희·김종철, 「창의적 문제 발견 능력 함양을 위한 문학·경제 융합 교육 -언어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참조.

타 외국과는 또 다른 독특한 제도·경제·문화를 지녔다는 점에서 다방면의 지식과 이해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나아가 통일은 그 시기와 양상을 예단(豫斷)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습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구체화하며 명료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더욱이 중요시되는 것이다.

더불어 개별 교과 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는 앞서 살핀 언어성의 관점을 확장하여 서사(敍事, narrative)와 결부시켜 볼 수 있다. 서사는 인간이 행하는 행동의 동기를 구체화하고 인간과 환경이 어떻게 교섭되는지를 그려내는 양식으로,[59] 여러 복합적 조건들을 반영하여 삶의 구체성을 인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인접 교과의 통일 교육이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구한다. 사회과·도덕과의 통일 교육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것이며 상이한 체제·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60]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 사회의 변화[61] 및 민족 동질성에 호소력을 느끼지 못하는 통일 주체들의 변화[62]를 적극 수용하여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져도 '사람의 통일(unification of human)'[63]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통

59) 우한용, 「창의인성의 방향과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 140, 2013 참조.

60) 사회과는 가치중립적이며 사실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반해 도덕·윤리과는 가치적 판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교과 특성의 차이점을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통일 문제를 통일 주체들의 편견적·적대적 인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며, 북한의 정치·경제 등 우열성에 기반한 이념적 가치가 주입되기 쉬운 영역으로부터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고착된 경계를 완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61) 유엔 산하기관 중 하나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단일민족 강조가 한국 사회 내 이해, 관용, 우호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오영훈,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p.33.) 유엔의 권고사항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통일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2)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이질화를 더욱 크게 느끼며, 더불어 통일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통일무용론'과 '통일회의론'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곤 한다. (임현진·정영철, 위의 책, 2005, p.303;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편,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참조.)

63) '사람의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이자

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64]

그리고 이때 서사의 힘은 보다 유의미하게 작용한다. 인접 교과의 이러한 통일 교육 내용은 통일 담론의 변천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65] 통일이 국토 및 국권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문화적 통합까지 지향하게 됨에 따라 정치·경제 등 제도적 측면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주목하게 된다.[66] 그 결과 사회과·도덕과의 통일 교육은 학습자들의 객관적 인식 및 도덕적 판단을 방해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흑백논리 및 일방적 가치 주입을 지양하며 다양성 존중, 연대와 배려와 같은 다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주는 서사적 탐구와 밀접해진다. 여러 요소들이 얽혀 스토리를 구성하는 통일 서사는 통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습자들에게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접근을 이끌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단순히 이질적인 것들의 병존(竝存)이 아닌 평화적 공존(共存)을 지향해야 하며, 단순히 무력 대결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세 교과의 관점 통합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서 살핀 기본교과적 언어성이 범교과 교육이 익히 사회적 문제를 논제로 다룸으로써 현상을 인식·사고하며 지향점을 모색한 것이라면, 이를 발전시킨 서사 기반의 언어성은 인물의 삶에 주목함으로써 문학교육의 고유성을 보다 주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은 분단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개별 인간들의 삶을 바탕으로 인식하며, 한국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남북한 사람들 개개인의 정신 상태, 즉 의식구조나 가치관, 감정 반응, 행동 양식, 일상의 삶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통일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p.7; 조용관·김윤영,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 참조.)

64) 임현진·정영철, 위의 책, 2005, p.259, 279.

65) 넓은 의미의 통일교육은 분단 이후 남북관계와 주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교육의 명칭과 내용이 여러 번 변천되었는데, 체제 안보를 위한 소극적 교육에서 점차 적극적인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다. 통일 교육은 통일 담론이 '반공(195,6,70년대)-안보(80년대)-민족(90년대)-평화(2000년대)'로 변화됨에 따라, 통일 교육 또한 '반공교육기(분단~1980년대 중반)-통일안보교육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통일교육기(1990년대 초 이후)'의 흐름 속에서 반공, 승보, 안보, 그리고 북한 이해로 논제가 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배한동, 『새로운 통일교육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pp.11-12;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p.39 참조.)

66) 임현진·정영철, 위의 책, 2005, pp.279-284.

사회가 분단 현실을 해결함으로써 나아가야 하는 일종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막연했던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통일 한국 사회를 입체적으로 가늠해보는 것으로써 통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상상적으로 전개시키면서 그 과정이 진행되어 갈 방향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 통일의 정치·경제적 통합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통일 주체들의 내면에 대한 탐구가 옅어져 통일에 대한 당위적이거나 낭만적인 구호로 흐를 염려가 있는 가운데, 문학적 사고는 인간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바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학습자들이 통일 주체가 되어 통일의 여러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방향을 담지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학적 사고가 더해진 융합 교육은 사회역사적 현실성에 구속되는 개별성이 아니라 초월적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

국어과의 언어적 특성을 바탕으로 통일 문학교육의 장에서 이루어진 방식에 주목해 볼 때, 그간 통일 문학교육은 분단과 관련된 정전(正典, canon) 위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상정할 때,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67]에 대한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그간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는 문학교육의 원리를 충실히 따랐으나 타 교과의 관점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곧 개별 교과의 영역에 국한되어 범교과 교육의 지향점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교육이 수차례의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범교과 교육으로 자리하면서도 문학교육 내에서 그 제재가 다소 한정되었던 양상은 사회과·도덕과를 위시하여 이루어진 오늘날의 통일 교육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통일 문학교육의 변천을 짚어보며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67) 여기서 '통일 문학교육'은 문학교육 내 통일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칭한다.

그간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는 크게 3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는 반공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반공문학[68], 유년기 화자를 위시하여 화해 지향을 보인 분단 소설, 나아가 남북 공동 제재 마련을 위한 탐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반공문학은 통일안보교육을 표방하던 시대가 도래하며 국어과 문학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통일 교육을 다루게 되었던 배경과 관련된다.[69] 이 시기는 반공 교육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허용된 정도였으며, 공산주의자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두드러진 제재만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반공 의식의 잔재를 유추하게 한다.[70]

이후 본격적인 통일교육기로 접어들면서 통일 문학교육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 무렵 교육과정에 '통일 문학'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해당 수록 작품들에 비추어 볼 때 반공 교육을 넘어서 통일을 향한 분단 극복의 지향성을 뚜렷이 보인다.[71] 특히 유소년 주인공을 통해 전후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분단 문학이 중심이 되어 분단의 비극 및 민족 화해를 강조하게 되는데, 전쟁으로 인한 비극성은 드러나되 이념적 편향성은 두드러지지 않는 계열의 작품들이 선정되면서 평화 지향적 분단 극복 의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 지향적 통일 교육 담론은 분단 이전의 문학 작품 중 공동 정전의 마련 및 탐구를 꾀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는 주로 고전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곤 했는데, 분단 이후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배태된 문학에서 남북한의 공통된 교육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으나 분단 이전

---

68)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여 맞서 싸워야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통일교육 시선과는 결을 달리하나, 당시의 흡수 통일 담론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통일 교육 제재라 할 수 있다.

69) 김혜련, 「4·19와 현대 소설교육—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1963~1973)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2호, 문학교육학회, 2010; 김근호, 「문학교육에서의 국민 형성을 위한 정전과 감정의 역학—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56호, 한국어교육학회, 2017 참조.

70)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은 5차와 6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유일한 분단 소설이다. (성하진, 위의 글, 2007 참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일'로 보는 관점이 문서상으로 드러난 것은 5차 교육과정이지만, 제재 수록에서 알 수 있듯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통일교육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71) 대표적으로 7차 중학교 교과서에는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 하근찬의 <흰 종이 수염>, 구인환의 <숨 쉬는 영정>이 수록되었으며, 7차 고등학교 <국어>에는 박완서의 <그 여자네 집>과 윤흥길의 <장마>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은 한국 전쟁의 직접 체험 세대의 허무의식이 짙은 '전후 소설'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짙은 '반공 소설'을 넘어선 평화 지향적 통일 의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의 작품은 남북한의 정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동별곡」, 「홍길동전」, 「춘향전」 등은 남북한 국어(문학) 교과서에 공동으로 실려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은 이념적 색채는 약하고 전통적인 우리 삶의 문화가 축적되어 있어 정서나 세계관의 공통된 경험을 통해 삶의 형식 공유에 용이하며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체의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인식의 발현이었다.[72]

또한 분단 이후의 작품 중 이데올로기 색채가 옅은 북한 문학을 제한적으로나마 들여오기도 하였는데, 이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동 정전 마련의 연장선상에 있다.[73] 그 결과로 북한 현존 작가의 이념성이 옅은 문학 작품이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으며,[74] 남한 사회와 공유하거나 보편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 범위의 확장이자 낯선 북한 사회를 이해해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분단 이전의 공동 정전 작품을 확보하거나 분단 이후의 작품 중 이데올로기 색채가 옅은 북한 문학을 제한적으로나마 들여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자 민족 동질성 추구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이상 위와 같은 통일 문학교육의 변천은 문학사적 가치가 충분히 축적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문학교육의 측면에서 성실히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타 교과의 통일 교육 관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범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사회과·도덕과의 통일 교육 패러다임이 다문화적으로 변한 것에 비해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가 여전히 동일한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반공과 화해 지향의 문학은 언뜻 상반된 지향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을 단일성으로 수렴하고 포섭하려는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공동 정전을 마련하고자 한 것 역시 공유될 수 있는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하나의 공동체 창조를 역설하며 불변하는 민족 기원 및 과거 세대

---

72) 최홍원, 위의 글, 2019, pp.63-67.

73) 분단 극복을 지향하며 교육과정에서도 꾸준히 통일 교육 내용을 다루며 통일 문학교육에서 통일 인식을 상세화·구체화해오곤 했는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북한문학을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드러나기도 한다.(김미영, 위의 글, 2015, p.56.)

74) 백남룡의 <생명>(1985)은 조정래 외의 『문학』(2015 개정, 해냄에듀)에, 홍석중의 <황진이>(2002)는 정호웅 외의 『문학』(2015 개정, 천재교육) 및 방민호 외의 『문학』(2015 개정, 미래엔) 등에 수록되었다.

와 이어주는 지속적인 역사의식의 반영이라 하겠다. 이는 인접 교과가 주목했듯 다문화 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민족주의가 집단 내부는 공고하게 하지만 외부 배척 등 이분법의 기제로 작용하며 궁극적인 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 방해물이 된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변화한 통일 담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인접 교과에서 살필 수 있듯 오늘날 통일 담론은 점차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한다는 당위적 논지는 약해지고, 다른 요인들 이른바 평화적인 공존 및 번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통일의 시기와 양태가 어떠하더라도 남북한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새로운 통일 교육의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질적인 것들을 동질화하려는 것이라는 민족주의라는 반성적 시각이 고무된다. 다문화적 통일 담론은 통일 전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인식의 혼동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통일 교육이 되어야 함을 지향하는 것이다.[75] 다문화적 통일 교육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한 것, 다시 말해 상이한 체제·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융합 교육으로서 범교과 교육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통일 문학교육은 사회과·도덕과의 다문화적 통일 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학습자들이 통일 주체가 되어 통일의 여러 과제들을 풀어가야 함을 인지하며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하도록 방향을 짓고자 한다. 기존의 개별 교과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통일 문학교육이 그 제재에 기대어 동질성 회복을 추구해온 것에서 벗어나 적대적 관계였던 두 집단이 평화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경직된 획일성이 아닌 열린 다원주의적 사고를 지향하고자 함이다.[76] 이에 본 연구는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을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것으로, 근대의 억압적 기제로서 동질성 강박 및 한민족 회복의 집착을 상대화하는 과정으로 방향 짓고자 한다. 궁극적인 통일인 '사람의 통일'로 가기 위해선 체제·문화 등 사회·경제적 통합을 넘어선 통일 주체들의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며, 상이한 체제·문화 속에

75) 박찬석 외, 위의 글, 2000, pp.16-18.
76) 조한혜정, 「분단과 공존 - 제3의 공간을 열어 가는 통일 교육을 지향하며」,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p.356.

서 살아온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탈북자 소설의 특성

분단 상황이 한국 근대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한국 문학 작품 또한 분단 이래 초래된 문제들을 핍진하게 다루곤 하였다. 다만 종래의 통일 담론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 분단 소설로 이루어져왔다면, 점차 거대담론이 약화되고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시선이 옮겨가며 문학적 전환이 이루어진다. 20세기의 한국 문학은 대개 정치적 구호의 전개와 나란히 발전하면서 일면 정치성을 띠었던 반면[77] 개별 인간들에 주목하여 현실의 삶의 문제와 고뇌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하는 오늘날의 문학은 분단 현실에 대해서도 점차 다른 양상으로 응전하게 된 것이다. 탈북자 소설은 이처럼 분단 현실에 대한 시대적 변모를 반영한 문학적 대응의 결에 놓여있다. 다만 '탈북자 소설'이라는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78] '탈북자'에 대한 명칭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는 등 합의되지 않은 용어를 정치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 항에서는 우선 탈북자 용어를 바탕으로 탈북자 소설의 정의를 살피고,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정의로 좁혀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자'[79]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북한 외의

---

77) 정호웅, 「20세기 한국 문학과 근대라는 타자」, 『한국문학의 근본주의적 상상력』, 프레스21, 2000, p.23 참조. 이때 정치성이란 이분법적 인식으로 상대를 배척하는 배제의 논리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성행한 분단 문학 역시 배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78)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탈북자 소설(문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이성희와 고인환은 탈북자를 소재로 한 작품을 '탈북자 문학'로, 강정구와 정병호의 경우에는 탈북자 작가가 창작한 시를 '탈북이주민 시'로 명명하였다. 권세영은 탈북자 작가에 의해 한글로 창작된 시, 소설, 수기를 포괄하여 '북한이탈주민 문학'으로 정의하고, 그 창작소설의 유형을 정치소설적 작품과 자전소설적 작품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창작소설이 증언소설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영미(2014)는 이러한 용어들이 탈북자를 소재로 한 한국 작가들의 창작 소설인지 혹은 탈북자가 직접 창작한 경우인지 불분명하다고 보며 탈북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탈북자 창작 문학'으로, 남한 작가들의 탈북자 소재 문학은 '탈북자 소재 문학(소설)'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최병우(2016)는 '탈북자'는 탈북 사실만을 강조하는 데 비해 '탈북이주민'은 탈북하여 타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중층적으로 지닌다는 점에서 '탈북이주민 제재 소설'이라고 칭하였다.

79) 탈북자의 법률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이들을 일컫는 용어는 다양하게 변화되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다. 탈북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및 대홍수로 인한 북한의 체제·경제적 위기 속에서 본격화 되어 2000년을 기점으로 한 해 남한 입국 탈북자 수가 1,000명을 넘기고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며 현재 남한의 탈북자 현황은 3만 명을 웃돌고 있다.[80] 점차 탈북자 규모가 커지고 그 성격이 변화하며 다문화사회로 이행 중인 한국사회의 변화 등의 배경 속에서 다문화적 맥락에서 탈북자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각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81] 국제이주자이면서 정치·경제적 난민이라는 디아스포라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바다. 그럼에도 이들은 분단이라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다문화 의제와는 다소 다른 함의를 지니곤 한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는 통일 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 때 생길 문제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다.[82] 남북한 양 체제를 모두 경험한 이들이 남한 주민들과 함

왔으며 현재까지도 혼용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월남인'으로, 한국전쟁 중 대거 월남한 사람들은 '1·4후퇴자'로, 그 이후 90년 초까지는 '귀순자(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등)'로 호명되곤 하였던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귀순'은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함"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 남북 간의 체제 경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2005년 통일부에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제시함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동화되길 바라는 의식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탈북자를 일컫는 다양한 호칭은 사실상 문제적인데 특정 대상을 명명하는 방식은 곧 그들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이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탈북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이러한 표상의 연장선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을 떠나 남한에 거주하며 어떻게든 남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북한을 떠나 온 자'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면서도 학문 담론에서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80) 2020년 3월 기준 남한 입국 탈북자 수는 33,658명이다.(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2020.3월말 입국자기준)

81) 조효래, 『우리 속의 타자』, 한국학술정보, 2017, p.315.

82) 물론 탈북자와 북한 주민은 엄연히 다른 존재다. 탈북자들은 탈북 경험이라는 생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사회 속에 적응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은 그러한 경험적 요소를 체험하지 않았으며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또한 겪지 않았다. 탈북자가 곧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출신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탈북 과정에서 제3국에 정착하게 된 경우도 있고, 남한에 입국했다가도 다시 '탈남(脫南)'하여 제3국에 거주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고는 북한을 떠나 제3국이 아닌 남한에 거주하며 어떻게든 남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주목하고자 한다. 탈북자들은 오랜 북한에서의 삶을 통해 여전히 북한에서 익숙했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 주민의 특성'이 부각될 때 남한 주민과의 관계에서 갈등 등 유의미한 사건이 생기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탈북자는 북한 주민과 다른 존재임에도 남한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 부딪히는 지점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특성과 밀접하다는 점에

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겪는지 미리 당겨진 시선으로 보여주며 통일 이후의 현상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실험적 의미'를 가진 존재인 것이다.[83] 이들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중요한 자원이며,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정착 성공 여부는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84] 통일 담론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논해지곤 하였다. 통일 담론에서 탈북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으며 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이유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탈북자들을 형상화한 소설이 바로 '탈북자 소설'이다. 탈북자 소설은 북한 이탈 주민을 소재로 형상화하되 실제 탈북 양상의 영향을 받아 변모해오곤 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탈북은 정치적 탈북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바탕하여 이념적 가치 및 탈북자들의 비극적인 삶의 형상화에 치중한 것에 반해 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한 생계형 탈북[85]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던 2000년대의 문학적 형상화는 월경(越境) 과정, 제3국에서의 불법체류, 소수자로서의 소외의식 등에 주목한다.[86] 이러한 탈북자의 문학적 형상화는 한반도의 분단체제 및 통일 시대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며, 이는 탈북자의 일상적 삶의 문제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이질화된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하게 하는 것이다.[87]

그러나 앞선 항들-통일 문학교육 개념 및 방향-로 미루어 볼 때,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효용성을 지니는 탈북자 소설은 탈북자가 등장하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탈북자의 등장 유무가 아니라 남한 주민들과의 만남을 사유하게 하는 것이 통일 문학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탈북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협의의 개념은 보다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한 학습자들이 탈북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탈

서 이를 연결짓고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83)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오름, 2000, pp.288-289.

84) 조용관·김윤영, 위의 책, 2009, p.348

85) 이는 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북한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한 설명은 Ⅲ장의 소설 분석을 다루며 함께 후술하도록 하겠다.

86) 홍용희, 앞의 글, 2009, pp.378-380; 황선옥, 앞의 글, 2015, p.2.

87)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p.269.

북자가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고 남한 주민들과의 만남 양상은 어떠하며 이를 통해 통일의 지향점에 대한 사고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더불어 탈북 현상에 중점을 두면 자칫 정치적 담론으로 귀결되기 쉬우나 이 연구는 문화적 접근을 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폐쇄된 사회 및 접근의 제한성으로 북한을 향한 정치적 시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탈북자 소설은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잉 정치화를 약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8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 소설을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형상화한 소설'[89]로 정의하도록 한다. 탈북자 소설은 탈북자들이 탈북 이후 겪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들 사이의 만남 모색, 특히 남북한 주민의 바람직한 만남을 모색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은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사유하게 하는 소설'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탈북자 형상 및 남한 주민과의 만남 양상은 북한과의 관계를 단지 하나의 상(像)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분리된 체제가 아닌, 연속된 두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이야기인 탈북자 소설은 북한 주민의 구체적 삶의 양상과 그것이 남한 사회 및 남한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내밀한 감각이 동반된다. 이는 탈북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사회 체제와 익숙한 공동체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국경을 넘는 과정 못지않게 힘든 일일 수 있다는 점, 나아가 탈북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가 여부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남한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90]

통일 문학교육이 북한 관련 지식 습득 및 이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로서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으로 변해야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

---

88) 전효관, 「매체에 나타난 북한의 이미지 구성」,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p.103 주석 참조.

89)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 문학을 창작 주체에 따라 구분하곤 했던 선행연구들과 결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한 작가들의 탈북자 소설과 탈북자 작가들의 탈북자 소설은 분명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으나, 본고의 목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특징은 Ⅲ장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90) 최병우,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p.341.

은 이러한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성을 뒷받침하며, 통일 문학교육에서의 탈북자 소설의 정의를 마련하는 근거가 되어준다. 이는 단순히 '탈북'이라는 특정 현상 자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로 다룰 수 있다.[91]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법한 일'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입장과 경험을 마주하게 하며 이는 감정과 상상력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이다.[92] 탈북자 소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자 문제의 문화적 충돌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창작적 형상화로 풀어가며[93]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미래형의 사건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나아가 분단체제의 균열과 통일시대라는 민족사적 문제의식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일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94] 이처럼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을 어떻게 보고 있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어떠한 통일을 지향해야하는지 살피게 촉구하도록 하는 것이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이라 할 수 있는 이유다.

2.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분석의 관점

이 절에서는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앞서 살핀 정의에 의거하면,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서 통일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문학 비평과 통일 교육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는 탈북자 소설 분석의 관점은 이 연구가 지향하는 다문화적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주목함에 따라 탈

91) 이처럼 남북한 주민의 만남에 중점을 둔 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탈북자 소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작품도 사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은 통일가상소설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탈북자 소설로 칭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소설 역시 본고가 천착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이 핍진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탈북자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92) Nussbaum, M.,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 2013, p.33.

93) 이영미, 위의 글, 2014 참조.

94) 홍용희, 위의 글, 2009, pp.378-381.

식민주의 비평 원리를 요구한다는 점에 기반한다. 남북한의 관계를 '한민족'으로 상정함으로써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던 냉전시대를 뒤로하되 지배-피지배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교묘한 욕망에 대한 비판을 무디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남한 사회에 만연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보다 날카롭게 접근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유효한 것이다. 이 글은 탈북자 소설이 다문화적 접근의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부합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지닌 작품들이 타자 재현, 주체와 타자의 관계, 통일 한국 사회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물 형상화, 인물 간 관계 맺기, 시공간의 세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내면화된 분단 논리를 극복하고 다문화적 통일 주체로 나아가기 위해 북한 및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배적 담론에 근본적으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만남도 피상적 양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탈북자 소설의 인물 형상화는 남한 중심의 지배자 시선을 반영함으로써 남한의 근대 담론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냉전 체제와 분단의 질서를 넘어서는 시선의 조정은 제국주의적 질서에 의거한 관계가 아닌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관계 맺기를 지향하게 된다. 흡수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식민주의적 관계가 아닌 다름에도 공존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 이는 탈북자 소설 속 남북한 인물 간의 갈등 및 화해의 관계 맺기를 통해 바람직한 만남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은 남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통일 사회상과 결부되는데, 이는 근대의 획일성을 탈피한 다차원적인 지향점을 함의한다. 막연한 환상만으로는 건설적인 지향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기존 통일 교육에서 충분히 확인했던 바다.[95] 통일은 역사성을 띤 시간과 분리된 남북한의 공간의 통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자 소설 속 구체적인 시공간은 통일의 지향점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소설을 이루는 주요한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각각

95) 통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도, 관념적인 민족주의를 기반한 교육 내용에 학습자들은 통일상을 형성하지 못했고 이는 통일무용론, 통일회의론의 반응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다.

대응하면서도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하기 위한 다문화적인 시점 변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의 통일 문학교육에서는 종래의 민족주의 시점과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통일 교육의 관점을 반영하여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추출해 내기 위한 관점 정립이기도 하다. 필연적으로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는 소설의 세 측면, 즉 인물 형상화, 인물 간 관계, 시공간이라는 소설의 일반적 틀에 본고가 방향 짓는 특정 관점을 투영하는 것은 곧 이 글의 통일 문학교육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1) 인물: 정형성과 복수성

인물은 서사물의 주요 구성 요소로, 소설은 이러한 인물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핍진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감하게 타자[96]를 포착하고 때로는 타자성을 과대하는, 이른바 평범한 것에 대한 소설의 관심은 타자 재현의 문제로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소설은 지배적 논리에 근거한 표상에 대항하여 정형화에서 벗어난 개개인에 대한 인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소설은 이분법적·배타적 기제가 만연한 일상 세계에서 타자화된 인물을 정형(stereotype)의 표상이 아닌 성격(character)이 있는 인물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표상이 궁극적으로 타자를 '무엇(what)'이라는 위상, 곧 교체 가능한 위상으로 환원하는 시선임을 고려할 때[97] 그 표상에 가해지는 시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끄는 한편, 궁극적으로 근대적 담론에 저항하는 탈근대적 논리 형성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이러한 소설의 인물 재현에 초점을 두고 정형성과 복수성의 관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인물 형상화에서 정형성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타자로 인식하며 범주화[98]했던 식민주의적 표상과 밀접하다. 식민 지배자의 기준에서 피지배

96) 여기서 타자란 보편적인 개념으로 포섭될 수 없는, 곧 동일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개별자의 고유성을 말한다. 이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포섭될 수 없는 개인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속성이자 동질성으로 포섭될 수 없는 개별적 존재들 간의 차이를 일컫는 것이다.(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 사회와철학연구회, 2011, p.393.)

97) 윤대석, 「대칭성의 문학 교육 시론」,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한국어교육학회, 2019, p.353.

자는 낯선 존재로,[99] 식민 주체는 엄밀히 말해 자국민이 아닌 이질적인 존재에 제노포비아 혹은 혼재공포증에 직면하는 한편 이들을 서둘러 파악하고자 한다.[100] 이는 동양(Orient)에 대한 논의를 쌓아감으로써 서양(Occident)을 권위화하고 동양을 지배하며 세계의 유일한 주체로서 편성해온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101]과 유사한 구도를 지닌다. 공고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식민 주체는 낯선 존재로부터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익숙한 형태로 타자를 파악하고자 하며, 지배자의 기준에서 형성한 범주화된 인식을 발현함으로써 식민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푸코(Michell Foucault)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일종의 지식의 권력화라고 보았는데, 이항대립적 구도 속에서 주체와 타자를 대비시키는 담론이 수없이 반복되고 재생산되어 강고한 이원론적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지식—체계화, 개념화, 배제, 배열—은 곧 권력으로서 특정 대상들에 대한 표상을 만들어내며 그 대상에 대한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102] 이처럼 만들어진 표상으로써 오리엔탈리즘은 지배 담론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지식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답습한 지식을 토대로 담론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한다.[103]

그러나 이러한 표상은 상상 속에서 타자를 경험하고 그 상상적 경험의 연장선 위에 현실의 타자가 있다고 여기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인식론적 폭력 및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타자의 위치와 정체성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형되며 재배치될 수 있음에도[104] 재현되는 담론 속에 타자를 고착시킴으로

---

98) 범주화는 어느 범주에 속하는 개개인을 모두 똑같은 속성을 갖는 것으로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p.25)

99) 식민(植民)은 옮겨 심어간 존재 혹은 현상이라는 뜻으로, 기존의 정착된 거주민이 아닌 이방인의 의미를 담지한다. 윤대석에 따르면 식민은 식민자가 식민지로 이동하는 것과 식민지인이 식민지 본국으로 이동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여기서는 식민지인이 식민지 본국으로 이동한 것에 초점을 두어 논하고자 한다.

100) 제노포비아 혹은 혼재공포증은 낯선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촉발된 것이다.(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학과학사, 2006, p.17; Bauman, Z., *Liquid love,* 권태우 외 역, 『리퀴드 러브』, 새물결, 2013, p.258.)

101) Said, E. W., *Orientalism,*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0 참조.

102) 예를 들면 푸코는 성 담론에서 '변태'라는 체계적이고 개념화된 명명(지식)을 통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규정하며, 이러한 지식은 '정상' 외의 것을 배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보았다.

103) 고부응, 「에드워드 사이드와 탈식민주의 이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4.8, p.363.

104) Hall, S., *Modernity and its futures,* 전효관 외 역,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

써 소외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05] 이를 남북한의 관계에 대입해 볼 때, 우위에 서고자 하는 남한 주민은 이방인을 왜곡하기 쉬운 근대적 주체가 되고, 국경을 넘은 낯선 탈북자는 외부의 침입으로 여겨 남한에서 공포 및 경계대상 혹은 훈육의 감시 대상이 되곤 한다.[106] 그렇게 과잉 자기중심화된 근대 주체로서의 남한 주민은 동양이라는 타자를 거울로 삼아 자기상(自己像)을 구성했던 서양의 제국주의처럼 자신의 담론이 지적(知的) 담론으로 인증되기 위해 반복 재생산되어 온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틀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탈북자라는 이방인을 정형화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정체성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이드(Edward W. Said)가 재현 체계(system of representation)라고 일컬은 것과 관련된다.[107] 식민 주체는 이러한 재현 체계를 내면화함으로써 견고한 규율권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회의 아비투스를 점령함으로써 우위에 선 남한 주민들이 전지구적으로 만연한 근대적 요소를 담론화하면서 탈북자를 피지배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결국 특정 정체성이 부여된 타자는 실제가 아닌 반복 재생산한 표상, 즉 대리 표출에 의해 구성된 단일한 형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식민주의적 관점이 깃든 인물 형상화에서 정형성은 지배와 배제의 권력 관계 속에서 인물들을 평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이방인으로 상정된 이들에게 특정한 형상 및 특질을 부여함으로써 식민자와 외면적·내면적으로 분별되는 존재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면적으로는 특정 표상을 반복·재생산함으로써 단일하고 불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가 하면, 내면적으로는 열등한 특질을 부여함으로써 이등 국민화를 정당화하는 바, 타자에게 편협할 뿐 아니라 왜곡된 이미지를 확장시켜 그들의 삶을 '탈맥락화'하고 그들의 존재를 '타자화'한다는 점에서[108] 식민자의 시선이 다분히 녹아드는 기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고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근대주의의 확장에 저항하고자 하는 탈식민주의는 복수적 인물상에 주목한다. 오리엔탈리즘

연구, 2000.

105) 김윤정, 위의 글, 2010, pp.138-139.

106) 이미림,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p.319.

107) Said, E. W.,, 위의 글, 2000 참조.

108)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p.35.

적 인물 재현은 궁극적으로 타자의 표상이 왜곡되고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주체가 형상화한 타자의 표상이 마치 진리처럼 행세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기반으로[109] 식민자의 시선에서 누락된 타자의 다채로운 모습이 배제되었고 때문에 타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자 함이다. 이는 바바(Homi Bhabha)가 서구의 제국주의적인 '시선(look)'은 낯선 타자에게 오리엔탈리즘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타자와 부딪히면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과 연결된다. 타자의 복수적인 정체성은 '시선'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부분, 이를테면 실종된 인격 혹은 탈락된 정체성을 남기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타자의 눈은 제국주의적 시선을 혼란시키는 '응시(gaze)'[110]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바바는 이주민 여성의 표상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인종주의적·남성주의적 '시선'은 이주민 여성의 현존을 부정하지만 그러한 '시선'에 포섭되지 않는 이주민 여성의 정체성은 대항적 '응시'가 되어 문화적·성적 차이를 부인하는 차별적인 시선을 동일자에게 되돌림으로써 시선의 왜곡된 충족을 전복시킨다.[111] 이처럼 응시는 외현적 오리엔탈리즘의 획일적이고 단순화된 정체성을 동요시키며 비단 형상화 자체가 아닌 형상화 이면, 곧 잠재적 오리엔탈리즘으로 향하면서 제국주의적 시선에 대한 성찰을 가하는 것이다. 소설 속 인물 형상화가 그 재현된 모습 자체를 넘어서 재현 이면의 진리처럼 행사하고 있는 지배적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에 인물 형상화에서 복수성은 흔히 하나의 집단으로 명명되는 개개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개인 또한 복합적인 내면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시선'에 일면 따르는 모습을 보이되 '응시'와 같이 측량불가능한 모습을 지닌 '교활한 공손함(Sly Civility)'으로 무장하며, 이러한 양가적 속성을 지닌 혼종성

109) 사이드는 정형화된 표상의 합리성 혹은 진실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 표상이 누구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 사이드의 논의를 발전시킨 바바(Homi Bhabha)는 표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리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타자를 단일한 이미지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포섭되지 않는 여타의 고유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110) 응시는 대상을 동일화시키려는 식민자적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즉 대상의 타자성을 나타내는 부재의 위치에서 되돌아오는 비동일성의 의식을 말한다.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pp.154-155 참조.)

111) Bhabha, H. K.,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16, p.117; pp.130-131.

(hybridity)을 통해 식민주의적 시선에 대해 저항하는 동시에 복합성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성을 내재한 지배자가 피지배자로 상정된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려지는 시선 속에서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타자의 모습을 그려내며 동일자의 시선에 균열을 가한다. '응시'를 통해 단일한 성질의 범주화된 존재가 아닌 복잡다기한 모습을 지닌 주체가 됨에 따라 식민자와 피식민자를 일방적인 권력관계가 고정되어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한편 다양한 요소가 뒤얽힌 혼종성은 타자를 정형성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식민주의적 시선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수성은 궁극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피지배자로 여겨지는 존재들을 선험적으로 가치판단하거나 표상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그 자체로 봄으로써 스스로 행동하는 행위자(agency)임을 부각하게 된다. 피지배자로서의 탈북자가 지배자의 논리에 정형화되고 타자화되는 부정성만 지닌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논리에 빗나가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행위주체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근대주의가 형성한 공고한 경계를 비틀고자[112] '수행성(performance)'을 내세우는데, 이를 통해 타자화된 존재가 지배적 담론의 틀에 갇혀 파악되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이 행하는 방식에 따라 스스로 그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있음을 규명한다. 이러한 수행성은 주체란 행위의 원인이 아닌 행위를 통해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주며, 정체성이란 "언제나 이미 의미화된 것인 동시에 여러 개의 맞물린 담론 안에서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의미화 되는 것"[113]임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버틀러가 수행성을 "담론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칭하는 효과들을 산출하게끔 해주는 실천"[114]으로서 규명하고 있다는 점은 타자로 상정된 이들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복잡다양한 주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게 한다. '행위자'는 행위 속에서 행위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115] 인물 형상화에서 복수성은 타자의 수행적 특성을 부각하며 타자들의 평면적이지 않은 양상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

112) 이를테면 버틀러는 정체성 범주의 규범성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연장선에서 여성, 섹스, 젠더, 주체, 권력, 정체성, 정치학 등의 용어들을 끊임없이 회의하며 해체한다.
113) Butler, J., *Gender trouble,*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p.354.
114) Butler, J.,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p.23.
115) Butler, J., 위의 책, 2008, p.352.

이러한 복수적 인물 형상은 오래도록 답습해온 시선의 문제점 발견을 넘어서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했던 시선 조정을 이끈다. 이른바 정형성(stereotype)을 탈피한 성격(character) 묘사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간 존재의 현실적 의미를 그 구체적인 모습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을 특정 담론으로 귀결시키지 않고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이자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인간관계를 맺고 언제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있는 유동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형상화 또한 인물의 특정한 면을 과도하게 부각할 수 있는 등 표상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목하는 탈북자 형상화는 결국 이면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의 매커니즘을 바라보게 하며 그것이 어떻게 불평등과 억압을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살피게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간 표상되었던 부정적 형상이 아닌 새로운 형상의 부각을 통해 기존의 정형화에 틈과 균열을 내는 형상화라는 점에서 유효하다. 이는 결국 탈북자의 다양한 모습을 현상(appearance)함으로써 탈북자가 재현된 혹은 단일한 이미지가 아닌, 복수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 주체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근대적 주체가 표상한 타자는 정형화되지만 복수적 주체로서 인물 형상화를 살피는 것은 근대적 질서에 저항하는 복잡다양한 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대주의 및 식민주의의 구조적 논리를 상대화시켜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관계: 억압·배제와 환대

소설은 인간들의 관계 맺음을 허구성의 형태로 제시한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만남으로, 나만의 세상이 아니라 타자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 삶을 채우고 있는 마음을 읽는 것이다.[116] 이처럼 나뿐만 아니라 타자가 존재하는 소설은 필연적으로 인물 간 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지향점을 지닌 소설은 다양한 삶들을 재현하는 가운데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등의 갈등 관계를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가지며,[117] 이들이 관계를 풀어가는 것 혹은 악화시키는 양상을 통해 각기 다른 존재들의 바람직한

116)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47.
117) 김미영, 위의 글, 2015, p.79

만남에 대해 사유를 이끈다. 실제 세계가 인간관계의 총체 속에서 여러 사건이 펼쳐지듯 소설 속 세계도 인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건과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118] 다기한 서사를 품은 소설은 낯선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만남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인 셈이다. 여기서는 소설 속 주체가 낯선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주목하여 배타적 관계와 환대의 관계를 논해보기로 한다.

우선 낯선 타자를 마주했을 때 주체의 배타적인 양태로써 억압과 배제의 관계를 보이곤 한다. 이는 앞서 인물 형상화에서 살핀 정형적 재현과 밀접한데, 탈식민주의적 관점에 의거하면 타자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은 일정한 유형을 띤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형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9] 중세의 신분제를 넘어서 근대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도래를 주시했으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획일화된 질서가 점차 절대화됨에 따라 근대는 궁극적으로 '계몽의 기획'이 아니라 '지배의 담론'으로서 작용하곤 했다. 국민국가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가하는 모순적인 존재"[120]라 할 수 있는 가운데 식민지 주권 국가들의 권력이 확장하여 푸코가 말한 근대 권력, 곧 규율로서의 권력은 내부 식민지 문제가 되었던 바다. 그리고 외세의 식민지를 겪었던 한반도 위에서 남한 주민과 탈북자는 이러한 기묘한 관계 속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121] 국민국가의 자아동일성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이들을 '비국민'으로 낙인하여 차별과 배제의 시선으로 인식하게 되는 바, 탈북자에 대한 정형적 포착을 통해 남한 사람들이라는 주체와는 다른 이분법적 성질을 부여함으로써 대상화(化)하여 억압과 배제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타자와의 만남이 비록 이질적인 타자의 등장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더라도, 앞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동일자에 포섭되지 않는 타

118)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p.207.
119) 윤대석, 「식민자와 식민지인의 세 가지 만남」,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p.346.
120) 윤대석, 「21세기 한국 소설에서의 만주 - 《밤은 노래한다》론」,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p.91.
121) 외부 세력의 식민화로 인해 불평등을 경험한 국민국가는 또다시 그 내부에서 일정 기준을 내세워 중심과 주변부로 나누며, 중심부는 이러한 이항대립을 통해 권력관계의 근거를 형성함으로써 한 국가 혹은 한 민족 내부에서 식민지 논리가 반복·재생산되곤 한다.(윤대석, 「한국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문학동네』 11(2), 문학동네, 2004 참조.)

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엮인다는 점에서 주체와 밀접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 사회에서의 탈북자의 등장은 남한 주민이 탈북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한 코기토(Cogito)와 관련된다. 코기토는 단일한 자아의 앎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대적 인간은 단일한 자아의 수립에서 출발하여 앎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를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을 자기화하는 자기중심적 주체라 할 수 있다.[122] 이에 의거하여 남한 주민의 탈북자를 향한 억압과 배제의 관계를 '남한중심주의'라 칭해볼 수 있는데, 자민족중심주의의 기준에서 타자적 조건에 점철된 탈북자는 동등한 주체로서 마주하지 못하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근대 주체들은 획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폭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주체가 되는 한편 타자적 정체성을 지닌 피식민자들은 대상으로 전락해 주체에 종속된 이등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탈피하고자 레비나스는 근대적 주체를 비판하고 타자에게 절대적인 위치를 부여하되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 환대를 주장하며 타자 중심의 윤리학을 개진한다.[123] 레비나스는 타자를 동일자로 포섭될 수 없는 전적으로 다른 '절대적 타자'이며, 타자의 타자성(altérité de l'autre)을 "향유를 통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잠정적 규정으로서의 타자성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가 곧 타자성인 그런 의미의 타자성"[124]이자 윤리적 책임을 갖도록 명령하고 호소하는 존재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타자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타자는 '얼굴(visage)'로서 현현(épiphanie)한다. 마주한 타자의 얼굴은 내가 원하는 방식, 곧 익숙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얼굴을 하고 있으며 이때 나는 타자의 타자성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125] 그리고 레비나스는 이러한 타자성을 맞이하

---

122) 서용순, 「주체화의 두 가지 길」,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p.164.

123) 박구용,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현실사, 2003, pp.130-131;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p.50.

124) Levinas, E., *Le temps et l'autre*,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9, p.84.

125) 타자의 얼굴은 강자의 그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호막도 변호자도 기득권도 없는 낮고 비천하며(humilité) 배고프고 벌거벗은(nudité) 가운데 나에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자의

는 '환대(hospitality)'의 태도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타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타자를 자아의 공간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고 접근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6] 탈북자라는 타자와의 만남 문제의 핵심에는 근대적 주체관이 자리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다문화적 통일 담론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주체관에서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관으로 이행해야 함에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낯선 타자를 향한 적극적 환대를 추구하더라도 근대적 주체라는 본질을 흔쾌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또 다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근대적 주체가 내면화하고 있는 제국적 질서는 획일화된 기준으로서 우열과 열등의 위계를 짓고 중심과 주변부의 이항대립을 통한 타자화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적 담론을 답습한 서열적 관계는 지배를 행사하는 지점에서 타자의 동의 유무를 구분하여 살필 수 있다.[127] 우선 타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곧 타자가 근대 담론의 질서에 반대하거나 혹은 그럴 것이라 전제한 상황에서 주체는 보다 강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제국주의의 질서를 내면화한 근대 주체가 이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거부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질서를 분명히 하고자 배타적 관계를 취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자기 정립활동인 주체의 '자리 잡기(hypostase)'[128]를 '분리(séparation)'라고 일컬으며 동일성 속에서 분리된 주체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방식을 향유(jouissance)라고 말하면서, 이 향유를 통해 자아의 분리가 완성, 곧 분리를 통해 개별화된 자아가 된다고 한다.[129] 이처럼 분리된 자아는 오로지 자아의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성과 자립성을 향유하게 되며, 타자의 얼굴을 외면해버림으로써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굴로 자아의 윤리적 책임을 일깨운다.(문성훈, 위의 글, 2011, p.402.)

12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p.207.

127) 소위 타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와 동의를 얻은 경우에서 서열적 양태는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대석, 위의 글, 2004 참조)

128) Levinas, E., 위의 글, 1999, pp.128-129.

129) 향유(jouissance)는 자아가 자유로운 자아로서 스스로를 실현하는 과정이자 자아와 타자, 내부와 외부, 거주와 바깥 세계라는 분리를 만들어내는 개체화 과정이다.(김범춘, 「다문화 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5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pp.167-169.)

이에 반해 타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시 말해 타자가 근대 담론의 질서를 기꺼이 수용하거나 혹은 이미 내면화한 경우에서 주체는 일면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제국주의적 질서를 이미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 타자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할 필요가 없기에 타자의 '얼굴'에 환대하는 양태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환대 받는 타자는 그가 초대한 손님, 곧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자로서 이는 결국 동일자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한계는 뚜렷하다.[130] 타자의 타자성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다른 자아(alter ego)'로 받아들이기에 나오는 행동일 뿐, 타자성을 지닌 타자에 대한 환대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여전히 제국주의적 질서를 담지하고 있는 근대 주체에게 이러한 환대는 조건적이다. 자아의 동질성으로 포섭될 수 있는 타자에게는 호의적이지만 타자성을 지닌 타자에게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는 조건적 양태로, 결국 자아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제국주의적 질서를 답습하게 된다. 이를 남한 주민과 탈북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를 남한 사회에 편입되어 남한 주민이 되고자 지향성을 지닌 존재 혹은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임을 전제하며 열등한 피지배자에 앞서 군림하고자 하는 지배자가 되기 위해 남한 주민이 일시적으로 환대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자아의 동질성, 곧 남한 주민으로서의 주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타자에게 그 질서를 교묘하게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는 자신을 탈중심화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일화 주체로 남아있게 되며 타인은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131]

이에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제국주의적 질서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상호주체적인 만남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타자를 자아의 동일성으로 환원하지도, 자아에 동화시키지도 않는 대신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기꺼이 환대하는 것이다. 이질적 존재를 향한 환대는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아와 타자가 어느 한쪽으로 포섭되거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고 각자 타자의 시각에서 자신의 동일자 시각을 반성하게 되는 대화 속에서 자

130)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시혜성을 타자의 차이와 권리를 인정하는 척하는 척하지만 실은 우월한 위치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등한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양해야 할 만남이라 할 수 있다.(박구용, 위의 글, 2003, p.75 참조.)

131) 문성훈, 위의 글, 2011, p.412.

아와 타자는 두 주체로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타자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능동적 주체이며 자아는 타자에게 또한 타자가 되는 것으로, 자아와 타자 두 주체 간의 상호 관계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주체의 만남의 태도는 결코 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타자의 얼굴을 기꺼이 마주하는 자아 또한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 타자는 단일한 세계에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체이기에[132] 자아의 이기심을 꾸짖는 윤리적 존재를 마주한 자아는 탈중심화 되어 무한한 자기 보존 욕구의 한계를 무너뜨린다. 타자는 자아의 존재를 위협하는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성의 닫힌 세계에서 밖으로의 초월을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133]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자처하는 자기소외(Selbstentfremdung des Menschen) 현상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여 생존을 위협하기까지에 이르지만,[134] 자아가 타자를 환대할 때 비로소 폐쇄성을 극복하고 '나'라는 존재의 절대성에 빠지지 않게 되며 오히려 자아 또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근대적 주체의 자아중심적 태도가 전체성과 동일성의 횡포를 추동하고 있으나, 헐벗고 고통 받는 타자를 섬기는 윤리적 주체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주체의 회복까지도 동반하기 때문이다.[135] 이는 남한 중심의 동일자의 논리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낯선 이방인, 곧 탈북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주체성의 수립으로 나아가며[136] 이처럼 타자를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탈북자와의 만남을 통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상호 주체로서의 만남은 자아와 타자가 서로 상승작용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는 일방적 독백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로서 '나'와 '너'의 진정한 만남[137]이라 할 수 있다. 낯선

---

132) 서용순,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반(反)형이상학적 주체이론에서의 정치적 주체성」, 『사회와 철학』 28,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p.327.
133)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37쪽.
134) 김종호, 『소외시대의 철학』, 문음사, 1981, p.18.
135) 강영안, 위의 글, 2005, pp.74-75.
136) 서용순, 위의 글, 2014, p.328.
137) 만남과 대화를 중심으로 철학적 논의를 펼친 마르틴 부버(Martin Buber)는 만남을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 두 종류로 나눈다. 전자는 상대와의 정서적 공감대를 중시하며 수평적이고 상호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후자에서는 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적 존재가 이루어진다. 전자를 지향하는 부버는 추상적·일방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것'이라는 상호문화적 입장과 관련된다. 이는 곧 타자가 속한 집단이 아닌 타자라는 개인과의 만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편협한 자기중심주의 및 자문화중심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138] 타자를 소속된 집단에 의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 존재로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상호문화적 만남은 상대를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현상하는 것으로, 복수적이고 복합적인 두 주체인 남북한 주민의 관계에서 지향해야 할 만남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낯선 타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볼 때 낯선 이, 즉 탈북자를 만날 때 탈북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결심, 그 결심 위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139] 남북한의 만남과 화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다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다.

3) 공간: 균질성과 혼종성

서사적 존재로서 인물의 삶은 시공간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안 와트(Ian Watt)가 말했듯 현실의 시공간적 구체성을 모방하는 데 있어 소설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우위에 있다.[140] 서사적 존재로서 인물이 수행하는 서사적 행위들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하며, 추상적 개념으로서가 아닌 구체적 개념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141] 시간과 공간이 불가분의 내적 관계임을 전제하며 시공성(chronotope) 개념을 도입

적인 만남을 지양하며 구체적·상호적인 대화적 관계를 추구한다.(Buber, M., *Ich und du,* 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01; 김영순,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2017, p.258.)

138) Abdallah-Pretceille, M., *E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 아카데미, 2010, pp.76-77; p.104.

139) 최현덕, 「세계화, 이주, 문화 다양성」,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 이해 교육』, 동녘, 2010, pp.98-99.

140) Ian Watt, *The Rise of Nove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7, pp.32-33. (김근호,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 이청준의 <소문의 벽> 읽기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9, 2008, p.137에서 재인용.)

141) 선주원, 「동화에 구현된 시공성 읽기 양상과 교육내용 구안」, 『한국초등국어교육』 5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5, p.96.

한 바흐친(Mikhail Bakhtin)에 따르면 시공성은 본질적으로 문학의 장르를 규정하는 핵심요소이자 경험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히 인물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총체적인 경험을 축조화함으로써 사건과 행위의 본질 이해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서사 작품의 시공간은 이처럼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위한 장(場)을 제공하며 경험에 대한 특정한 감각을 지니는데,[142] 바흐친은 이러한 크로노토프를 칸트 식의 초월적인 인식 조건, 즉 선험적 도식성이 아니라[143] 인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 근원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보았다.[144] 문학의 세계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생활세계'(Lebenswelt)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개별적 주체가 실제로 조직하고 경험하는 현실이며,[145] 소설 속 시공간은 인물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이자 삶을 창조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146]

이러한 소설의 시공간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상호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데, 서로 다른 인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성성(多聲性)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공간이 대화성을 띤다는 특성으로 이어진다. 크로노토프는 소설 내적 세계뿐 아니라 재현 외부의 세계, 즉 작가와 독자가 거주하는 세계와의 역동적 교섭을 설명해주기도 하며[147] 현실 세계의 '지향점'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48] 크로노토프는 소설 속 세계 뿐 아니라 현실 세계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149] 필연적으로 식견의 사각지대를 지닐 수밖에 없는 자아인[150] 남한 주민이 탈북자 인물의 시공간을 살핌으로

142) 김근호, 위의 글, 2008, p.136.
143) 일찍이 칸트(Immanuel Kant)는 시공간이 인간의 경험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선험적(a priori) 조건임을 밝혔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개개인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사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선험이자 형태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시간과 공간의 결합체로써 시공간의 상대성과 가능성에 한 인식을 제시하게 되며, 아인슈타인의 물리법칙은 바흐친에 의해 소설 이론으로 확장된다.(최인자, 「현대소설 크로노토프들의 대화성과 교섭적 읽기」, 『문학교육학』 31, 2010, p.270 참조.)
144)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5, p.176.
145) Eagleton, T., *Literary theory,*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1986, p.78.
146) 김근호, 위의 글, 2008, p.137.
147) 최인자, 위의 글, 2010, p.271.
148)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pp.25-26.
149) 이는 서사 문학이 현실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문학장르라고 한 바흐친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더욱 타당하다.(Bakhtin, M. M., *Voprosy literatury I estetiki,*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150) 김영숙, 「바흐친과 다문화사회 담론」, 『노어노문학』 24(2), 한국노어노문학회, 2012,

써 현실 세계에서 바람직한 시공간, 곧 통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사고에 대해 의심해보는 데서 시작'[151]되어야한다고 함을 고려할 때, 근대가 자행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매 순간의 장(場)에 기록되고 시간이 지나며 켜켜이 쌓인 이들이 남한 사회라는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탈북자 소설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은 보다 유의미하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경험의 과거가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며 필연적으로 다기(多岐)한 시간과 공간이 중첩된 존재이다. 이러한 탈북자라는 인물의 행동은 특수한 맥락 속에서 수행되며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회적 활동과 그 활동들에 대한 재현이 이루어지기에 탈북자 소설이 남한 주민과의 만남에서 함의하는 시공성은 풍부하다. 궁극적으로 타자성과 외재성[152]을 지닌 탈북자와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 탈북자 소설은 대화적 시공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 자체가 곧 이러한 대화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질적인 타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남한 사회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민주의적 공간이 두드러진다. 식민(植民)은 한자 그대로 옮겨 심어진 인간 존재 혹은 현상인데, 이는 인종 및 민족의 잡거(雜居)를 초래하면서도 철저한 공간분할을 보인다.[153] 특히 식민자가 거주하는 특권적인 공간과 분리된 피식민지자의 거주 공간으로서 '게토(ghetto)'와 다름없다. 동일화의 사명을 표방하는 지배자가 여전히 우위성을 기반으로 지배의 욕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분법적 위계가 반영된 식민주의적 공간은 자신의 존재 확인과 가치부여를 위한 자아의 유한한 공간이자 타자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타자를 이용·착취·지배하려는 배타적인 공간이다.[154] 고립되고 분리된 공간은 자문화중심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로,[155] 이곳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인정되지 않으며 자아의 자아성은 더

---

p.114.

151) からたにこうじん, *倫理21*, 송태욱 역, 『윤리21』, 사회평론, 2001, p.221.

152) 바흐친은 나와 타자의 유일함을 담보하는 두 전제 조건을 타자의 타자성과 외재성으로 보았다.(김영숙, 위의 글, p.115.)

153) 윤대석,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p.92

154) 김영숙, 위의 글, pp.110-111.

155) 베넷(Bennett)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모형에서 고립과 분리는 부정의 단계로 자문화중

욱 공고해지고 타자에게는 관심이 없다. 타자가 살아온 흔적, 곧 타자의 시간성에 대한 이해도 전무하며 사실상 그 어떤 대화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균질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에 균질성을 띤 공간은 식민주의의 논리이자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국민국가의 논리를 반영한다. 근대 국민국가는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영토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절대주권인 국가에 의해 하나의 문화로 통일된 국민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156] 지역별로 상이한 다양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사회에 존재하는 표준화된 시민을 만들고자하던 근대주의는 이러한 효율성 추구의 구호 아래 점차 단일성과 획일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 외의 이방인 또한 관행과 질서, 규칙에 순응하길 바라는 국민국가에서 차이에 대한 인정이나 관용은 사라진다.[157] 동일자의 논리에 의해 포섭시킴으로써 타자성을 무화하거나 철저한 배척으로 차별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자기동일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국민국가는 동일자와 타자를 구분하는 분리적 인식을 통해 동일자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끊임없이 동일자의 논리로 포섭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를 고수하거나 배척하고 추방하는 양태를 보이는 한편, 인권을 유린하여 희생양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균질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158]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균질적 공간은 국민국가의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타자를 끊임없이 동질성으로 끌어들이거나 축출해냄으로써 이분법적 사유와 수직적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질적 공간은 타자의 존재 가치를 폭력적으로 규정하며 그 결과 현저하게 정치적인 공간으로 나아간다.[159] 타자성을 균질화하고자 하던 국민국가는 심지어 타자성을 지우기 위해 타자라는 존재 자체를 몰살하기에까지 이르는데,[160] 죄책감도 처벌도 없이 타자를 몰살하는 것이 허용된 이곳[161]에

심주의의 가장 낮은 단계다.

156) 이는 신분증과 등록제도를 통해 국민과 비국민의 법적 경계를 확정하며 시민들의 물리적 안전, 경제적 복지, 문화적 동질성을 보장해주는 국가는 국민에게 절대주권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 터한다.(최종렬, 『지구화의 이방인들』, 마음의거울, 2015, p.184.)

157) 이미림, 「이방인 정체성과 타자적 위치: 21세기 비극적 인간상」, 위의 책, 2014, p.24.

158) 이미림, 「최근의 문학적 경향과 철학적 담론들」, 위의 책, 2014, pp.35-36.

159) Agamben, G., *Homo sacer,*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pp.293-294.

160)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20세기의 국민국가는 고등한 종족에 대비되는 열등한 종족이라

포획된 타자는 다수자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배제되는 것이다. 획일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지향하는 국민국가는 갈등 없는 평화로운 공간이 아닌 차이의 발현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오히려 비이성적인 행태가 난무하는 아노미 지대[162]와 같이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자기동일성을 근거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편 동일자와 타자를 구분하는 분리적 인식을 통해 동일자에 포섭되지 못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동화시키거나 혹은 배척하고 추방시킨다. 그리고 폭력과 법을 구분할 수 없는 문턱에서 국가권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타자는 비로소 벌거벗은 생명이 되어 인권과 존엄성을 묵살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163] 근대 국민국가의 영위(營爲) 과정에서 주류에서 밀려난 타자들은 이러한 균질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며 타자들의 삶, 곧 타자들의 경험적 시간이 무화되면서 궁극적으로 무시간성을 형성하는 이곳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봉쇄된다.

이러한 균질성에 저항하여 호미 바바는 안팎의 경계가 해체된 혼종적인 상호의 공간으로 '제3의 공간(Third Space of Enunciation)'을 제시한다. 주체와 타자를 뒤섞는 혼종성은 엄격한 경계들을 비판하고 중심과 주변의 구조화에 도전하며 오히려 틈새(interstitial)를 강조하는데,[164] 때문에 혼종성의 제3의 공간은 여러 차이의 경계선을 가로지르면서도 그 차이를 존중하게 하는 대화성의 기반이 된다.[165] 이곳에선 강요되거나 부과된 위계질서 없이 문화적 혼성성(hybridity)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166] 이러한 공간은 양극성의 정치(politics of plarity)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자 자아가 자아의 타자들로서 나타날 수 있는 곳, 곧 자아가 타자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167] 다시 말해 안팎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진 혼

는 이분법적 사고로 끊임없이 타자를 표상하고 경계 지으며 점차 정치적 공간으로서 폭력성을 더해갔고, 국민국가의 예외 존재가 되는 이들을 수용소, 감옥, 고문실과 같은 비인간적 폭력이 정당화되는 극단적 공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161) 조주현, 『벌거벗은 생명』, 또하나의문화, 2009, p.86.

162) Agamben, G., Stato di eccezione,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p.99.

163) 이미림, 「다문화공간에 나타난 지리적 타자성」, 위의 책, 2014, p.198.

164) 나병철, 위의 글, 2001, p.7.

165) 이승갑, 「한국의 다문화화 사회 현실과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한 신학적 성찰: 호미 바바의 혼종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21, 한국조직신학회, 2008, p.176.

166) Bhabha. H. K., 위의 책, 2012, p.33.

167)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p.35.

종적 공간에서는 자아의 입장에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타자가 되어봄으로써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대화적 입장을 견지한다. 제3의 공간은 이처럼 개인이 속한 집단이 아닌 개인을 보고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촉구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는 그 누구나 이방인이 되어 서로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다문화적 상상력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양극성의 정치학이 사라지고 혼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곳에서 다문화적 상상력이 촉발됨으로써 대화적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168]

더불어 이러한 제3의 공간은 심연적 겹침, 동질화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169], 상징적 동일시를 특징으로 하는데, 중심도 변방도 아닌 이곳에서 새로운 혼성적 정체성의 주체들이 형성되며 동질화가 불가능한 차이를 협상하며 경계적 존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170] 이를테면 자국의 '경계선'의 발견과 미래지향적인 '선분적' 시간의 자각이 근대적 인식론의 토대라고 한다면,[171] 제3의 공간은 탈근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재영토화', 곧 회복을 추구하지만 결코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불가능한 과거지향적 공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새로운 역사로 흘러가는 '탈영토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나병철(2003)에서 다루었듯 새 역사로 나아가는 공간은 재영토화, 곧 분단 이전으로의 '회복'의 결과가 아니라 탈영토화된 혼성성으로만 표상될 수 있는 것이며[172] 나아가 시간적으로 새 역사를 향해 열려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경계선 너머의 이민족을 향해서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173] 이러한 접변과 변동의 탈영토화 과정에서 각 집단들은 중심부와 주변부, 이른바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발발된 대화적 상상력은 동질성 추구에서 벗어나 이질성의 인정과 화합 추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소수자 및 타자와 관계 맺는 과정으로서 통일상에 대

168) 나병철, 위의 글, 2001, p.91.
169) 리오타르는 식민주의적 '근대성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동질화가 불가능한 문화들의 다양성에서 발생한 저항을 꼽는데, 바바는 이에 더해 '심연적 겹침' 개념을 활용하여 리오타르보다 적극적인 해체주의를 반영한다.(박상기, 「호미 바바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영어영문학』 46(2), 한국영어영문학회, 2000, p.563.)
170) 박상기, 위의 글, pp.563-567.
171)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 숲, 1997, pp.107-171.
172)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제3의 공간 - 근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p.102.
173) 박상기, 위의 글, p.567.

한 역동적 사고가 촉발되는 것이다.[174]

타자와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주체성의 분열을 일으키며[175] 이는 동시에 균질적 공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항대립에서 벗어나 있는 독특한(singulier) 타자의 존재는 공고한 근대 국가에 틈과 균열을 드러내고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바바의 혼종성이 반영된 제3의 공간은 자아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없앤 새로운 공간, 즉 이항대립을 넘어선 제3의 정치학[176]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차이를 없앤 새로운 공간으로, 현실에 균열을 내고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눈뜨게 하는 다문화적 상상력을 촉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통일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배제한 남한의 정체성만으로 충족적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바흐친에 비추어볼 때, 타자를 거부하는 주체의 자기 충족성은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부정적이다.[177] 필연적으로 사각지대를 지닐 수밖에 없는 자아는 자기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제3의 공간이 형성될 때 비로소 시선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78] 이는 북한의 변화뿐만이 아닌 남한 사회 또한 새롭게 조명하며 변화 가능성을 지닌 곳으로 인식하는 것이자 냉전 체제의 잔재로서 단일 주체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다원주의적 관점 및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곳이 바로 호미 바바가 다룬 '제3의 공간'과 연결되는 지점이며 공존과 화합으로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단일 선상에서는 우열에 따른 서열화가 뒤따르지만, 혼종적이고 다차원적인 공간에서는 우열을 명확히 할 수 없을뿐더러 점차 무의미해진다. 순수한 동질성의 시공간은 일종의 명제로서 주어진 것으로 일면 선험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

174) 나병철, 위의 글, 2001, 253쪽.

175) 서용순, 「주체화의 두 가지 길」,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p.166.

176) 제3의 정치학이란 대립보다는 교섭(negotiation)의 원리에 의존하는 정치학을 말한다. 이때 교섭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순수한 동일성을 혼성성으로 만드는 역동적인 작용이다. 즉 제3의 정치학은 타자를 이항대립에 따라 배제하거나 지배하기보다는, 경계선을 해체해 타자와 대화하며 주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habha, H. K., 위의 글, 2016.)

177) 김영숙, 위의 글, 2012, p.114.

178) 최종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바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61, 범한철학회, 2011, p.403.

주입된다면, 혼종적이고 다차원적인 시공간은 구성원들이 형성해간다는 점에서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미래 지향성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3.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의의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통일 및 탈북자와 관련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연구는 탈북자 소설의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교육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습자 52명, 중학교 1학년 56명을 대상으로 탈북자 소설을 읽고 활동지 작성 및 감상문 쓰기를 실시하였다.[179] 활동사항은 공통적으로 소설을 읽기 전 학습자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초점 질문[180]들을 제시하고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81] 다만 이 절에서는 교육 현장에 밀착하고자 학습자 초점 질문에서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본격적인 감상 양상은 Ⅳ장 교육 설계에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음을 일러둔다. 본고가 제시한 초점 질문은 아래와 같으며, 학습자 초점질문 반응 분석 결과,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소설 읽기 전 <초점 질문>
1.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들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2.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들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3. '탈북자(북한 주민)'하면 떠오르는 것들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4. 우리 사회 속의 다문화 이주민과 '탈북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179) 자세한 학습자 정보 및 활동사항은 Ⅳ장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180) 초점 질문은 수업, 토의 자료 등에서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였는가를 확인하거나, 수업 시작 및 진행 도중에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자극하며 기본 지식을 점검하는 데 활용되곤 한다.(이종일 외,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2006, p.41.)

181) 읽기 중 참고사항으로 학습자들에게 낯설거나 어려울 단어들을 풀이해두었다. (㉠: 탈북자, 하나원, 브로커 ; ㉡: 탈북자, 귀국자, 수복지구)

1)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 체험의 확대·심화

우선 학습자들은 북한 주민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협소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종의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비교적 어린 중학생 학습자의 경우 탈북자 자체를 낯설게 느끼고 때문에 하등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양상을 볼 수 있었던 반면[182]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어려운 탈북 과정을 거쳐온 그들을 가엾게 여기거나[183] 그 과정을 이겨낸 대견스러운 존재[184]로 여기곤 함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탈북자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분명 어린 학습자들보다 발전된 양상이라 할 수 있으나, 미디어 등 남한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학습자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은 문제적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거 같다. 실제로 접해보지 않아 내가 이렇다 저렇다하기 조심스럽지만, 미디어를 통해 본 탈북자들은 극우화되어 반북·반공 집회를 하고, 생활고를 겪고, 북한에서의 아픔을 가리고 있는 이들이라고 비춰졌다.[B-(3)-18]"

이는 SNS의 발달로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학습자들이 미디어 담론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음에 교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학습자들은 탈북자들의 상황을 유추해보기도 하는데 탈북자를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며[185] "어쩌면 우리 주변에 항상 많을지도 모르는데, 신경쓰지 않았던 이들[E-(1)-11]"임을 인지하고 그들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며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182) "저 사실 탈북자 처음 들어봐요.(EM-(3)-33)", "따로 떠오르는 생각 없음(EM-(3)-36)"

183) "안타까움, 동정[B-(3)-6]",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시련을 겪은 사람들[B-(3)-12]"

184) "죽을 고비를 넘기며 와줘서 대견스럽다.[B-(3)-18]", "대단한 사람들. 의지가 강하고 생존 욕구가 센 사람들.[B-(3)-27]"

185) "죽을 각오를 하고 힘들게 왔는데 한국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EM-(3)-11]", "북한, 취업하기 힘든 분, 언어문제(EM-(3)-35)"

“얼마나 힘들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갈까.[B-(3)-19]”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나? 사실 북한에서 의사이거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탈북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EM-(3)-2]”

이들은 탈북자를 어떤 특성으로 규명하지 않고 그들이 겪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며 능동적으로 사유해보고자 한다. 탈북자들을 둘러싼 담론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그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에서 탈북자 소설은 보다 유용한 교육 제재가 된다.

탈북자 소설은 현실에 밀접한 바탕을 두고 인물을 핍진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낯선 탈북자들의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작품 속 인물에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겪는 상황까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정신적 체험을 확장할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심한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대상을 총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할 때가 많다.[186] 이질적인 두 주체의 만남인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고 포용하는 마음의 필요성이 촉구된다는 점에서, 탈북자 소설은 탈북자들이 월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및 남한 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읽어내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 및 공감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설 텍스트가 타자 및 소수자의 경험을 제공하고 개별성과 특수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고 주장한 누스바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187] 이러한 탈북자 소설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 체험을 확대·심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문학교육은 작품을 읽고 사고하고 말하며 확장되어 가는 과정으로, 당위적 규범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체화된 습관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삶을 섬세하게 그린 탈북자 소설을 통해 그들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연대를 사유하는 과정이 되어준다. 만남의 준비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우리 문화를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시각 확보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통합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본

186) 전우택, 위의 글, p.327
187) Nussbaum, M., 위의 글, 2013 참조.

고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자 감정적인 영역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문학교육만의 장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타자의 삶을 중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아래의 비판적·능동적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다.

2)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태도 증진

학습자들은 탈북자를 향한 분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연구자가 제작한 활동지 초점질문 (4)에 대한 답변들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다문화 이주민과 비교하여 탈북자를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 질문에서 남한 사회의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의 공통점은 넉넉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때로는 차별적인 시선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차이점은 다문화 이주민은 우리와 모습이 다르다고 배척당하지만, 탈북자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져서 더욱 무시하는 느낌이다.[E-(4)-4]"

"공통점으로는 이방인으로 취급. 특히 동남아 이주민과 탈북자를 '우리보다 더 모자란 사람', '못사는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민 와 처지가 훨씬 좋아진 사람'으로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려 함. (+ 우리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불만을 표할 때 '그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함) 차이점은 일부 사람들은 탈북자에게 큰 적개심을 표함.[E-(4)-8]"

눈여겨 볼 것은 여러 학습자들이 다문화 이주민보다 탈북자들이 더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 부분인데,[188] 선행연구에서 탈북자를 다른 이주자

188) "탈북민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은 거 같다.[EM-(4)-6]", "다문화 이주민은 그저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긴다(긍정적인 느낌), 탈북자는 동정심과 의심스러움(부정적인 느낌).[EM-(4)-7]", "공통점은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옴, 다른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음. 차이점은 탈북자를 무서운 존재로 인식함.[EM-(4)-15]", "우리 사회 속에서 두 부류 모두 차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간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언어에 장벽은 덜하지

집단들에 비해 친근감이 높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189] 본고는 이를 해당 선행연구가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면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는 현재 중등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만 19세 이하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기성세대들이 한민족을 내세우며 통일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반공적 잔재 또한 혼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이주민은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데 탈북자는 가끔 적대적으로 대한다.[EM-(4)-54]"는 한편, "다문화 이주민은 태생부터 다른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거부감을 가지지만, '탈북자' 분들에겐 궁금증이 더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E-(4)-11]"와 같은 학습자의 반응은 남한 사회의 그러한 분열적인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성세대의 통일 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습자들은 사회에 만연한 모순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판이란 문제의 발견 및 제기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주로 상식이라 부르는 관습적 사고, 편견, 선입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비판은 그 자체가 향상 행위는 아닐지라도 향상을 위한 준비로써 우리가 불완전한 상황에 더욱 잘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상황은 거기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며, 상황에서 무엇인가 옳은 것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최소한 옳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문제해결에 착수할 방향도 찾을 수도 없다는 점을 볼 때 비판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것이다.[190]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흔히 익숙한 담론에 입각해서 현실을 바라보곤 하지만 소설은 현실에 입각한 문학적 형상화를 구현하며 학습자는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를 투과하여 드러나는 팽배한 담론을 바라보게 된다. 분단 혹은 통일이라는 거대한 담론이 초점의 시작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쌓여 거대 담론, 즉 사회적 편견을 역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자 소설의 타자성은 현재 익숙해진 삶과 문화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교

만 안 좋은 시선 혹은 동정의 시선을 더 많이 받는다.[EM-(4)-11]"

189) 정동준 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p.167

190) Young, R. E., *Critical Theory and Classroom Talk*, 이정화 역,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 우리교육, 2003, p.21.

육적 유용성을 갖는다. 남한 사회에 익숙한 내부인의 시선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을 익숙하지 않은 외부의 시선, 즉 탈북자의 시선을 통해 한결 날카로운 관점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고의 방향이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나' 자신의 편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성해볼 것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려라는 태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비판은 관습적 사고 및 편견, 선입견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191] 우리 사회에 공고했던 지배 담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흔들며 독자가 자신의 맥락에 기반한 담론을 원심력으로 삼아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을 격려하게 되기 때문이다.[192] 탈북자 소설의 낯섦은 익숙한 사회의 아비투스에 대해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3) 통일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 촉구

오래도록 통일 교육에서 통일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상정하고 이루어지곤 했다. 이에 학습자들은 통일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당위적인 담론을 답습하면서 통일을 추상적이고[193] 막연한 이상[194]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통일을 이처럼 이상적인 단일화로 내세울 때, 학습자들은 오히려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191) 고영화, 「고전문학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교육연구』 61,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2014, p.12.

192) 이재기,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2009, p.137

193)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완수해야 할 민족적 과제[B-(1)-13]", "하나[B-(1)-22]", "우리의 소원[B-(1)-30]", "꼭 해야 되는 것[E-(1)-5]"와 같은 교과서적 답변과 더불어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B-(1)-3]", "필요하지만 어려운 것. 언제쯤 통일될지 모르겠다.[E-(1)-14]", "먼 미래의 것, 이상적이지만 현실성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EM-(1)-9]"와 같은 관념적인 답변을 볼 수 있었다.

194) "말 그대로 '1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남북통일 뿐만이 아니라 <u>싸우거나 합이 잘 안맞는 사람들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통일인 것</u> 같습니다.[B-(1)-10]", "'하나가 되는 것'. 이념, 사상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생활하는 것[B-(1)-28]", "<u>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u>[EM-(1)-30]"

“민간인이 아무리 생각해봤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B-(1)-24]”

“무감각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 포스터 제작하기, 북한 말 배우기 등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배웠다. 그러나 나는 정치에 큰 관심도 없고,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있었기에 굉장히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우리가 왜 통일해야하는지 모르겠다.[E-(1)-4]”

급기야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195] 그러나 이들은 하나된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상주의적 통일상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단 부정적인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인 통일상에 대한 요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전히 다수의 응답자(58.8%)가 통일을 남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편으로 이는 “40%가 넘는 응답자가 통일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지적했듯 통일상은 더 이상 단일한 명제가 아니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접근이 보다 다원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196]

일부 학습자들은 통일을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 통일상에 대해 새로운 접근으로 다가가려 함을 보이기도 한다.

“‘복잡함’이 떠오른다. 일단 북한은 공산주의로써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대립됨.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음. 오랜 시간 분단 상태에 있다보니 남북이 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됨.[B-(1)-15]”

“민족주의적.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분단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가 통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전부일까? 하는 생

---

195)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던 북한 간부들과 그 세력이 내전을 일으킬 것 같아 소름 끼친다.[EM-(1)-41]”, “통일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나는 통일하고 나서 예산, 언어, 정치인 등 문제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나는 그냥 애초에 통일말고 각자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EM-(1)-42]”

196) 정동준 외, 위의 글, 2019, p.218.

각.[E-(1)-16]"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퍼지고 있는 지금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에 대해 의심이 된다.[E-(1)-18]"

이들 학습자들은 현실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사고를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갈증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자 소설은 이러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는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이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스스로 의문을 갖도록 요청하면서 일어날 법한 일들에 주목하며 다양한 종류의 사람과 경험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작품 속 인물들과 독자 자신이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통해 독자의 감정과 상상력이 매우 왕성해질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된다.[197] 학습자는 핍진하게 묘사된 작품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 형상에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이해로 나아가기 때문이다.[198]

학습자들은 이처럼 탈북자 소설을 통해 뗄레야 뗄 수 없지만 흔히 상당한 무지(無知)와 정서적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던 '통일'이라는 한국 사회의 거대한 문제의식에 오히려 무딘 감각을 세공하며 '분별 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199]로 나아간다. 문학은 당위적인 명제로서 재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통일을 바라보는 현 세태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으로서 통일에 대한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서사를 통한 통일 문학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낯선 탈북자들의 삶을 인식하게 하고 그 안에서 보다 성찰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은 탈북자와의 관계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점차 통일상에 대한 확장적 사고로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통일에 대해 지속적인 사고를 촉구한다는 점은 통일 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위치할 수 있는 지점이자 통일 문학교육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197) Nussbaum, M., 위의 글, 2013, p.33.
198)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p.114.
199) Nussbaum, M., 위의 글, 2013 참조.

Ⅲ. 통일 문학교육을 위한 탈북자 소설 분석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마련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분석의 구도를 통해 실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살피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탈북자 소설의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로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으로 살핀 통일 문학교육과 탈북자 소설의 관계를 분석대상의 실제로서 탈북자 소설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다. 또한 탈북자 소설 분석을 통해 통일 문학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Ⅳ장 교육 내용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의 상황이 일종의 다문화적 상황일 것으로 상정하며 이때 이질적인 남북한 주민들이 이루는 만남이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탈북자는 남한사회가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으며 실제 남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고정관념은 단지 상상 속의 북한 사람에 가하는 반응이 아님을 재고하게 한다.[200] 그리고 탈북자 소설에는 이러한 남한 주민들과의 관계에 놓여있는 탈북자의 상황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에 탈북자와 함께 살아가는 양상을 다룬 탈북자 소설 분석은 향후 통일 한국 사회의 모습을 유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 추출에 유용하다. 막연하게 여겨왔던 통일 사회를 소설이라는 구체적 형상화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미 내면화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접근하는 통로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선 텍스트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통일 교육의 관점과 융합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 장에서는 기존의 탈북자 소설 연구에서 주로 취하고 있는 분단 문학,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의 접근법과 변별된 통일 문학교육의 측면에

200) 강주원, 「제5장. 남한사회의 구별짓기」,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엮음,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p.87.

서 분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크게 정형성을 넘어선 주체성으로서 인물 형상화, 고립과 타자화를 넘어선 연대로서 관계 맺기, 균질적 공간에서 혼종적 공간으로 이행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정형성을 넘어 주체성으로 인물 형상화

담론 이미지로서의 인물 재현은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어떻게 바라보고자 하는지, 나아가 북한을 어떤 위치에 놓고자 하는지 살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 정형화는 한 사회가 주류라고 상정한 다수자의 대척점에 놓인 소수자를 평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존재를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그 시선의 주체로서의 남한 사회의 담론을 살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탈북자 소설에서는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특정 유형으로서 재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두드러진다. 탈북자들 또한 남한 주민들과 다름없이 자신의 삶을 직접 영위해가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는 탈북자를 끊임없이 정형화하여 단일한 표상으로 굳히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형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탈북자 소설은 탈북자의 복수적 정체성을 묘사하는데, 탈북자들은 하나의 동질적 이미지로 포섭되지 않는 각양각색의 모습을 지니며 한 개인 내에서도 여러 정체성이 혼종하는 복합적 인물임을 두드러지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탈북자 소설은 궁극적으로 탈북자는 단일 유형으로 치부될 수 없는 다양한 주체들의 임의적 명칭일 뿐이며 탈북자는 단일 유형으로 존재하는 실재(實在)적 정체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복수적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두 가지 이상이 합쳐진 상태를 의미한다. 탈북자 소설에 형상화된 탈북자들의 복수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양상의 탈북자들이 이루는 외면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그러하고, 또 하나는 한 탈북자 내에서도 복잡한 내면이 혼종하고 있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성은 탈북자를 특정 이미지로 국한 짓고자 하는 담론에 저항하여 주체성을 부각함으로써 탈북자를 남한 사회의 주체로서 그리고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현실 인식으로서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정형화하는 방식을 먼저 살피고, 위와 같

은 복수적 특징에 주목함으로써 탈북자 인식의 지향점으로서 삼고자 한다. 이는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가 놓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탈북자의 복수적인 주체성을 인식하는 교육 내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탈북자

정형화된 이미지는 남한 사회에 만연한 탈북자에 대한 특정 표상이 마치 탈북자 전체의 모습인양 형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 기반으로 남한 사회가 자의적으로 형성해온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탈북자라고 명명되는 이들이 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 있을지언정 정형화에 의거한 시선은 일종의 편견의 연장선이자 소외된 탈북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기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탈북자 소설에는 남한 사회 혹은 이의 연장선에 놓인 국제 사회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정형화에 대한 비판의식을 부여한다. 공간적으로 거리가 먼 이국적인 감각은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201] 이 항에서는 탈북자가 어떻게 정형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축된 단일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는 바다.

우선 대표적인 정형화로서 탈북 운동가들이 탈북자를 표상하고자 하는 장면에서 살필 수 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는 <찔레꽃>[202]의 박 선교사는 자신과 같은 탈북 운동가들이 일종의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며 모두 탈북자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선한 인물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부모를 잃고 탈북 길에 오른 어린 영수의 탈북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에 그는 탈북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본색을 드러낸다. 영수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또 다른 탈북자 충심이 나서 한국에 도착하여 영수의 탈북 자금을 마저 갚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그는 탈북자들과 타협점을 찾기보

---

201) Said, E, W., 앞의 책, 2000 참조.

202) 정도상의 <찔레꽃>(2008)은 충심의 북한에서의 삶에서부터 일련의 탈북 과정을 거쳐 남한 사회에 도달하며 겪는 이야기를 연작소설의 형태로 풀어낸 작품이다. 국민국가의 타자가 된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한편 그들을 향한 주체들의 횡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다 영수가 선교 단체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제안을 한다.

박 선교사는 영수의 비용은 받지 않겠으니 대신에 편지를 쓰라고 했다.

(…)

"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연습 한번 합시다."

충심이모가 와서 영수의 손에 크레용을 쥐여주었다. 박 선교사는 비디오 카메라로 영수의 얼굴과 옷차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조선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김정일은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자유를 정말 원해요. 조선은 지옥이고 많이 굶었어요. 밥도 많이 먹고 싶고, 자유를 원해요. 도와주세요."

"좋았어. 그런데 옷이 너무 깨끗해. 좀 더러운 거 없어요?"

(찔레꽃, 182-183)[203]

한때 사기꾼에 의해 탈북 자금을 날렸던 탈북자들이 박 선교사에게 탈북 비용을 바로 지급하는 것을 주저할 때도, 자신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카메라에 담는 모습에 불쾌함을 느낄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선교사의 말에 생사(生死)를 건 또 다른 탈북자 순덕이모는 선교사의 말을 그대로 따른다. 내키지 않는 선교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탈북자들끼리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결국 선교사에게는 저항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주체성에 따른 것이 아닌 선교사를 위시한 남한 사회 혹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이미지대로 이행되는 것이다.[204] 박 선교사는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탈북자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그의 한 마디에 생존의 위협을 느낀 탈북자들의 처절한 행동으로 이의(異意)는 무마되며 탈북자에 대한 단일한 이미지만 남게 된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처지 속에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적인 모습

---

203) 소설 인용문의 밑줄은 인용자에 의한 것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인용된 작품의 면수를 의미한다.

204) "탈북자 혹은 북한인권은 그들 스스로의 실존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과 의도'에 의해서 구성되고 존재하는 것으로 기획된 측면이 없지 않다. 국경을 넘어 떠도는 유랑민의 실존적 기반이 기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존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선전하며 악용하는 서방의 미디어와 정치집단(시민단체의 겉모양으로 존재하는 척하는)의 반인권적이며 반평화적인 행위야말로 삶의 온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도상, 「작가의 말」, 『찔레꽃』, 창비, 2008, p.242)

은 배제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이미지는 박선교사 개인의 탈북자 재현 방식임을 넘어서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재현하고자 하는 방식, 곧 북한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미지로서 인식하고자 함이다. 전영평·장임숙(2008)에 의하면 분단 이래 냉전 체제 속에서 탈북자를 향한 인식의 기저를 형성했고, 남북한 체제 경쟁의 논리에 의해 재창출되었으며, 급격한 발전을 이룬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및 물신주의 풍조는 북한에 대한 우위성을 확보하며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었다고 한다.[205] 이에 비추어볼 때, 제시한 <찔레꽃>의 박선교사가 탈북자를 정형화하는 방식은 분단과 한국 전쟁의 역사 위에 정치체계의 반공이데올로기가 더해지면서 반북주의의 형태로 발현된 것을 토대로 자본주의적 가치 척도가 적용되면서 탈북자의 소수자로서의 정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주체가 원하는 모습대로 기획됨으로써 남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탈북자의 모습은 평면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때 유일하게 남는 탈북자의 목소리가 어린 아이 영수의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어린 아이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이자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어 어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탈북자가 “나쁜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되 “좀 더러운” 차림의 가난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박 선교사의 논리와 부합된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역사 속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이를 딛고 만인을 향한 사랑으로 평등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박 선교사로 표상된 남한 기독교의 ‘탈북자=약자, 남한인=시혜자’라는 도식화된 인식은 일종의 ‘문명의 사명(la mission civilisation)’[206]을 답습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이로써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북한을 표면적으로 적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존재로 상정함으로써 우월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남한의 모습이 드러난다. 어린 영수의 목소리가 결국 자기 본연의 목소리가 아닌 어른으로 치환된 남한의 목소리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내부 식민지와 다르지 않은 남한 사회의 통일 담론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

205) 전영평·장임숙,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p.244.

206) ‘문명의 사명’은 야만적인 주민을 문명화하는 것이 문명국의 임무라고 여기는 사고를 일컫는다.(にしかわ ながお,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p.133.)

지배의 담론에 부합하는 탈북자의 이미지만 남기는 것, 나아가 북한 주민의 삶을 연민과 동정으로 치환시키며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은 <왼손잡이 미스터 리>[207]에서도 드러난다. 리지혁은 고된 탈북 과정 끝에 중국 남부와 미얀마를 거쳐 태국의 방콕까지 도달하여, 그곳에서 '데이비드 영'이라는 전도사를 만난다. 데이비드는 심신이 지친 그에게 물심양면으로 베풀어주고 그의 호의에 대한 답례로 리지혁은 한 외신 인터뷰에 응한다. 다만 인터뷰 내용은 리지혁이 북한에서 고문을 받았던 것을 계기로 북한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기획된다. 데이비드는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명목으로, 북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로 인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는 일종의 거짓 서사를 만듦으로써 리지혁의 탈북 과정을 극화(劇化)한다.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이탈(離脫)'하고 다시금 돌아가기 어려운 객관적 현실에,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의미를 부여하며 국제 사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조한 것이다.

탈북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도와주는 탈북 운동가 조직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지할 데라곤 탈북 운동가밖에 없는 생존의 기로에서, 이처럼 탈북자들은 자신들을 특정 유형으로 정형화하는 그들 앞에서 곤경에 처하게 된다.[208] 한국 사회 및 그 연장선상의 국제 사회의 정치적 이익과 탈북 조직의 경제적 이익의 합이 떨어져 만나는 자리에 정작 탈북자 본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209] 위의 소설들은 거대한 두 주체의

---

207)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2007)는 탈북자와 타자화된 남한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경직된 질서와 가상의 환상 세계를 섞으며 편향과 모순으로 얼룩진 한국사회를 해학적인 문체로 비판한 작품이다.

208)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갖은 위협과 때로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탈북 운동가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위험성도 다분하다. 최병우(2016b)에서 탈북 운동가들 또한 탈북자들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협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최병우(2016a)에서는 재중탈북자가 자신의 처지에 따라 탈북 입국 과정 및 탈북 운동가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고, 탈북 과정 및 조력의 직접적 체험이 불가능한 작가들은 탈북자들의 인터뷰 자료만으로 탈북 운동가를 파악하는 것에 편파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 글은 최병우의 논의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이를 '탈북 운동가'라는 특정 집단으로 보기보다 남한 사회의 시선을 표면적으로 부각한 이들이라 보고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탈북 운동가 인물 형상화에 대한 일방적 표상을 경계하는 논의는 다음을 참조. (최병우,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6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a; 최병우, 위의 글, 2016b, p.339)

만남으로 인해 탈북자는 역설적으로 정형화된 이미지가 강화될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이러한 정형화가 비단 소수의 탈북 운동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한이 흡수 통일을 이룩했다는 상상력하에 이루어진 가상 통일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국가의 사생활>[210]에서는 대다수의 남한 주민들이 북한 출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선교 단체 혹은 브로커라는 특정 집단과 분리함으로써 탈북자를 향한 위와 같은 정형화를 자신의 문제로 전유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남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불특정 다수가 정형적 담론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 이후 이남에서는 종종 북한풍이 장난처럼 유행했다. 심지어는 김일성화(花)와 김정일화가 편의점에서 판매돼 인기를 끌어 세간의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이남 사람들에게는 패망한 전체주의 국가의 파편들이 공룡 발자국만큼이나 신기한 것 같았다. *(국가의 사생활, 47-48)*

인용문에서 보듯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문화는 신기한 장난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지역의 '덜 문명화된' 생활환경은 남한이 고도의 산업화 시기를 겪으며 잃어버린 시골에 대한 정감, 이른바 노스탤지어를 일으키거나 못사는 나라의 표상으로 전락한다. 일종의 놀이감에 지나지 않은 '북한풍'은 북한만이 지닌 특징으로, '문명화'된 남한은 이미 오래전 지나온 우월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문제적인 것은 위와 같은 분리적 인식에서 나아가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209) 이는 마치 인도 여성의 sati 순장 제도를 두고 서양 남성들과 인도 남성들의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와중에 정작 들리지 않았던 당사자 서발턴(subaltern) 인도 여성의 목소리를 떠오르게 한다. 인도의 순장 제도인 Sati로 인해 인도 여성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서양과, 자국민으로서 인도 여성을 지키고자 한 인도 남성의 논쟁 사이에서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인도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타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근대의 제국주의가 여전히 탈북자를 둘러싼 담론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10)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은 가상통일소설로, 남한이 흡수통일을 이룬 5년 뒤인 2016년을 상정하여 통일 한국사회의 디스토피아적 면모를 핍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다소 가학적이거나 섬뜩한 장면들은 타자를 배제하는 흡수 통일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상이 점차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탈북 운동가들이 탈북자에게 특정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북한을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기제를 반복·재생산하는 것과 다름없이 <국가의 사생활>의 남한 주민들 역시 북한의 열악했던 삶을 부각하며 이를 향유의 대상으로 도구화한다. 낯선 것들에 대해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이나, 이질적인 것들이 점차 정주민들의 삶에 스며들 때 정주민들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취사선택하여 편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한 주민들만이 한반도의 주체이며 북한 출신은 타자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의거한 탈북 운동가들의 탈북자 형상화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무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집단과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들추고 싶지 않은 면을 외면하는 것은 윤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탈북자 소설은 이러한 시각을 비판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담론을 답습하는 보통의 남한 주민 스스로를 점검하고 숙고하게 한다.

한편 탈북자 소설은 남한 사회가 탈북 여성들에게 젠더적 타자로서 또 한 번 왜곡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탈북이 가시화되던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이후 여성 탈북자는 남성 탈북자 수를 초월하는데, 특히 20~30대 여성이 동일연령의 남성보다 2~3배, 다른 연령대보다 많게는 5배 많다는 현실은[211] 탈북 서사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 탈북자가 빈번히 묘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남한 사회는 탈북 여성 이미지를 반복·재생산한다. 탈북자 소설에서 탈북 여성들은 대개 미모의 여성으로 묘사되곤 하는데,[212] 이는 신분이 취약한 탈북 여성들이 남한 사회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원인이자 결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상 통일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국가의 사생활>에서 고급 룸쌀롱 '은좌'에서 '제일 잘나가는 아가씨'로 조선노동당 최고위층의 딸이었던 서일화가 꼽히고, <청춘연가>의 남한 남성들은 열여섯에 중국에 팔려

211)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p.518.;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현재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입국현황이 집계된 이래로 탈북 여성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7~2019년 탈북자 입국현황에서 여성의 비율은 80%를 상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20.3월말 입국자기준))

212) 대표적으로 <세번째 집>의 성옥은 어려서부터 '일본아이처럼 예쁘다'는 말을 듣곤 했으며,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어여쁜 인민배우 오미란과 닮았다'는 말을 듣곤 한다. <표창숙> 또한 자신의 미모가 가라오케를 찾아오는 사내들에게 '인기 좋은 표적'이 될 것임을 인지하곤 한다.

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해온 경옥의 '앳되면서도 성숙한' 면모에 환호하며, 업소를 다니는 <세번째 집>의 혜교에게 순진한 이미지를 부여하며 탈북 여성의 미모와 웃음을 사고자 하는 남한 남성들의 시선은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탈북자 소설은 탈북 여성들이 서구화된 남한 남성주체의 시선 속에서 남한 사회가 잃어버린 동경과 향수의 대상으로 미화되거나 신비화되면서 이국적으로 독해되고 있음을 핍진하게 그려낸다.[213]

㉠ 이남 사내들에게 과연 어떠한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지는 몰라도 은좌에서 이북 아가씨들은 이남 아가씨들보다 지명도가 월등히 높았다. (…) 홍혜숙은 이북 아가씨들을 미인 대회 뺨치는 기준으로 뽑아낸 후 최고의 매너와 스타일을 교육해 그녀들의 청정한 이미지에 이남 요부들의 관능을 교배했다. 은좌와 같은 초특급 룸살롱은 차치하고, 이남 전역의 유흥가에는 '북한 여성 항시 대기'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이북 여자들 없인 물장사 못해 먹는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었다.

(국가의 사생활, 37)

㉡ 경옥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야생적이고 노골적인 육감미가 풍겼다. 남자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욕정의 빛이 웃음과 함께 까만 눈동자에 새물거린다. (…) 손님들은 처음에 경옥을 20대 중반쯤으로 본다. 그러다가 경옥의 나이가 겨우 스무 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환성을 지른다. 앳되면서도 성숙한 경옥은 늘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청춘연가, 62; 153)*

㉢ "(…) 여기 서나들은 나 같은 애들을 좋아하나보더라. 내가 순진하단다. 너두 그렇게 생각하니? 내 순진하니?" *(세번째 집, 214)*

위의 사례들과 같이 남한 사회는 탈북 여성에게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성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서구화된 남한의 시선에서 포착한 북한 사회가

213) 김현미,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2005, p.51 ; 이미림, 「다문화경계인으로서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 박찬순 소설을 중심으로」, 위의 책, 2014, pp.229-230.

‘북한풍’과 같이 덜 문명화된 향수적(鄕愁的) 사회로 인식되었듯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는 표상을 탈북 여성에게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획일화된 표상 속에서 북한 고위층이었던 서일화의 자아도, 기본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남한 사회에서 자리 잡으려면 10년도 더 걸려 매춘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경옥의 배경도, ‘돈으로 옷을 해 입고 돈으로 밥해 먹는다고 돈에 넌덜머리난다(145)’는 혜교의 위악적인 태도도 사라진다. 아름답되 위협적이지 않고 순수한 이미지로 전락한 이들에게는 다분히 근대의 젠더적 담론을 답습한 남성들의 욕망만이 남는 것이다.[214]

<국가의 사생활>의 북한 출신 리강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이북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술회하곤 한다. “다를 것 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지는 않고 보고 싶은 것들과 보기 싫은 것들만 보았다. 순진한 이북 여자가 전자에 속하고 무서운 이북 남자가 후자에 속하였다.(96)”는 것처럼 식인귀 출몰과 같은 유언비어[215]는 이북 사람들을 향한 이남 사람들의 혐오를 정당화하되, 이북 여성들은 순진하다는 남한 남성들의 환상은 그들에게 신비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북 출신 여성들의 성 산업을 도모하곤 한다. 이에 탈북 여성은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대한 무지(無知)와 그로 비롯된 이국적이고 신비화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근대 남한 사회의 관음증적 욕망의 대상으로 고착된다.[216] 남한 사회에서 익히 낯선 지역 출신의 여성들을 포획하는 시선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217] 관능적인 성 산업 노동자로 표상된 탈북 여성

---

214) 다문화소설 속 이주민 여성 재현을 살핀 연남경(2010)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로지 여성의 몸을 탐하는 한국인 남성주체의 욕망만이 시선의 움직임을 통해 소설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보곤 한다.(연남경, 「다문화소설과 몸 구현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 2010, p.158.)

215) 이를테면 북한 출신의 사람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 인육을 맛보았고 통일 이후 이남 사람들만 골라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묘사된다. 탈북자 소설에서 잦게 등장하는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초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각종 지원이 끊긴 북한에 1990년대 중반 극심한 홍수와 가뭄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이어진 상황을 일컫는다. 북한 정부는 항일 정신이 투철했던 역사적 사건의 ‘고난의 행군’을 결부시켜 투쟁 정신과 결의를 강조하지만, 수 십 만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죽어야 했다.(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9』, 통일연구원, 1999, p.2; 홍용희, 「고난의 행군과 북한의 시」, 『근대문학』, 2006.4 참조)

216) 이미림, 「다문화공간에 나타난 지리적 타자성」, 위의 책, 2014, p.205

217) 다문화 소설 속 한국 남성들은 매매혼으로 성사되는 국제결혼에서 동남아 여성의 육감적 신체를 보고 신부를 간택하거나, 성 상품화된 백인 여성이 ‘섹슈얼리티의 호감성향’을 자극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관음증적 욕망을 투영하곤 한다. (이미림, 위의 책,

들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열등한 타자로서의 탈북자

이 항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정형화하는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다. '열등한 타자'라는 것 또한 일종의 정형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일한 이미지로서 유형화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앞서 살핀 정형성이 탈북자 집단에 대한 외면적 인식이라면 여기서 살피는 타자는 남한 사회가 탈북자에게 열등한 자질을 부여하고 있음에 주목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내면적 속성에 초점화하는 바다. 탈북자에게 불변의 자질을 부여하는 것은 외적으로 고착화하는 정형성 못지않게 그들을 왜곡하여 표상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한 사회는 탈북자들에게 근대 국민국가의 타자로서 소수자적 특질을 부여하곤 한다. 일정한 절차를 밟고 법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옮겨온 존재로서 식민성(植民性)을 지닌 이들에게는 국민국가가 유일한 주체로서 상정한 지배자의 본질주의적 정체성이 결여된 존재,[218] 다시 말해 이등 국민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박경태(2008)는 사회적 약자와 구별되는 소수자의 특성으로 영구성, 특수성,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집단의식(소속 의식)을 들었는데,[219] 이에 비추어볼 때 남한 사회가 표상한 탈북자는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의 정체성을 지니며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차별의 특성을 지니는 것, 또한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도 없으며, 탈북자 집단으로서 차별받기에 소속 의식을 지니곤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재의 남한

2014.)

218) "난민이나 탈북자 등 옮겨다 심어진 사람들은 한쪽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는다."(이성희, 「탈북디아스포라로 살펴본 국가 의미의 재고(再考) - 김영하의 『빛의 제국』과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3, 우리말글학회, 2014, p.385)

219) 박경태(2008)에서는 소수자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Dworkin의 논의를 빌려 따로 정리해두었으나(14-15), 본고가 살피고자 하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시선은 사회적 약자와 비교될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약자'와 구별되는 '소수자'의 특성을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사회적 약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모두 일컫지만 어느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소수자' 개념과 중요한 변별점을 지니기 때문이다.(박경태, 앞의 책, 2008, pp.17-18.)

사회의 '소수자' 담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탈북자는 본질적으로 남한 사람과 다르다는, 다시 말해 남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남한의 위계적 시선을 탈북자들의 자질로 부여함으로써 그들은 열등한 타자로 고착된다. 이를테면 탈북자들은 어떠한 체제에도 몸담지 못한 부유(浮游)하는 존재로 재현되곤 하는데,[220]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름으로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모습에서 살필 수 있다. 이름은 사회적 질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주체의 구성에 관여를 하는데, 주체에 의한 호명은 스스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메커니즘을 지닌 사회적 질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221]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와 결부되는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삶이 '유령'과 다름없음을 핍진하게 그려낸 <유령>[222]에는 하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철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는 배우의 꿈을 꿀 만큼 자신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음에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현실을 살아간다. 처음 남한에 왔을 땐 대학도 다니고 영화판도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삶을 모색했으나 점차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임대보증금까지 날리고 게임 폐인이 되어 온라인 속 아바타와 혼동하기에 이른다.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리지혁 또한 남한 사회에 잘 편입하고자 희망을 담아 '리우리'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지만 바뀐 이름이 남한 주민과의 동일한 대우, 곧 남한 사회의 포용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인지해야했다. 남한에서 남한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고픈 마음을 담아 친근한 이름으로 호명되고자 한 그의 뜻과는 달리[223] 흐를 '류'와 떠날 '리'가 합쳐진 流离(liu li)라는 이름처럼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한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표상된

---

220) 근대 국민국가의 바깥으로 배제됨으로써 '합법적으로' 내버려진 생명들, 곧 호모사케르의 대표적 존재인 탈북자는 "국적, 주민등록증, 건강보험 등으로 대변되는 '증'없는(without paper)" 난민들이다. (정은경, 「키치에 맞서는 비정성시(非情城市)」,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pp.223-224.)

221) 김정숙, 『한국소설과 주체의 호명』, 역락, 2006 참조.

222) 강희진의 <유령>은 탈북자 공동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추리 서사를 결합시켜 목숨은 있으나 남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유령'처럼 떠도는 탈북자들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223) 개명 신청서에 '한 편의 통일 소설'을 지어내 개명 허가서를 받은 리우리는 한 달 만에 주민등록상의 이름도 바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우리'가 되었는데, 나중에야 "대한민국의 '우리'는 '나들', 즉 나의 집합이란 사실(116)"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다.

다.

<찔레꽃>은 연작소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북한에서 이탈하여 남한에 도달하는 과정을 각기 단편에서 다루는데, 그때마다 생존을 위해 이름을 바꾸어야하는 충심의 삶을 핍진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에서는 충심으로, 중국에서는 메이나와 별명 소소로,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혹여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은미로 살아가는 모습은 국민국가의 체계 밖을 떠돌며 근대가 내세운 공고한 기준에서 배제되어야했던, 지구촌의 다수자가 당연시 지니고 있는 것조차 지니지 못한 탈북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물론 살아생전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온 탈북자에게도 위와 같은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세 번째 집>의 성옥은 북한에서부터 줄곧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남한 사회 주변부를 맴도는 삶[224]은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상황으로 쉽게 이입한다. 타인의 자살 소식에 극도의 공포와 무력감을 느껴야 하는 모습은 국민국가의 타자로서 느껴야 하는 고통이었다. 국민국가의 타자로서 형성한 정서적 결핍은 평생을 살아온 곳을 등져야 했던 상실감, 새로이 정착한 곳에서도 여전한 타자라는 인식, 탈북자를 향한 다수자들의 담론을 답습함으로써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표상된 자질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들에게도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소수자적 특질의 영구성을 부각한다. <청춘연가>의 복녀는 하나원을 나와서도 부지런하고 붙임성 좋은 성격과 성실함으로 작은 국밥집 사장님까지 되어 남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간다. 경제적 자립성을 갖춘 것은 물론 특유의 긍정적이고 푸근함은 함께 하나원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의[225] 든든한 기둥이 되며, 국밥집을 찾는 남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문화를 알려주며 유쾌함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떳떳하게 남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복녀는 스스로 남한인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열등한 인물임을 자각하고 있다. 익숙한 사회를 이탈(離脫)하고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렌트(Hannah Arendt)의 기억과 지움과 적응의 문제와 직결되며[226] 실질적인 사회의 주체성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

224) 이를테면 성옥은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자 각종 음식점의 종업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한 사회는 성옥을 대학생으로 보기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탈북자로 인식하곤 한다.

225) 하나원은 성별이 나뉘어 이루어진다. <청춘연가> 미선 모녀가 남자 분원에 사는 남편과 떨어져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63)에서 살필 수 있다.

이다. 이는 복녀가 하나원 생활을 함께 하며 돈독해진 선화를 생각해 그녀를 오래도록 연모해온 또 다른 탈북자 성철의 부탁을 거절하는 대목에서 두드러진다.

㉠ *자신은 북한 여자임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북한 사투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선화만은 꼭 남한 사람으로 '진화'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 복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녀 역시 남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청춘연가, 191)

㉡ *북한 여자인 복녀가 북한 남자라고 성철을 경계한다. 북한 남자이고 이전에 도적이었다고 선화의 짝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 성철의 과거도 불가피한 것으로 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러면서도 그 과거를 싫어한다. 그런 과거가 있는 복녀가 같은 과거가 있는 김성철을 꺼리고 나무라는 것이다.* (청춘연가, 192-193)

자신은 비록 탈북 과정에서 낳은 아이와 함께 미혼모로 살아가지만, 끔찍이 아끼는 선화는 남한 사회에서 더 멋지게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 남성이 아닌 남한 남성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선화의 제자였던 성철이 중국에서 갖은 수모를 겪던 선화를 구출해준 은인이며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사실은 '탈북자'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무의미해진다.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복녀조차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결코 남한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남한 사회의 담론을 체화함으로써 스스로 이등 국민으로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의 편견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복녀가 답습한 것은 탈북자는 본질적으로 남한 주민이 될 수 없다는 남한 사회의 소수자 담론과 다름 아닌 것이다.

복녀의 사례가 탈북자를 향한 남한의 편견을 체화하는 정신적 양상을 보였다면, 또 다른 탈북자들에게선 구체적인 신체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탈북자 소설에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특성 상 국경을 이

226) 이성희, 위의 글, 2014, p.385.

루는 강을 건너[227] 중국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북송(北送)될까 공포감에 떠는 한편 불법체류자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228] 갖은 위협을 겪은 이들이다. 수모가 아로새겨진 몸을 이끌고 각고의 노력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했지만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에겐 고난의 행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한마디가 굶주림, 가족 해체, 죽음과 시체를 연상시키곤 하는데, 이것이 가시적인 질병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이를테면 <유령>의 주철은 불현듯 나타난 신체 이상이 호전되지 않자 정신과로 안내받게 되고, 신체 문제가 정신적 상처의 결과인 것으로 여긴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한다. 과거 영특한 머리로 인정받던 주철이 차츰 기억력을 잃어가던 와중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질병이 발발한 것이다.[229] 더불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강박성을 띤 장애를 보이는 탈북 청소년들도 눈에 띈다.[230] <유령>의 무산 출신 아저씨의 아들 무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를 훌쩍 넘겼음에도 탈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강박 증세를 보이는 등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고,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탈북 청소년 태우도 또래의 남한 친구들의 눈에 '불안 1급 자격증'을 주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늘 어딘가 불안해보이곤 한다. <세번째 집>에서는 차별적 언어를 내뱉는 아이들, 말투와 어휘 차이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무산 이모의 아들이 몸살을 겪으며, 무

---

227)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두만강을 건넘으로써 탈북 여정을 시작한다. 수량이 많은 압록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기에 비교적 수월한 두만강을 택하는 것이지만, 국경 경비를 피해 국경을 이루는 강을 건넌다는 건 상당한 공포가 뒤따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 사회 내에서도 차별받곤 하는 함경북도·양강도 출신의 탈북자가 75%에 달한다는 점(통일부)은 내면적 상처와도 결부되리라 여겨진다.(최병우, 위의 글, 2016b, p.331 참조.)

228) 국제적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 여론으로 형성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비법 월경한 사람들로 판단하여 체포하고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물론 탈북 운동가들까지도 실정법 위반으로 체포하여 수감한다.(박명규 외,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pp.73-76 참조.)

229)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으려는 주철의 모습은 정신적 외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면서도 현재의 삶에서 절망감을 느끼는 탈북자의 자기 확인이기도 하다.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병을 낳는 것이기도 하지만, 쉽게 망각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과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겠다는 태도와 결부되기도 한다. (정호웅, 「생명의 능동 - 오정희론」, 위의 책, 2000, p.251 참조.)

230)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가족 해체와 학력 부진 그리고 한국 학생 사이에서 겪는 소외 등으로 문제적인 외톨이로 성장한 가능성이 크"다.(최병우, 2016b, p.348.)

산 이모 또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보다 아들의 몸살을 견뎌내는 게 더 힘들어 위염에 불면증, 불안신경증을 앓았음을 술회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춘연가>[231]의 후반부에서 선화가 겪은 자궁암은 상징적이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듯 묘사되는 선화이지만, 탈북 과정에서 고통 받았던 착취당한 몸, 원한의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를 마음껏 사랑할 수 없었던 심적인 고통의 흔적들이 온몸에 배어있었다. 갖은 고통이 새겨진 삶 속에서 자신에게 기회를 준 방송국은 때문에 비참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떨쳐준 "행복을 주는 고마운 일터"였고 '어지간한'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습관이 쌓여 자궁암 말기에서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타자로서 탈북자라는 정체성을 지닌 선화이기에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는 한편 역설적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곤 했다. 언제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남한 사회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또한 그럼으로써 진정한 남한 주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인내와 통제가 동반된 것이다. 이따금씩 찾아오던 통증이 딸에 대한 죄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끼는 선화에게 자궁암은 딸에게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없었던 소수자라는 성질이 부여되었음에 근거하며, 이것이 질병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타자적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한에 왔으나 자궁암에 걸려 생을 마감한 선화는 탈북자들이 겪는 남한 사회의 소수자로서의 특질을 비극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타자화 재현은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탈북자들을 열등성을 부각하며 남한 중심의 환상성을 부여함으로써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남한-북한을 우월-열등의 관계로 서열화하며 스스로 이등국민으로서 인지하는 탈북자 표상은 탈북자를 열등한 자라는 표상을 씌움으로써 남한 주민들이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232] 남한은

231) 김유경의 <청춘연가>는 탈북자 창작 소설이 사실 의존적이고 수기류에 그친다는 등 문학성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뛰어넘은 작품으로,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을 탈북 여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서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탈북자 창작 작품들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이영미, 위의 글, 2014, pp.77-78.)

232) "사람들은 익명의 도래자에게, 또는 이름도, 성도, 가족도, 사회적 위상도 없어서 이방인(외국인)으로 취급되지 못하고 야만적 타자로 취급되어 버리는 사람에게는 환대는 베풀 수 없기 때문이다." (Derrida, J., *De L'hospitalite,*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분단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열등한 존재가 되었음을 담지하는 이러한 남한 사회의 관점은 편협한 정보를 통해 마련한 표상, 특히 열등한 북한과 대비하여 남한을 중심으로 놓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과 다름 아니다. 탈북자 소설은 남한 사회가 북한에 대한 논의를 쌓아감으로써 그들과는 다른 한반도의 주체로서 남한 주민을 권위화하며 통일의 유일한 주체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이 탈북자들을 남한 사회가 보고 싶은 대로 표상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복합적 주체로서의 탈북자

한편 탈북자 소설은 남한 사회가 표상한 정형성을 빗겨가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특정 이미지로서 획일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항에서는 남한 사회가 상정한 탈북자 인식에 대한 저항으로 탈북자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습을 띤 주체임을 살핌으로써 평면적인 집단이 아님을 살피고자 한다. 단일한 이미지가 아닌 다양성으로 구성된 역사적 존재로서의 형상화는 정형화에 갇힌 집단이 아닌 주체적 개인으로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앞선 두 항들이 탈북자를 정형화하는 남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면, 이 항은 남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성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비판적으로 살핀 대목들이 오히려 정형화에 저항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정형화 방식들과 대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탈북자 소설은 남한 사회가 정형화한 집단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난 탈북자들의 모습을 그려낸다. 남한 사회의 정형화된 담론 속에서 탈북자들은 흔히 가난하고 불쌍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사회주의·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북한과 달리 자본주의·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남한 사회 속에서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체제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맞닥뜨리는 상황임은 당연하다. 문제는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하거나 의지조차 없는 인물들로 상정해버림으로써 줄곧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고착화시킨다는 점이다. 극복할 수 없는 열등한 자질은 탈북자들이 언제나 남한 사

동문선, 2004. p.78.)

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게 하거나 남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정당화했던 근거였다. 그러나 탈북자 소설은 남한을 이루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이듯 탈북자들의 모습 또한 다양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양상을 보여주곤 한다.

이를테면 탈북자들을 향한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편견에 대응하여, <큰돈과 콘돔>[233]의 표창숙은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녀의 남한 이름인 '표창숙'은 본래 이름의 끝 글자인 '숙'에, 칭찬의 의미인 '표창(表彰)'을 붙인 것으로,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름에 걸맞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보험 설계사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로서 남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며 그들에게 감명을 주기도 한다. 그녀는 이웃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보험 가입 권유를 통해 한 남한 노인을 크게 돕기도 하는데,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 주체로 자립한 그녀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인다. 작품의 제목이 '콘돔을 쓰면 (실수로 아이를 낳지 않으니) 큰돈을 번다'는 표창숙과 그의 남편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표창숙과 그의 남편은 남한의 자본주의 논리를 몸소 익히고 있으며, 비록 체제가 다른 북한 출신임에도 남한에서 경제적 주체로서 자존감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주체로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춘연가>의 선화와 <찔레꽃>의 충심 또한 '남한 사회의 부적응자'라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에 대한 저항으로 읽어낼 수 있다. <청춘연가>의 선화는 하나원을 나와서부터 학원을 다니고 부지런히 자격증도 따곤 한다. 북한에서 중등 교원이었던 선화는 남한에서 북한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하나원을 나가서 자립하는 것에 염려를 하곤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남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뜻밖의 기회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합격하게 되는데, 성실하게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

233) 이대환의 <큰돈과 콘돔>은 자본주의의 남한사회에 편입되어가는 탈북자의 삶을 그려내는데, 여타의 탈북자 소설에서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역력하다면 이 작품은 성공적으로 남한 사회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변별점을 확보한다.

는 것이다.[234] 선화는 탈북자 소설에 형상화된 된 인물들 중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청춘연가>가 탈북자 창작 소설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북자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탓에 특정 부분에서 감정 과잉이 드러나거나 단조로운 구성 등에서 플롯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지만,[235] 남한 사회의 이방인으로서 부유(浮游)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탈북자 묘사는 남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작가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탈북자 창작 소설은 주로 남한 작가들에 의해 정형화된 탈북자의 표상에 대한 저항이자[236] 남한 사회의 주체적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 맞닥뜨리는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인물은 <찔레꽃>에서도 돋보인다. <찔레꽃>의 충심은 갖은 고생 끝에 남한 사회에 도달했으나 회사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공장에서도 외면 받는다. 먼저 일했던 탈북자들의 행세가 나쁘다는 소문이 쌓여 외국인노동자보다도 더 심한 차별을 받으며, 충심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노래방 도우미일 뿐이다. 인천공항에 내릴 때만 하더라도 부푼 꿈을 지녔으나 잔금이 남은 탈북 비용[237]과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결국 이

---

234) 선화는 일할 때도 좋지만 출퇴근할 때가 제일 좋았다. 붐비는 지하철역을 오갈 때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때면 말할 수 없이 흐뭇했다. 아침이면 제각기 바삐 서두르며 일터로 가는 사람들 속에 자기도 속해 있다는 것이 몹시 행복했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속에 끼면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하여 좋았다. 그들과 같이 자기에게도 일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어디에선가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희로웠다. 스스로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신이 결코 쓰레기처럼 버려질 존재가 아닌 것에 감격했다. 그렇게 선화는 출퇴근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새삼 확인하며 행복해했다.(123-124)

235) 신형기, 「작품해설 - 잃어버린 청춘의 연가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p.308.

236) '남한' 작가는 남한에 만연한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아비투스(habitus)에 속한 사람들로서, 존재론적 한계를 지닌 이들의 탈북자 표상은 충분히 비평대상이 될 수 있는 바다.(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75.)

237) <찔레꽃>에서는 인당 탈북 비용이 오백 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탈북자들이 탈북을 감행하는 것 나아가 탈북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상당한 고난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쇄적이다. 탈북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금 명목으로 받는 '거액'의 돈으로 충당할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남한에 와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혹한 액수로,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다.

차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럼에도 충심은 소설 속 다른 탈북 여성들-성희, 정림, 홍단-[238]과 달리 자립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239] 탈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열등한 자질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곤 하는 남한 사회의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것이다.

충심은 양심에 따라 자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준 남한 남성 '최'를 거절한다. 최는 남한 사회에 스며들고픈 충심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도 있었지만 충심은 자립하여 살아가고자 그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다. 노래방 도우미로 살아가는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최를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영악해지지 않고 진심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조선족과 가짜 결혼을 하면 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도, 정착금을 탕진하고 영국으로 가는 게 유행이라는 유혹도 모두 거절한 대신 충심이 택한 것은 '마흔 살의 나이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공부하는 억척어멈' 진숙언니의 말처럼 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 있는 엄마와의 통화처럼 '밥 굶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충심의 모습은 성희, 정림, 홍단 등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결국 개인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는 탈북자 모습을 보여준다. 충심은 탈북 과정에서 성 산업에 종사한 여성에 대한 편견 속에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자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탈북자 소설은 복잡한 내면을 지닌 존재로써 변화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에 주목하기도 한다. 이들은 달라진 환경에 따라 이전보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내면화한 근대 담론으로부터 탈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춘연가>의 미선 모녀(母女)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에서 주축이 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틀에 국한된 정형성이 아닌 성격

238) 이들은 "이미 중국에서 몸을 버릴 만큼 버린 터라 모두들 그까짓 거 하며 살(201)"곤 하는데, 이를테면 노동을 참아내지 못하고 무책임할 만큼 일자리를 쉽게 그만 두며, 남자들과는 쉽게 동거를 하고 헤어지곤 한다.

239) "정도상은 여느 소설처럼 탈북자들에 대해 연민과 동정의 시선으로만 묘사를 하지 않는다. 일례로 주인공 '충심'은 탈북과정에서 뚜렷한 소신과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탈북자, 특히 탈북 여성의 면모를 폭넓게 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하겠다."(김인경, 위의 글, 2014, p.270.)

(character)을 지닌 모습이 부각되며 탈북자 소설이 지향하는 바를 집약했음을 볼 수 있다. 미선 모녀는 북한에서 무역 일을 하던 수완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인해 북한에서 상당히 부유하게 살아온 인물들로, 대다수의 탈북자가 양산된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을 모른다. 남편의 사업 문제로 인해 북한에서의 안위(安慰)가 보장되지 않자 탈북 과정에서 '돈을 뿌리며' 어려움 없이 남한 사회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원의 다른 여성들이 수년씩 중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겨우 남한에 도달했던 것과 달리, 그들 모녀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날아서(63)" 남한에 입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풍족한 경제력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자 다른 탈북자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과 다른 이들은 여타 탈북 여성들과 동일하게 취급받기 싫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240]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다른 탈북자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한 탈북 과정은 공감의 대상이기보다 자신들의 '명예'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미선 모녀의 태도는 탈북 여성들이 처한 현실과도 밀접하다. 북한의 배급 사정이 열악해졌을 때, 남성보다 비교적 경제활동이 자유로웠던 북한의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강(渡江)을 하곤 했다.[241] 그러나 그저 식량을 구할 목적이었지만 사기결혼 및 매춘으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종국에는 인신매매로 인해 몸을 팔게 되는 위험에 노출되기에 이른다.[242] 하나원의 탈북 여성들이 이러한 아픔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치유해가는 모습들에 반해 미선 모녀는 이러한 이유

240) "아니에요.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다 돈에 팔려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탈북자 여자들이라고 다 같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워요. 이런 인터뷰에 참가한 게 창피해요." 인터뷰 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여기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70-71)

241) 북한의 남성들은 공식적인 생산조직에 얽매여 이동에 제약을 받는 반면, 공식적 생산조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은 이동하여 장사를 하거나 물품 교류가 가능했다.(조효래, 위의 글, 2017, p.321.) <찔레꽃>의 충심, <청춘연가>의 선화, <세번째 집>의 성옥 등은 모두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섰다 걷잡을 수 없는 탈북 길에 오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42)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인접한 중국의 마을로 잠시 건너갔다가 식량을 구해 북한으로 다시 들어오고자 했음에도 생사(生死)와 불법의 경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도강(渡江) 행위는 떳떳할 수 없다. 때문에 공안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며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며, 끝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된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남게 된다.

로 다른 탈북자들과 어울리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빚곤 했던 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탈북자들이 복잡한 내면을 지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도도하던 미선의 엄마는 훗날 복녀네 국밥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마음을 나누게 된다. 일생 남편의 그늘 밑에서 안온한 삶을 영위하던 미선의 엄마는 남편이 행방불명되자 자신의 허영심을 반성하며 삶의 최전선에 뛰어든다. 체면을 버리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고자 식당 일을 자처하며, 미선의 엄마를 '허파에 바람 찬 여편네'라고 생각하던 복녀 또한 그녀와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헛된 욕망을 지니곤 했던 미선 엄마는 지난날 자신이 업신여겼던 복녀를 존중하며 '사장님께 감사하다'는 진심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복녀 또한 그녀의 진심을 느끼자 그간의 불편한 마음을 덜고 서로 깊은 교감을 형성해간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감정을 느끼고 현실에 대응해가는 변화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탈북자의 형상은 탈북자들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면화한 근대 담론으로부터 탈피해가는 탈북자 양상은 <국가의 사생활> 리강과 <로기완을 만났다>[243]의 로기완의 모습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각각 남한 흡수 통일로 이루어진 통일 한국 사회와 제3국 벨기에에서 살아가는데, 근대 국민국가가 부여한 선험적 조건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출신 집단으로부터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 혹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보다, 스스로 삶의 정의와 가치를 판단하여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탈북자를 향한 고착된 정형화를 능동적으로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의열단 출신의 애국지사인 할아버지를 이어 인민군의 촉망받는 엘리트 전사였던 리강은 냉철한 판단력과 실력을 지니면서도 외부적 혼란에 무딘 인물로 묘사되곤 한다. 이는 그의 강직한 성품에 바탕하기도 하나, '대동강'[244]

---

243)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탈북자의 아픈 현실을 그의 흔적을 추적하는 '나'를 통해 고독한 감각과 고통이 세밀하게 묘사되며, 연민과 유대를 통한 희망을 암시하는 작품이다.

244) 가상 통일 소설인 <국가의 사생활>에서 남한의 흡수 통일로 이루어진 통일 한국에 반감을 가진 오남철을 위시하여 이루어진 북한 인민군 출신 조직 폭력배의 명칭이다.

의 구호(口號)를 깊이 내면화했다는 점에 보다 강력하게 기인한다. 남한의 흡수 통일이 이루어진 통일 한국 사회에서 배제된 북한의 체제와 문화를 음지(陰地)에서 이어온 '대동강'은 오남철을 위시하여 움직이는데, 리강은 '대동강'의 일원으로써 임무를 수행하곤 한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오남철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리강은 집단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수동적으로 이행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리강은 자신의 동료를 살해한 용의자로서 오남철에 대한 의심을 저버리지 못하며 점차 '대동강' 단원으로서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오남철의 모략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남한 요원 윤상희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서 그는 윤상희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따르기보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로기완 또한 무비판적으로 답습했던 근대 논리를 점차 탈피하며 자유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로기완의 출생 배경이 1987년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리 제7작업반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인데, 북한 사회가 극심한 혼란을 겪던 199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체험은 그의 무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배경이기 때문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및 극심한 홍수와 가뭄으로 북한의 체제가 위태로워지자 보다 은밀하되 강력하게 북한 주민들의 내면에 스며들고자 했던 국가 이데올로기는 한 국민국가에 안정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로기완의 모습에 투영된다. 북한에서는 구호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버텨야 했고 탈북 이후에는 국민국가의 타자로서 떠돌아야했던 삶의 여로는 로기완이 근대 담론을 내면화하기에 충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기완은 내면화한 담론을 극복하고 스스로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 탈북 이후 벨기에에 도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난민 지위를 얻게 된 로기완은 안정된 지위를 기꺼이 버리고[245]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벨기에에서 추방당한 라이카를 따라 영국으로 떠난다. 사랑을 위해 또다시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 곧 소수자로서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245) 국제사회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경제적 원조를 받을 수 있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불법체류자의 불안정한 삶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럽은 하나의 연합으로 묶여 있지만 난민 지위는 공유되지 않는(175)"데, 이는 곧 로기완이 "벨기에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혜택과 정착민으로서의 안정감을 저버린 채 또다시 불법 이민자가 되겠다는, 그토록 불안한 삶까지 감수하겠다는 희생을 내포하는 것(175)"이었다.

다. 로기완은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의 시신을 팔아 그 경비로 벨기에까지 도착하였음에도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절망감에 자괴감과 슬픔으로부터 쉽게 헤어나질 못했으나, 라이카를 만나면서 다시금 삶의 생명성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삶의 생동감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이러한 사랑 앞에서 로기완은 삶의 주체로서 불안정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질적 안정감보다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해 또다시 불안한 삶으로 뛰어든 로기완은 디아스포라된 인물들이 연대하여 삶의 진정성을 찾아가는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246] 로기완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주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247]

이상 이 항에서는 복합적 주체로서 정형화를 벗어난 다양한 탈북자의 모습을 살피는 한편 그 내면 또한 복잡다양한 입체적 인물로서 탈북자를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의 모습은 남한 사회가 탈북자를 향해 투영한 가난, 소수자 등의 담론적 이미지로부터 저항하는 것으로, 탈북자는 얼마든지 다양하고 혼종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탈북자'라는 명칭 또한 남한 사회가 편견으로 덧붙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가치중립적으로 나아가게 한다. 정형화라는 것이 한 인물의 단일한 이미지에 주목하여 평면적 인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복합적 주체로서의 탈북자는 그 다양성으로 인해 '탈북자'에 속한 이들을 동질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는 한편, 한 개인으로서 탈북자 또한 복잡다기한 입체적 인물일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다성성(多聲性)을 띤 탈북자들은 정형화된 이미지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닌 남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들로 현현(顯顯)된다.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정형화하는 것에 맞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탈북자의 모습은 그들을 둘러싼 편견을 깨뜨린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개인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

---

246) 고인환, 「탈북서사와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 『문학, 경계를 넘다』, 국학자료원, 2015, pp.19-26 참조.

247) 김영미(2017)에서는 그간 소설 속 탈북자가 고정된 전형성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에 반해, <로기완을 만났다>의 로는 "적극적으로 다른 소수자와 새로운 연대를 꾸리는 능동적 인물로 탈바꿈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 글과 궤를 같이 한다.(김영미,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p.19.)

는 모습은 탈북자에 대한 편견 속 이미지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마주할 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고립과 타자화를 넘어 연대로 관계 맺기

사회 통합을 대비하는 통일 문학교육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식 및 이해가 아닌 북한 주민과의 진정한 만남을 사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남한 주민과 탈북자가 맺는 관계는 통일 문학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만남은 TV 속 이산가족 상봉처럼 낭만적이지 않다. 오래도록 헤어져있었던 두 인물 간의 이질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만남은 낯설 뿐만 아니라, 배제 메커니즘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열악한 만남 상황에 놓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탈북자 소설이 남북한 주민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사유를 촉구하고 있음을 보고자 한다.

우선 탈북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불관용과 배타적인 집단의식의 결과로서 동화주의적인 남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탈북자의 눈에 비친 남한 주민의 모습은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자성의 계기로서 변화를 촉구하며 균열을 일으킨다. 앞서 복합적 주체에 대한 이해는 대화적 태도의 형성과 연결되는 바, 동질성에 포섭되지 않아 배제되었던 개별 주체들의 모습으로 시선이 확장되면서 다양하고 다각화된 시각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탈북자와의 만남에서 우호적 태도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개인을 속박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고 편협함을 인지하며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탈북자와의 진정한 만남은 일방적 독백이 아닌 윤리적 교섭과 연대의 책임 있는 대화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248]

1) 현실 반영의 배타적 관계

바바는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248) 신형기,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p.73 참조.

서구의 재현적 통제에 대한 욕망을 일으켰다고 한다.[249] 이에 비추어볼 때 탈북자와의 만남은 자기중심적 남한 주민에게 그 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타자'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남한 주민이 이분법적인 구별을 통해 우월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의 우월적 태도 및 멸시의 시선은 일종의 혐오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250] 이 항에서는 이러한 억압과 배제의 특성을 지닌 배타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남한 사회가 탈북자들을 배척하는 양태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지니는 직업으로 살필 수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갖은 위협을 무릅쓰고 남한에 도착한 탈북자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란 식당 종업원, 행상(行商), 일용직 등 단순노동직에 불과하다. 안정된 일자리와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직업들은 주로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직종들로써 3D 업종 이외에는 일자리를 내주지 않는 자국민들의 차별적 인식의 결과물로, 다시 말해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편입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배제의 현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구직 활동이 제한적인 것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에서의 경력을 문서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251] 체제 내 국민이 되기를 포기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었던 과정을 거쳐 남한에 왔을 때, 체제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이른바 실질적인 이유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서의 경력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억압과 배제의 결과라 할 수 있다.[252] 남한 땅에 도달할 때 품었던 희망은 좌절되고

---

249) 박상기, 위의 글, 2000, p.561.

250) Nussbaum, M., *Hiding from Humanity*,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p.201.

251)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면 생존의 위협이 커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가는 등의 이유로 여러 증빙서류를 버린 채로 몸 하나 겨우 건사하기 바쁜 삶을 살아왔다. 탈북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버린 탈북자에겐 자신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상의 서류가 없다. 이를테면 <왼손잡이 미스터 리>에서 북한에서 의사였던 리우리는 민원을 요청한 국회·통일부·보건복지부에서 "증빙서류만 가져오(110)"라는 간단한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가위장수 혹은 도배 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로기완을 만났다>의 로 역시 탈북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버린 이유로 난민의 지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252)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중 북한에서 노동자나 무직이었던 사람이 24,000명을 상회한다는 점(통일부, 앞의 자료 참조)을 고려하면서도, 이영미(2014)와 최병우(2016b)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들의 '비전문성'과 '저학력'은 남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보다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이영미, 위의 글, 2014, p.77; 최병

배타적 관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대졸 학력은 한국에서 먹히지 않았다. 학생들이 신뢰하지 않고 사회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공부한 전공을 한국 사회에서 살리기 얼마나 힘든지 선화는 잘 안다. 북한에서 대학교수를 하던 사람이 재활용 센터에서 물건을 나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결국 그 사람도 지금 탈북자들이 조직한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한국 사회에 이식된 북한 사람들이 발을 들이밀기에는 이 사회의 장벽이 너무도 굳고 높다. 적재적소에 들어가기는 더욱 힘들다. 그래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새롭게 공부를 해서 새 길을 개척한다."

(청춘연가, 216-217)

이에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할 남한 사회에 기대를 품었던 탈북자들은 단순 노동자로 살아가곤 하는데, 이 마저도 말투가 이상해서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준다고 잘리는가 하면 탈북자 신분을 속이고 조선족 행세를 하며 식당 종업원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적잖이 드러난다.[253] <세번째 집>에서는 탈북자 성옥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식당 서빙을 하는 성옥이 탈북자임을 눈치 챈 한 변호사는 성옥에게 대뜸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등 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국가의 사생활>에서는 통일 이후에도 이남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을 '게으르고 경쟁력 없는 인간'으로 모욕하며 채용하지 않는다.[254] 북한을 국민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255] 국가 간 위

우, 2016b, pp.347-349.)

253) "탈북관련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탈북자의 40% 이상이 취업조차 못했고, 취업 탈북자들도 인사차별과 문화적 이질성 등을 이유로 절반이 넘는 사람이 평균 세 번 이상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평·장임숙, 위의 글, 2008, p.253.)

254) 이에 대응하여 이북 사람들은 이남 사람들이 '거만하고 인색하다'며 비난한다. 이는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인 간에 오래도록 남았던 명칭을 연상케 한다. 옛 서독 사람들은 동독 출신을 '가난하고 게으르다'는 의미를 담아 '오씨(Ossi)'로, 옛 동독 사람들은 서독 출신을 '거만하고 역겹다'는 의미를 담아 '베씨(Wessi)'라고 멸칭하곤 하였다. ("獨통일 25년… "오씨-베씨 사라진다"", 문화일보, 2015.10.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201071521301001)

255)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받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불법적으로 설립된 괴뢰단체에 불과한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괴뢰집단의 압제를 받는 미수복 영토에 거주중인 대한민

계질서를 그곳의 주민들에게도 여과없이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립이 지속될 때 남북한 주민들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 다른 배타적 양상은 남한 주민과 탈북자의 결혼 성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남녀 관계라는 사적(私的)인 영역조차 무의식적으로 사회의 담론을 답습하며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청춘연가>의 선화가 취재차 탈북 남성과 남한 여성의 결혼식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와 <세번째 집>[256]의 남한 남성 인호가 서로에게 깊은 마음을 느끼는 탈북 여성 성옥과 결혼하고자 함에도 어머니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며느리 집안이 무슨 옛날 양반 마을이라든가 하는 안동 하회라는 고장에서 사는데, 아유 결혼하는 데 맘고생 꽤나 했시오."*

그 여인이 선화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우리 아들이 탈북자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디요. 나중에는 차라리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을 데리고 오면 승인할망정 탈북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까지 해서 정말 상처 많이 받았시오. 울기도 많이 울었디요." (…)

"우린 포기했는데 저 색시가 우리 아들 아니면 죽갔다고 소란을 피웠디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성사되기는 했는데 살면서 우리 아들 무시라도 당할까 봐 은근히 걱정이 없디 않디요." (청춘연가, 239)

㉡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성옥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성옥의 말을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일상에서 듣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런데 문득 인호가 북한 여자 어쩌고 하던 것이 떠올랐다.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다. 눈매가 팽팽해 보였다.

"북한이라고, 그랬어요?" (세번째 집, 229)

<청춘연가>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 어머니와 탈북하여 중학교부터 남

국 국민으로 여겨지곤 한다.

256) 이경자의 <세번째 집>은 탈북 여성과 관계를 쌓아가는 남한 남성 인호를 통해 타자와 함께하는 삶을 거대한 이념이 아닌 상호 간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에서 자라온 탈북 남성이 명문대를 나오고 준수한 외모임에도 신부 집안의 반대로 많은 역경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한편, <세번째 집>의 경우 첫 인상에서 호감을 느끼던 것도 잠시, 인호 어머니는 성옥이 탈북자임을 고백하는 순간 아들에게도 비난을 퍼부으며 탈북자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를 볼 수 있다. 전자에서 살핀 신부 집안의 반대는 명망 깊은 집안이라는 전근대적 사고가 이어져 부계가족의 원리, 가부장적 혈통주의 등의 근대적 논리를 집적해온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후자의 인호 어머니는 일찍이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워오면서도 부를 축적한 신여성의 면모를 띠고 있음에도 며느리를 맞는 태도에서는 전자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남한 사회 전반에 걸친 차별적 인식과 그에 따른 배타적 태도라 할 수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두 사례 모두 탈북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에 외국인을 들먹인다는 것이다. 전자의 신부 가족들은 '차라리 외국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한편, 후자의 인호 어머니는 동남아 여자도 배제하곤 하는데,[257] 이미 선별적으로 이웃을 설정하고 있는 평범한 남한인들의 모습을 담지하고 있다.[258] 특히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기껏' 탈북자라는 사실에 분노한 인호의 어머니는 자신의 편견 속 탈북자 이미지를 확장시키며 이후 성옥과 관계를 맺기는커녕 아들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배타적인 담론의 축적으로 인해 남한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된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인호 어머니의 분리적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낯설고 신기한 이방인으로서는 적당한 호기심을 가지지만, 이러한 이방인이 가까운 사이인 친구, 이웃 심지어 가족이 된다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진 남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과정은 탈북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좋지 못한 만남이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낯선 타자를 비국민·비인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일면 혐오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혐오는 주체가 잊고 싶은 자신의 측면을 환기시키는 대상을 타자화하는 감정적 동력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

---

257) "동남아 여자랑 살아라!(200)", "난 동남아 며느리는 못 본다.(217)"

258) 탈북자를 동네 이웃, 직장 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상대로 관계 맺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인식 조사를 살폈을 때, 동네 이웃 및 직장 동료의 경우 2.7, 사업 동업자의 경우 3.24, 결혼 상대의 경우 3.54와 같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1점(전혀 꺼리지 않음)부터 5점(매우 꺼림)까지의 5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사이까지는 괜찮지만 결혼 등 친밀한 관계에는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동준 외, 위의 글, 2019, pp.168-169.)

다.[259] 겉으로는 통일을 외치고 동포애를 강조하며 언제라도 환대할 듯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일 때 탈북자를 무시하고 경계하며 자신의 불관용적인 측면을 자극한 타자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260] 혐오가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해 부정적인 속성을 대상에 부여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명백히 하곤 했음을 고려할 때,[261] 남한 사회는 탈북자들이 자유주의 남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의 부유함을 좇아 입국했다고 상정하며[262] 이에 기반하여 탈북자를 열등한 집단으로 서열을 공고히 한 채 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탈북자를 향한 억압과 배제로 인해,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청춘연가>의 탈북 여성 강화영은 약혼을 가장한 사기꾼 남한 남성으로부터 탈북자 정착 자금을 잃게 된다. 남한 사회에 연고(緣故)도 지식도 없는 탈북자를 이용하여 쉽게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기꾼의 행태는 남한인이 점유하고 있는 우위성으로 탈북자를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번째 집>의 남한 남성들이 사회 부적응자로 방탕하게 살아가면서도 탈북자 아내에게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탈북자들의 실패한 결혼 생활은 흔하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를 맞닥뜨리고 적응하기에도 버거운 탈북자들에게 호감을 가장한 사기는 결국 그들이 남한 주민보다 아래임을 전제한 배타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탈북자 소설에 잦게 드러나는 중국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며 성 착취

---

259) 김은하,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p.295.

260) 김인경(2014)은 이러한 맥락에서 외부적 요인인 타자가 결국 '우리'의 모습임을 역설하며, 이러한 관계를 타자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의미망 속에서 타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김인경, 위의 글, 2014, pp.279-280.)

261) 역사적으로 여성, 유대인, 불가촉천민, 동성애자 등이 '오물'로 더렵혀진 존재로 상정되어 배척당하곤 했다.(Nussbaum, 앞의 책, 2015, p.201.)

262) 이를테면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남한을 동경해서 탈북한 것이라 여기며 이로부터 남한중심주의 및 우월성의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처음부터 남한 사회를 꿈꾸며 탈북한 것은 아니다. 지속되는 굶주림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인 도강(渡江)이 걷잡을 수 없는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여러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바다. 실제로 탈북자들은 굶주림만 아니었다면 탈북하지 않았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탈북 이후에도 중국에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남한에 온 경우가 적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김종군·정진아 편,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이순형·조수철·김창대·진미정, 『탈북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381.)

되는 탈북 여성에 대한 상황과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263] 이를테면 <청춘연가>에서 중국 농촌으로 팔려간 선화는 남편으로부터 '북조선 거지 년'이라는 말을 줄곧 들어야 했으며, 선화의 남편은 비싼 몸값을 주고 사왔다는 것이 아쉬워 형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선화를 성적으로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 남성들은 "북한은 거지 나라이고 북한 사람들은 비렁뱅이라는 인식(127)"과 더불어 "똑똑하고 잘난 자기가 북조선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여기(54)"는 등 탈북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재산의 일부로 여기는 분리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으로 빠져나간 조선족 여성의 빈자리를 탈북 여성들이 대신하면서 조선족 농촌 사회로 팔려가는 탈북 여성들이 상당한 가운데[264] 탈북 여성들의 취약한 신분을 악용하는 중국 남성들의 횡포에 주목하곤 했다. 그러나 이는 남한 주민들이 탈북자들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 여성들이 겪는 고난과 수모의 가해자는 익히 중국 남성들로 표상되지만 그러한 가해의 근본적인 기제는 특정 민족의 횡포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폭력성은 비단 중국 남성들을 특정하기보다 근대 국민국가가 타자를 착취하는 것을 위시한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가 그러하듯 흔히 중국 남성들의 횡포에 중국이라는 국가를 부각함으로써 남한의 실태와 연결짓지 못하곤 하지만, 남한에 도달한 탈북 여성들이 끝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은 소설 속 중국 남성들의 성 착취, 오리엔탈리즘적 편

263) 탈북자 소설에는 중국을 거쳐 탈북 과정을 거치는 현실 속에서 탈북 여성들의 갖은 고난과 수모가 핍진하게 묘사되곤 한다. 인신매매로 조선족 남편과 결혼하게 된 <청춘연가>의 선화는 남편의 감시 아래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고, <찔레꽃>의 미향은 남편뿐만 아닌 시아버지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 급기야 미치광이가 되어버린다. <큰돈과 콘돔>에는 탈북 일행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을 묘사한다.

264) 중국의 개혁개방과 1992년 한·중 수교, 1994년부터 불기 시작한 '한국 바람'으로 조선족이 한국사회에 편입되었다. (이미림, 「조선족 이주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위의 책, 2014, p.261.) 그리고 탈북 여성들은 북한-중국-남한으로 이어지는 초국가적 네트워크 속에서 강제적으로 이동된다. 남한으로 이주한 조선족 여성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중국 농촌 사회는 신분적으로 취약한 북한 여성들을 요구하게 되며, 한족-조선족-탈북 여성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영향 아래 거대한 연쇄적 흐름 속에서 신분적·젠더적으로 이중적인 약자인 탈북 여성은 성 노리개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조선족 여성의 한국 이주 시기와 고난의 행군으로 탈북자들이 급증한 시기는 맞물린다.

견으로 발현된 억압과 배제의 연장선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등지와 같은 제3국에서와 다름없이 남한에서의 탈북 여성은 여전히 병폐화된 타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2) 우열성에 따른 시혜적 연대

타자와의 관계에서 근대성은 자아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근대성의 상대화라는 것은 결국 자아 중심에서 점차 타자 지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 항의 관계 양상은 자아가 일면 타자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관계 양상과 차별화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시혜적 태도는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두 주체 간의 만남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상호 주체로서의 만남이 아닌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는 점에서 분명 문제적이다. 타자는 어디까지나 주체의 대상이라는 이러한 위계적 관계에서 그들은 동등하지 않으며, 이는 대화적 관계가 아닌 독백적 관계에 머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아는 자신을 탈중심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일자로 남아있게 되며, 만남이 곧 대화적 관계를 추구할 때 자아중심적 주체와 대상으로서 타자는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시혜적 연대를 결국 자아중심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타자를 책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고착된 관계로 보고자 한다. 이에 여기서는 우열성에 기반하여 탈북자에게 과도한 관심을 표하거나 필요에 의해 조건적으로 연대하는 남한 주민의 모습을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흔히 범하곤 하는 시혜적 태도로서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청소년 탈북자 태우를 향한 담임 선생님의 배려와 <청춘연가>의 탈북자 선화와 그녀를 대하는 학원 수강생들의 모습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태우가 학교를 6개월 만에 그만둔 건 친구들의 놀림도 학업을 못 따라가서도 아닌 선생님의 '특별대우' 때문이었음을 명시한다. 문제를 풀면서 쉼 없이 질문하던 그를 '저능아' 취급하던 선생님은 뒤늦게 선교사를 통해 태우가 탈북자임을 알게 되자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되었고 과한 배려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른 대우는 '평범한' 그를 움츠러들게 했던 것이다.[265] 후자의 선화

또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던 학원생들과 우연한 회식 자리에서 그러한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선화가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를 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으나, 사적인 얘기가 오가는 회식 자리에서 고향을 밝히게 되자 학원생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선화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음식을 하나 더 내밀게 되는데, 이는 '굶주린 곳'에서 온 선화에 대한 배려이자 선의였으나 이러한 특별대우가 불편하고 거북스러웠던 선화는 앞서 살핀 태우처럼 다음 날부터 학원에 가기가 힘들어졌음을 술회한다.

"내는 '어떻게 왔냐?'는 말이 제일 무서워. 남들은 날 진심으로 걱정해서 해 주는 말일지 모르지만 내한테는 고향과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어째 발걸음이 떨어졌냐는 말로 들려서 기분 없어. 여기서 내는 탈북자고 이등인이지, 한국인 아니야. 처음에는 외국인 대하듯 호기심 갖다가 나중에는 밥그릇 빼앗긴다고 욕한다니까." *(왼손잡이 미스터 리, 111)*

남한 사람들의 배려가 설령 태우와 선화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일 수도 있으나 탈북자들은 인용문과 같이 부담감을 느끼곤 한다. 이때 탈북자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남한 인물들의 행동은 진정 타자를 향하기보다 남한 주민 자신을 향한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우월성에 입각한 문화적 우월성의 표현이자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탈북자를 제멋대로 재단하는 일종의 과잉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아가 모방하는 것은 자아가 지향하는 이상향, 곧 '자신의 환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되 자신의 사회적 등수를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간주하며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협소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월 의식을 무의식 중에 답습함으로써 탈북자를 열등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남은 <수치>에서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고 외로운 남한 생활에서 움크렸던 강주가 남한의 학급 친구 치수와 관계 맺는 방식과 대비된다. 아버지조차 편안함을 주지 못했던 상처 받은 여린 강주의 마음을 연 것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266] 다가온 치수였다. 치수는 남한 사회의 타자

265) 그가 숙제를 안 해 갈 때마다 "괜찮겠니?" 하면서 일일이 물어본 것이다. 결국 태우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선생님의 특별대우가 싫었어."(211)

로 호명된 탈북자가 아닌 온전한 개인으로써 강주를 대했고, 강주에게 치수는 조울증이라는 병을 앓는 학급 친구가 아니라 지나친 '배려'를 거두고 자신에게 가장 편하게 다가와준 친구였던 것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아중심적 배려가 아닌 동등한 주체로 다가갈 때 비로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바다. 반면 태우의 선생님과 선화 학원의 수강생들의 태도는 타자가 아닌 자아로 회귀하기에 탈북자들에게 손길을 건네면서도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남한 인물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동시에 탈북자를 협소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식 틀 안에 가두어 시혜적 베풂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267]

위의 사례들이 탈북자를 향한 과도한 배려로 발생한 문제였다면,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모두 무의식적으로 우월적 태도를 답습하며 타자지향과 거리를 둔 자아중심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맥락에서 살필 수 있는 바다. 이를테면 <세번째 집>의 소설가 최아림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만 주목하여 탈북자를 바라보되 이에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탈북자 관련 소설을 쓰고픈 욕망을 간직해왔던 그는 탈북자를 연구하며 성옥과 친분이 있던 정윤희의 소개로 성옥을 만난다. 정윤희로부터 성옥을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를테면 "자존심 건드리는 말 삼갈 것, 호기심이 나더라도 참을 것, 흥미를 보이지 말 것, 무엇보다 그들도 우리와 같다는 느낌을 줄 것(112)"을 잊고 '미지의 그곳'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에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다.[268]

그런 성옥을 또다시 만난 최아림은 자신의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

266) 학급 친구들이 강주 앞에서는 북한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하는 '배려'를 보였던 것과 달리, 치수는 그 암묵적 규약을 깨뜨리며 오히려 "야! 너 북한에서 왔다며?(70)"하고 말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 그럼에도 어찌된 일인지 강주와 치수는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267) 탈북자들을 향한 남한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민족적 시혜의식이나 동족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피는 바는 다음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 정체성과 자본주의 생태의 비극성」, 박덕규·이성희 편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pp.152~153.)

268) 이를테면 최아림은 북한에서도 연애를 하냐는 물음에 대한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인걸요(114)"라는 성옥의 대답에, "나는 무식한가봐! 북한에선 연애도 못하는 줄 알았어. 당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줄 알았어. 자유연애라니!(114)"하며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내뱉는다. 성옥은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외딴 섬' 같다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

탈북자와 관련된 소설 창작에 굶주린 갈망을 표한 최아림은 자신이 탈북자와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부지런히 습득했는지 늘어놓는다. 그러나 성옥을 향한 배려 없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 그토록 많은 정보가 탈북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로 이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인터뷰 상황에 마주한 탈북자들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꺼내보여야 한다. 금전적인 대가(代價)면 충분하다는 것 마냥 안일하게 생각함은 분명 남한 주민과 탈북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있지 않음을 전제한다. 탈북자들은 인터뷰 하는 그 시간 외에도 인터뷰를 위해 끄집어내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주하고 이로 인한 심란한 마음을 또다시 추슬러야 하며, 이는 오로지 탈북자 개인의 몫이다.[269]

"죄송하지만 전 특별하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굶어 죽었느냐? 진짜 사람 고기도 먹느냐? 솔직히 이런 질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굶긴 했지만 회상하기 싫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려요.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 탈북자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탈북자들도 그곳에서 신분이 다 다르고 역경도 달랐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세번째 집, 154)

그런 최아림을 마주하며 성옥은 인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무리한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다. 인호는 성옥에게 캐묻기보다 건축 설계사로서 자신이 맡은 수복지구 기념관 설계와 관련된 연원을 찾으며 자연스레 성옥이 그 연원의 어디쯤에 걸쳐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최아림의 모습은 낯설고 새로우며 흔치 않은 탈북자를 마주하게 될 때 남한 주민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태도라 할 수 있으나, 인호의 태도와 비교하여 더욱 부각되는 그녀의 태도는 탈북자와 함께 살아가는 남한 주민들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69) '성옥은 정윤희와 면담을 하고 백만원을 받았다. 인터뷰 요청이 탐탁지 않을 때 성옥을 움직인 건 돈이었다. 그 돈은 유용하게 쓰였다.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야 할 즈음이었다. 그러나 그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은 돌아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다. 마치 자신의 삶을 팔아버린 아주 고약한 기분이었다. 인터뷰를 하고 돌아올 때면 소주를 사들고 집에 와서 혼자 마셨다. 쓴 것으로 입과 내장을 소독하고 샤워를 하며 기분을 바꿔보려 애썼다. 그렇다고 과거를 판 느낌이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110)'

한편 남한 주민들은 탈북자의 타자성을 이해타산의 맥락에 놓기도 한다. 낯선 존재가 지닌 타자성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이에 주목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일종의 기대감이 투영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필요에 의한 이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섹시일보' 기자 이준은 윤리의식, 직업의식, 책임의식도 잊고 관성적으로 살아가던 인물이다. 그는 네티즌들에게, 상사에게 비난을 받고 비참한 처지를 쇄신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던 와중 탈북자 관련 살인 사건의 제보를 접한다. 취재를 해가며 점차 잃어버렸던 정의감을 회복하지만, 누명 쓴 리우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집요하게 묻거나 조선족 신분으로 위장한 탈북자 강영묘에게 위협적으로 진실을 추궁하는 모습은 여전히 자신의 논리대로 타자를 대하고자 하는 근대적 자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문제적인 것은 해당 소설에서 탈북자들의 탈북 루트를 특종 기사거리로 다루는 여타 남한 기자들의 행태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방송국 간의 과잉 탈북자 보도 경쟁으로 선의의 인권 단체들이 물밑에서 개발한 중요한 루트들마저(310)"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방송사의 특종 경쟁에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에게는 핏줄 같은 루트를 카메라는 멍청한 눈으로 인정사정없이 찍"으며, "아예 지도에 빨간 줄로 대놓고 보여줌(309)"으로써 무고한 탈북자의 생명이 희생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특정 사항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대중 매체의 특성상 점차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관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를 기획하고 편집해내는 주체, 즉 남한의 관점만으로 변용된 것이다.

이들은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탈북자들의 고난과 수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취재의 당위성과 의의를 부여하지만, 정작 취재진들은 탈북 루트의 공개적 노출로 인해 탈북자들이 겪어야 할 또다른 공포, 심지어 생존의 위협을 겪을 탈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실상 탈북자들의 입장에는 무관심한 채, 자아의 확장 및 확보의 수단으로서 탈북자와 선택적으로 연대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관심을 통해 탈북자들의 안위(安危)가 공론화될 수도 있지만, 구축해둔 탈북 루트가 막힘으로써 오히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공감적 이해가 결여된 상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앞선 탈북자의 서발턴화(化)와 같이, 기득권을 지닌 거대한 주체로 인해 탈북자들의 입장은 고려되

지 않은 채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고착화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혜적 연대에서는 남한인들이 탈북자를 연민과 관용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이는 미지의 타자 앞에 나를 내어 놓는 전면적 만남[270]이거나 타자의 얼굴을 마주보는 전인격적 존중[271]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을 지우면서 낯섦을 동질화하여 자아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혜자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곳, 곧 자아가 확장되는 곳에서 도움은 이루어지지만, 정작 타자성이 부각된 탈북자 본연의 목소리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시혜적 연대는 곧 조건적 환대를 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배타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탈북자들과 남한인을 뚜렷하게 분리함으로써 남한인이 탈북자들과 결코 동일시하지 않다는 우열성에 기반한 것, 다시 말해 이러한 남한인들의 탈북자와의 관계 맺기 양상은 결국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서 남한인을 상정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72] 탈북자 소설은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태도가 탈북자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남한 사회에서 타자로서의 삶을 추동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상호주체성에 입각한 연대

남북한 주민이 상호 주체로서 만나는 과정은 배타적 관계도, 우열성에 기반한 시혜적 연대도 아닌 상호 주체의 새로운 관계 맺기라 할 수 있다. 진정한 '너'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기에 그 어떤 억압적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보편타당한 원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시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탈중심화된 주체로 받아들이는 것, 자아 또한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 타자를 동일자의 시선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닌 타자의 시각에서 동일자의 시선을 반성하는 것,[273] 이들이 전제될 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

270) Derrida, J., 앞의 책, 2004 참조.
271) Levinas, E., 앞의 책, 2014 참조.
272) Paul, H. R., *Theory of Literature,* 정영목 옮김, 『문학이론』, 문학동네, 2019, p.549.
273) 문성훈, 앞의 글, 2011, pp.411-414 참조.

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질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 그리고 탈중심화를 통한 상호 상승작용의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왼손잡이 미스터 리>에서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던 남한의 청소년들이 '미아장'[274] 투숙객이자 탈북자 리우리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이에 기꺼이 화답하는 리우리와 연대를 형성해가는 모습을 그려낸다. 우선 남한의 고등학생 미로는 엄마의 방 정리 사건[275] 때부터 리우리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로의 어지러운 방에 불편함을 느낀 엄마 은유는 멋대로 방을 치웠고, 리우리는 그 안에도 질서가 있다는 미로의 마음을 은유에게 대신 전한다. 게임에만 빠져 사는 미로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은유는 자신의 질서를 강요했으나, 정작 미로가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에 대해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가족에게서 소외된 것, 무엇보다 자신의 질서를 완고하게 주장하는 엄마로부터 포용을 받지 못하는 예민한 감수성의 청소년인 미로는 점점 외로움에 빠져들고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줬던 리우리가 미아장을 떠난 날 그를 떠올리며 꿈속에서 만난다.

현실에서의 교류는 비록 소략했지만 그 만남을 바탕으로 한 그들은 미로의 꿈속에서 각각 miro89와 Mrlee가 되어[276] 각자의 외로움을 터놓으며 공감적 이해를 형성한다. 리우리는 개명을 했음에도 남한 사회의 '우리'가 될 수 없는 아픔을 지녔고, 미로는 이국적인 외모와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남한 사회의 소수자이자 각자의 자아중심성이 강한 가족에게서도 외면받곤 한다.[277]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낯선 그곳에서 미로와 리우리는 상대가 '누

---

274) 미로네 가족은 이태원에서 '미아장'이라는 호텔업을 운영한다. 이에 대해서는 3절 시공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275) 왼손잡이인 미로는 반시계 방향으로 물건들을 배치해 놓았으나 오른손잡이인 은유는 무질서로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을 모두 시계 방향으로 정렬해버린다.

276) 이러한 미로와 리우리의 관계가 가상세계, 즉 롤플레잉 게임의 장(場)에서 구현되고 있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롤플레잉 게임은 게임 담화 속에서 게임 이용자(user)들이 '아바타'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역할 놀이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뼈대가 되는 스토리 구조를 바탕으로 하지만 이용자들이 임의로 사건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스스로 구축해나가는 세계라 할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할 때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미로와 리우리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다.(Abbott, P.,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pp.78-79 참조.)

277) 김인경(2014)에서도 이들의 소통이 가능했던 이유를 소수자로서 겪는 차별적 시선을 공유했기 때문이라 본다는 점에서 이 글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김인경, 위의 글, 2014, p.282.) 이들은 획일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위계적 가치체계 속에서 다양한 배제와 차별을 경험했던 것이다.

구'인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마음을 열고 그저 상대의 아픔과 고민과 외로움을 들으며 기꺼이 자신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타인'일 뿐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희롱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미로에게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살아!(136)"라고 조언해주는 리우리는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에 공감하며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미로에게 건네며 위로를 건네는 행위로부터도 힘을 얻곤 한다. 고향이 어디인지 나이가 어떠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들 서로가 각자가 속한 집단에 의거하여 미리 판단하지 않고 '지금-여기'의 '너'에게 충실했기 때문이다.

자식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할아버지보다, 낯선 타자인 리우리에게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미로의 여동생 미아에게서도 다르지 않다. 은유의 질서 세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브루마블'을 하던 미아는 은유가 나타났을 땐 급히 숨겼음에도, 리우리 앞에서는 즐겁게 놀이하는 편안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그리고 미아가 매일 장갑을 끼고 있는 리우리에게 관심을 보인 것처럼 리우리 역시 미아에게 따스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인다.[278] 그 누구도 물어봐주지 않았던 미아의 옷차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리우리에게 미아는 "이태원은 이타인투성이니까" 외국인처럼 자유롭게 하라고 일러준다. 가족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던 미로와 미아를 환대해준 리우리에게 미로와 미아 또한 환대로 화답한다.[279]

㉠ 내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 누군가 딱 10분만 날 안아 주는 거야. 내 심장에서 다른 사람 심장으로 혈액이 통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아주 따듯하고 강하고 부드럽게 누군가 날 안아 주길 바랐어. 악수보다 포옹이 훨씬 좋아. 악수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를 다지지만 포옹은 방향이 없지. 내가 상대를 안는 순간 앞은 뒤가 되고 뒤는 앞이 되거든. 지금 내 소원이 이뤄진 기분이야. *(왼손잡이 미스터 리, 139)*

278) "장갑 좀 벗어 보세요." "왜?" "손이 예쁠 것 같아요." (…)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왼손으로 밥 먹으면 손을 때렸어요." "왜 그러셨을까?" (…) "넌 참 이상한 애구나. 모자는 왜 그렇게 매일 쓰고 다녀?" 그는 손가락으로 미아가 매일 쓰고 다니는 파란 플라스틱 헬멧을 가리켰다. "팔자려니 해요." "허참! 소가 웃다가 꾸레미 터질 일이네."

279) 환대의 윤리는 타자를 "그 자체로서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타자 중심의 윤리적 지향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39, 한국현상학회, 2008, p.177.)

㉡ 우리는 오른손의 의수를 왼손으로 비비며 다시 장갑을 끼려 했다. 미아가 우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던 의수를 빼 버렸다. 끝이 뭉툭하게 잘린 손, 이라기보다 팔 끝이 나타났다. 미아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뭉툭한 손을 감싸며 물었다. "온기가 느껴져요?" 우리는 미아의 손을 꽉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이거 악수예요." 미아가 웃으며 오른손을 흔들었다. *(왼손잡이 미스터 리, 271)*

남한에서 따스한 환대를 받고 싶어 슈퍼에 갈 때면 큰돈을 준비해 가 거스름돈을 주고받을 때의 작은 온기라도 느끼곤 했다던 리우리는 미로와의 만남(㉠)에서 비로소 남한 주민의 따스한 시선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미아가 의수까지 빼 버리고 뭉툭하게 잘린 팔 끝을 따스하게 만져주었을 때(㉡) 비로소 그토록 바랐던 온기를 받는다. 탈북 과정에서 잘린 오른손을 대신하여 의수에 장갑까지 끼고 있던 것은 남한 사회를 향한 리우리의 닫힌 마음이었으나, 장갑을 벗을 용기를 전한 미로와 그 왼손을 직접 잡아준 미아를 통해 리우리는 이름뿐만이 아닌 남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상처를 바탕으로 시작된 공감적 연대가 각자의 이질성을 포용하며 서로를 이해받고 있다는 교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리우리와 미로 그리고 리우리와 미아의 관계는 결국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연민이나 동정과 같은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상호 주체로서 타인의 입장이 되어 타인의 경험을 상상하며 발현되는 일련의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80] 주체와 대상의 관계는 일면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만남을 형성하기 힘들지만, 상호 주체로서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환대한다는 점에서 보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첫 만남에선 갈등을 빚던 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상호주체의 환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담은 만남도 살필 수 있다. <청춘연가>와 <세번째 집>에서는 낯선 타자와 관계 맺는 방법에 더뎌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드러난다. 우선 <청춘연가>에서 선화가 일하는 탈북자 라디오 방송국의 유일한 남한인인 이동화는 방송국 대표가 공을 들여 데려온 유능한 PD였으나, 일처

280) 신경숙, 「공감, 보기, 그리고 감정노동-『프랑켄스타인』의 아담 스미스 다시 읽기」, 『영어영문학』 58(2),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p.191.

리가 더딘 탈북자 동료들을 은근한 무시와 업신여김의 태도로 대하곤 했다. 그는 능력 있는 자신이 늘 우위에 있고 지시를 내려야 하며 탈북자는 이를 곧이곧대로 따라야 한다는 권위적 역할을 행사했으며, 이는 특히 북한 여장부 출신의 강골 기질인 박애란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박애란은 수많은 군대를 지휘하던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예우(禮遇)를 바랐기 때문이다. <세번째 집>의 탈북자 명숙과 남한 주민 정숙이라는 이산가족의 만남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 놓인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했던 이들의 부모는 한국전쟁 중 급한 상황에서 홍역을 앓던 세 살짜리 정숙을 두고 월북[281]하고 북한에서 명숙을 낳아 길렀다. 명숙은 통일이 되면 언니 정숙을 꼭 만나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탈북 이후 정숙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였으나, 정숙은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명숙에게 투영하며 만나기를 거부한다. 우여곡절 끝에 정숙을 처음 만나게 된 명숙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온 정숙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입장에서 북한에서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랑한다. 정숙은 내색하지는 않되 처음 보는 동생과의 만남을 고대했으나, 명숙의 위와 같은 말에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자신의 관점만 고집했음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청춘연가>의 이동화는 방송국 대표와 선화를 통해 마음에 상흔을 간직한 탈북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게 된다. 박애란이 걸어온 삶을 이해한 이동화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변화시켰으며, 이에 박애란 또한 화답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 집>의 명숙 또한 자신을 버린 부모와 질병으로 일찍 떠나버린 남편, 그리고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로 쇠약해져 죽은 아들로 평생이 외로웠던 정숙의 입장에서 다가간다. 명숙은 정숙의 세상에 대한 분노를 달래며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었고, 이에 화답한 정숙 또한 남한에 위악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명숙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남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도 부모라는 매개를 통해서였으나, 점차 명숙과 정숙이 주체가 되어 만남이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타자로

281) 이들의 부모는 강원도 동해안의 간성, 이른바 해방이 되었을 땐 삼팔선 북쪽이었으나 휴전 후에는 남한이 된 곳에서 살며 살았다.

부터 들어온 정보로 구축된 대상이 아닌 상호 주체로서 만남을 통해 연대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동화와 박애란, 명숙과 정숙의 관계 형성에서 보듯 서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인정은 포용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갈등을 겪던 사이에도 화해가 자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가 살아온 삶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태도는 남북한 주민들이 겪을 숱한 갈등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의 탈중심화를 통해 탈북자와 상호 상승작용을 맺는 만남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로기완을 만났다>의 만남 양상을 살필 수 있다.[282] 이 작품은 이니셜에 불과했던 L을 고유한 인격체인 '로'로 만나게 되는 '나'의 여정을 그린다. 3년 전 로기완이 밟았던 삶의 자취를 한 달 여간의 여정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나'가 로기완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묘사하며[283] 그 과정에서 로기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편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인정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나'와 로기완의 실제 만남은 아주 소략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이를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에 비추어볼 때,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284]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박의 아파트에서 잼을 바른 식빵 두 개를 위생비닐에 담아오긴 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 변기에 앉아 먹지도 버리지도 못한 식빵을 한참동안 내려다보다가 어느 순간 식빵 끝에 입술을 댄다. 식빵을 한입 물어 씹기도 전에 헛구역질이 치민다. 어쩔 수 없이 식빵 하나를 한꺼번에 입안으로 구겨넣는다. 몇 번 씹자마자 나는 돌아앉아 변기 뚜껑을 열고는 그 안에 얼굴을 들이민 채 입안의 것을 몽땅 토해내고 만다. 누군가의 참담하고도 구체적인 경험까지는 끝내 공유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나의 가

282) 김영미(2017)에서도 익히 탈북자 소설에서 탈북자를 향한 남한 주민의 시혜적 관계가 전제된 만남 양태가 부각되었던 반면, 이 작품 속의 남한 주민 '나'는 탈북자 '로'로부터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양 주체로서의 만남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김영미, 위의 글, 2017, p.22.)

283) 류찬열(2015)은 이처럼 로기완의 탈북 경위 구조와 '나'의 여로형 구조가 만나는 서사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단순한 연민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연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로 평한다.(류찬열,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시공간의 확장과 깊이」,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 p.59.)

284) "가만히 김작가를 보니 기완이를 만나는 것 자체보다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소.(172)"

없은 자아이다. *(로기완을 만났다, 104)*

'나'는 브뤼셀에서 로의 자취를 밟으며 이방인으로서 삶을 체화해가지만, 공중화장실에서 딱딱한 빵을 입속으로 밀어넣는 것에 구역질을 느끼며 차마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로의 일기장에 적힌 행적을 따라감으로써 로기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왔다고 여겼으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없이 간사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자신이 타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우위의 위치에 놓인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자신의 모습이 자아중심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반성한다. '나'는 고정된 관계 내에서 자신과 로기완을 위치 짓지 않고 그 관계의 상호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나'와 로기완의 만남은 비단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한 데 모인 복합적이고 다성적인 주체들의 만남으로 나아간다.[285] 한 개인 안에 깃든 여러 인물들의 삶과 이들의 삶을 마주한 인물이 또다른 역사를 지닌 인물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단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지 않도록 기꺼이 균열을 내는 혼종성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이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286]

이처럼 '나'는 로기완의 행적을 따라가며,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287] 결국 타자의 타자성을 자아의 동질성으로 모두 포섭시키는 것임을 인지하고 성장해간다. 자신이 베풀었던 선의로 인해 더 큰 고통을

285) 한때 '나'는 환자의 안락사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박'에게, 그 환자가 '박'의 아내였음을 눈치채고서도 몰아붙이곤 했다. 그러나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로의 죄책감과 아내의 죽음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박의 죄책감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나'는 이니셜 'L'에 불과하던 이를 로기완으로 받아들였듯, '박'으로 불리던 이를 '박윤철'로 포용하게 된다. '박'과의 연대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로'처럼 '로'와의 연대를 통해 삶에 용기를 얻게 된 '나'는 '박'의 죄책감을 위로해주면서, '박'과 '로', '로'와 '나', '나'와 '박'이 연쇄적이고 순환적인 연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286) 김영미(2017)는 이처럼 각각 분리된 것 같은 개인 간의 관계가 상호 영향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명하며 발전되는 양상은 개인적 공감이 연대를 통해 집단적 또는 정치적 공감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였다.(김영미, 위의 글, 2017, p.27.)

287) 수전 손택(Susan Sontag)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 불가능성을 지적했다시피, 남한 사람인 '나'가 탈북자 로기완의 고통 그 자체를 체감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Sontag, S.,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겪게 된 어린 소녀이자 투병 환자인 윤주[288]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다 결국 도피해버린 '나'는 자신이 타인의 고통을 모두 치유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다시금 윤주에게 다가가게 된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타인의 아픔을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며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강한 자아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타인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로기완과의 만남 준비를 통해 변화하여 윤주와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윤주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나'는 마침내 로기완을 자신이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상대[289]로 표용하게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로기완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과정에서 윤주를 향한 자신의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을 마주하려는 것은 로기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이상적인 관계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나'가 로기완을 만나기까지 체화한 경험들은 각자 다른 존재로서 두 인간이 온전히 서로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이질적인 체제와 문화가 오래도록 체화된 남북한 주민들의 관계에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랜 만남 준비 끝에 실제로 마주한 '나'와 로기완의 만남은 더욱 뜻 깊다. 로기완의 삶의 궤적들을 따라가며 그가 겪었을 상황들을 체화했던 시간들 덕분에 상상 속 이미지대로 로기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여준 자아 중심의 근대성을 탈피한 관계 양상은 각자의 역할 및 관계 내 위치를 단정짓지 않을 때 비로소 발현됨을 시사한다. 양 주체가 단일하지 않은 정체성, 곧 다채로운 정체성을 지니며 그로 인해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관계, 곧 고착화되지 않은 관계는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적

288) '나'가 메인 방송작가로 한창 열의에 차 있을 때, 열악한 상황에 놓인 윤주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자 추석에 방영하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며 방송 시기를 늦췄으나, 그 사이 윤주의 종양이 암으로 되어 큰 수술을 앞두게 된 것이다.

289) 타자와의 만남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진정한 공감이 반드시 동일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의문을 바탕으로 논의한 김영미(2017)에서는, 오히려 '나'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로기완으로부터 위안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동일성 확보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두고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남한 사회의 시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미, 위의 글, 2017, pp.24-27.)

극적인 관계로 이어지며, 이처럼 다채롭고 유연한 관계 형성이 결국 서로에게 긍정적인 연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만남 양상은 만남의 준비 과정 모두가 통일의 과정이며, 비단 남북한 정부의 화해와 만남이 아닌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또한 통일 주체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3. 균질적 공간에서 혼종적 공간으로 이행

탈북자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지만 과거 북한에서의 삶 혹은 탈북과정과 하나원에서 정착과정 등의 중층적 서사를 지닌다는 점에서 탈북자 소설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그곳'과 '이곳'의 서사가 얽히고설켜있다. 탈북자는 과거의 북한을 이탈하여 현재 그 외 국가의 거주민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이고 당연한 혼종적 존재이며, 이는 남한 주민과의 관계 맺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진정으로 만나는 지향점으로서의 시공간은 탈북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잊고 온전히 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현재의 삶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과거의 민족 동질성 '회복'의 공간 즉 분단 이전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한 쪽이 한 쪽을 포섭하여 새로운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닌, 제3의 새로운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남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통합 이후'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 역사로 나아가는 민족의 공간은 다양한 지역들을 추상적으로 재영토화한 결과가 아니라 탈영토화된 물질적 삶의 흐름들의 혼성성으로만 표상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290] 이는 인물들의 오랜 서사가 중층적으로 축적된 혼종된 공간이며 각자가 살아온 중층적 삶을 인정하고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의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90) 나병철, 위의 글, 2003, p.102.

1) 타자들의 고립된 공간

우선 탈북자 소설에는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 묘사되곤 한다. 남한 사회가 '탈북자 3만명 시대'를 맞이했음은 유의미한 수치이지만, 남한 사회 전체 인구에 비할 때 극소수나 다름없는 탈북자이기에 일반적인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때문에 이러한 공간은 현재 남한 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남한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립된 공간으로 숨어들어가는 탈북자들의 양상을 보며 남한 주민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탈북자들이 소외되고 고립된 시공간의 형상화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형성해가는 통일상을 살피기 이전에 공존과 화합의 초석으로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여러 탈북자 소설에서는 남한 사람들과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탈북자들끼리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드러난다. 탈북자들은 낙후된 공업 도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 동남아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 외곽 등지에서 살아가는데,[291] 남한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이곳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보이곤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어엿하게 삶의 터전을 꾸렸음에도 탈북자들끼리만 교류가 이루어진다. 여러 상흔이 짙게 밴 탈북자들은 서로의 불안과 상처를 건드리며 갈등을 빚으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모이며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은 남한 사회로부터 여전히 고립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292] 탈북자들이 형성한 그들만의 공간은

---

291) 이는 북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청춘연가>의 미선네도 다름 아니다. "한 동 건너 12층에서 사는 미선네 집의 문도 선화네와 똑같은 은색의 철판 문이다. 미선네가 평양에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어도 한국에 와서는 다 같은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다. 새로운 토양에 이식된 그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같은 모습에, 같은 조건으로 출발한다.(197)"

292) 물론 탈북자들끼리 이룬 공동체는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소외를 극복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중요하고 유의미한 공동체다. 탈북자 소설에서도 탈북자들끼리 이웃으로 살아가고픈 소망이 묘사되곤 하는데, 이를테면 <청춘연가>에서는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탈북자들이, "서울의 집은 총 인원의 15퍼센트 정도밖에(85)" 되지 않으며 탈북자들의 거주지가 분산된다는 사실에 아쉬워함을 그려내고 있다. 이에 정병호(2006)에서는 탈북자들이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 사회정치적 불안요인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남한 사회가 탈북자의 지방배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탈북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방해하며 탈북자의 소외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정병호 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물론 유의미하지만, 탈북자들끼리 모인다는 것은 실상 남한 사회에 조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의 연대는 남한 주민과의 조화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와 가치에 진정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293]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남한 사회에 삶의 터전을 잡았음에도 하나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원이라는 공간에 중점을 두어 살피고자 한다.

여러 탈북자 소설에서 등장하곤 하는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설치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공간이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탈북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과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기존의 탈북자들과의 유대 형성 및 취업 준비 등을 받게 되는 것이다.[294] 한국에서의 첫 인연을 하나원에서 맺게 되며, 한국 사회에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탈북자들이 평생 의지해 가는 인연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하나원은 특별한 공간이다. 그러나 남한의 주민으로서 본격적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공간이기도 하다. 탈북자들의 하나원 생활을 면밀히 그려내는 <청춘연가>를 통해 살필 수 있다.

하나원에서는 2주일에 한 번씩 선배 탈북자들 중 그래도 적응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초청해 강의를 벌인다. (…) 비단 언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강사들은 그렇게 언어 문제라고 강조를 한다. *(청춘연가, 58-59)*

여타 탈북자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탈북자의 남한 적응의 어려움이 비단 언어 문제로만 볼 수 없듯[295] 새로운 사회 준비의 공간으로서 하나원은 일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하나원에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p.40) 그러나 이 글은 통일 한국 사회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이 상호 영향 속에서 공존해야 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탈북자들끼리 모인 공간이 자칫 남한 주민들과의 분리를 더욱 견고하게 할 위험이 있으리라 보았다.

293) 김인경, 위의 글, 2014, p.282.

294)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업무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리포트 - 먼저 온 미래』, 늘봄플러스, 2009, pp.125-126.

295) <세번째 집>의 하나원에서도 강사들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사회생활에서 인사가 중요하다", "한마디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강조했으나, 그러한 인사조차 허용하지 않는 남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서 탈북자들은 제도·정책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되지만 하나원을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차별과 좌절 등 남한 사회의 차별적 시선에 대한 준비 혹은 대응까지는 연습하지 못한다. 더불어 탈북자에게 호의적인 하나원 직원들과 비슷한 처지의 탈북자들이 모인 '그들'만의 공간으로, 일종의 게토화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원 선생들은 한국은 기회이 땅이라고 했(92)"지만 결코 남한인이 될 수 없는 이들에겐 그저 남한말을 구사하려는 남한인을 '흉내내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하나원에서는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신의 고통은 물론 북한 출신이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지우게 된다.[296]

남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언어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오랜 분단 세월 동안 단어와 억양 등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달라져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탈북자들이 북한어를 지우고 남한어를 익히는 것은 탈식민주의에서 일컫는 일종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297] 위와 같이 탈북자가 구사하는 북한어를 모두 남한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의식적 행동이되 북한어를 미개함으로 치환하여 남한의 우월성을 담보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무비판적 자각의 현상임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시간들을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강요'하는 이러한 공간은 탈북자들을 무시간적이며 탈맥락화된 공간에 위치시킨다. 새로운 사회 준비 공간으로서 남한 주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기에는 여전히 소외된 공간이면서도, 남한 주민으로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오롯이 남한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까지 가두는 고립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령> 또한 가상 게임 세계로 회귀하는 인물을 통해 남한 사회로부터 고립된 탈북자의 모습을 역력히 그려낸다. '바츠 해방전쟁'

---

296) 이처럼 남한말을 잘 구사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원 강사들의 모습은 이덕화(2013)에서 언급한 언어의 상징적 의미와 연결지어볼 수 있다. 언어는 이데올로기를 담은 특정한 체제의 소산이자 상징자본으로, 이처럼 언어의 권력 속성에 의해 소수자의 언어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 강영숙의 『리나』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p.416.)

297) 식민 지배자는 피지배국의 미개한 텍스트를 '번역'으로 문명화된 텍스트로 바꾸어 제국의 논리를 각인시킨다고 한다.(Robinson, D.,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정혜욱 역, 『번역과 제국』, 동문선, 2002, p.126.)

이 이루어졌던 리니지 게임 세계는 핍진하게 묘사되는 현실 세계의 리얼리티와 대비한 환상적 요소를 가미하며 소설 전개 곳곳에 개입하게 된다. 소설 속 탈북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만큼 가상 게임 세계는 탈북자들 삶의 한 축으로 자리하며 또 하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비루하게 살다가 온라인 게임이라는 '새 세상'을 만난 탈북자들은 "최소한 그 순간은 행복"하며 "비루하고 못난 자신을 잊을 수 있(286)"다는 이유로 게임에 빠져든다. 탈북자에 대한 온갖 차별적 시선이 난무하는 현실 세계와 달리 게임 세계에서는 게임 능력, 곧 게임 속 군대를 이끌고 적을 해치고 '영웅'이 되는 게임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298] 그러나 "그놈의 게이머, 지겹다(27-28)"고 말하면서도 '엄마의 자궁'처럼 편안한 온라인 게임이 가상 현실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 믿는 분열적 양상은 그들의 소외된 현실을 더욱 부각한다.

주인공 주철은 '바츠 해방전쟁'에서 '오합지졸의 군대를 진두지휘하여 적의 심장부를 뚫은 혁명군 전사'라는 자부심이 상당하지만, 이는 그저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이방인의 도피처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에서 늘 당하는 배신에 진절머리 난 주철에게 온라인 게임은 유일한 안식처임에도 현실 세계의 정신적 불안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은 아니다. 현실 세계의 좌절이 게임에 빠져들게 하지만 그 게임 세계는 현실 감각을 잃어가되 "몸속에 숨어 있는 공포(236)"를 일깨우며 점차 게토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다.[299] 더욱이 백석공원에서 일어난 탈북자의 자살은 탈북자들의 관계가 와해될 만큼 탈북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남한 사람들에겐 그저 백석공원에 혼령이 나타났다는 소문의 근원지이자 주목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주변 상권을 이루는 남한 사람들이 이를 퇴치하기 위해 위령제를 올렸던 것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부각된다. 평안북도 정주 출생의 시인 백석이 고향의 향토적인 언어로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했던 것에 울분을 느끼는 탈북자의 목소리는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그곳이 무슨

298) "현실 공간에서 개인의 외모, 이름, 성장과정 등이 상당 부분 부모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가상공간에서의 캐릭터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와 취향의 산물이다. 캐릭터의 외모, 이름, 성장과정까지 노력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리니지 2' 바츠해방전쟁 이야기』, 살림, 2005, p.32.)

299) 오혜진,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 청년세대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8, 우리문학회, 2013, pp.475-476.

고향이냐며 경멸하는(140)” 남한 사람들에 의해 소거되고 있음을 공간적 상징성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고립된 탈북자의 현실 세계에서의 삶은 오랜 꿈에 대한 도전조차 좌절되자[300] 주철은 또다시 온라인 게임으로 접속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거듭 의지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외로움이 극화된 그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머물(325)”지도 모른다며 게임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다.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했던 탈북자들의 꿈이 무너지고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게 된 그 결과는 비장소적인(ungrouded) 가상 게임 세계로의 회귀였다.[301] 이곳에선 남한 주민과 그 어떤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탈북자 자신의 현실 세계로부터도 단절된다. 남한이 원하는 균질적인 세상에 이물질과 같은 그들은 끝내 남한 사회에 조화롭지 못하고 도피처로서의 가상 게임 세계에 머물게 됨은 오히려 현실 반영의 실제 공간보다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302]

한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접촉이 없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접촉이 있더라도 같은 장소에 ‘병존(竝存)’할 뿐, ‘공존’으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타자가 고립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303]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들은 남한의 가장 자본주의적 공간인 단란주점에 모였으나 잦은 초점화자의 변경을 통해 그 공간에 모인 각 인물들의 내면을 보여주며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 사회안전부 출신의 염정실은 사냥하던 ‘노루’들의 탈출 경로를[304] 따

---

300) 한때 인텔리로서 배우를 꿈꾸던 주철은 꿈에 대한 마지막 도전으로 최선을 다했으나 탈북자이기에 배역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놓인다. 감독이 원하는 배우는 ‘자신을 연기할 사람’이 아닌 감독이 만든 ‘캐릭터를 정확히 보여줄 사람’이며, 때문에 실제 탈북자인 주철은 탈북자 역할의 배우에 적합하지 않으며, 때문에 탈북자는 이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호한 감독의 어조에 해당 역할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을 때, 주철은 “진작 배우의 꿈은 접었어야 옳았다(280)”고 생각할 뿐이다.

301) 오윤호, 위의 글, 2011, p.246.; 오혜진, 위의 글, 2013, pp.475-476.

302) 최병우(2016b)에서도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를 망각하고자 온라인 게임 세계의 영웅적인 활동에 몰두하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유령과 같은 존재가 온라인 세계를 떠돈다는 점에서 탈북자와 게임 폐인의 내면은 상동성을 가진다고 보았다.(최병우, 2016b, pp.342-343.)

303) 박덕규의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은 북한 고위층의 탈북을 소재로 책을 출판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남한 사람들과 이러한 자본주의 남한 사회에 불만을 가진 탈북자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라 탈출에 성공하여 책 출판을 앞두고 있다. 남한 사회에 이미 여러 탈북자들의 저서가 출간된 상황에서[305] 북한의 고위층이던 염정실의 탈북은 매력적인 소재였고 여의치 못한 상황을 지내온 남한 남성 셋은 각기 재기(再起)의 계기로서 염정실 서적을 협업하여 출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한 기관 출신인 김 선생과 영세한 출판사의 최 사장이 합동으로 기획한 책 원고의 탈고 기념으로 모인 염정실, 김 선생, 최 사장, 그리고 염정실의 이야기를 직접 원고로 작성한 아마추어 작가 고창규는 한 곳에 모여있지만 서로를 내키지 않아한다. 소통이라곤 없이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며 병존하고 있을 뿐이다.

"별달리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도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되는 세상이 있으리라고는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유, 자유,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남을 한이 없겠건만, 더욱이 풍요롭기까지 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조금의 노동력만 있으면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무장공비가 남판되고 폭력범들이 설쳐도 치안을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인데도, 이렇듯 불안하고 초조하고 갑갑한 느낌은 웬일일까."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118)

남한 주민들과 병존하고 있는 그 공간이 미치도록 불편하고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마음에 염정실은 급기야 "미친 새끼들! 전부 49호 병동[306]에다가 처넣고 말갔어!(120)"라고 외치고 만다. 시끄러운 노래 소리에 묻혀버리긴 했지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억누르고 있던 불만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한 주민들 사이에서 표출된 것이다.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그 어떤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병존만 하고 있는 상황은 "이 세상 모두가 49호 병동 그 자체(126)"일 뿐이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체제 속에서 살아온

---

304) '노루 사냥'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접 국가와 맞닿은 국경선을 넘어 탈북하는 이들을 처형하며 '노루'들의 탈출 경로를 잘 알던 염정실이 그 길을 따라 탈북한 것이다.

305) "요즘 귀순자들이 책을 너무 많이 내서 말이지요, 화제성도 점점 떨어지고 판매도 영 그래요.(111)"

306) '북한에서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병원을 49호 보양소라고 일컫는다. 염정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성한 사람도 정신병자로 몰아 49호 병동에 넣어 버릴 만큼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다.(125)'

남북한 주민들, 나아가 남한 주민들 내에서도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공간에서 만남은 없다. 염정실의 지나온 시간이 소재가 되어 모인 이들에게서 그녀의 역사성은 안중에도 없이, 남한 사람들끼리의 오랜 관계에서 서로 실리를 취하고자 계산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에서 끝내 집약되는 갈등은 남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며 그 주체에 염정실은 없다. 염정실의 삶과 정체성은 오로지 자본주의에서 도구화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청춘연가>의 하나원과 <유령>의 가상 세계에는 그 어떤 외연적 갈등도 나타나지 않는다.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갈등적 요소에 대해 살필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무시간적인 공간에서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남한 사회가 주목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 동성애의 쟁점화를 개탄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는 담론화조차 되지 않음에 주목한 버틀러가 '정상이 아니라고 선포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되거나 조용히 불법화되는 쪽이 훨씬 나쁘다'고 말한 것과 연관지어볼 수 있다. 버틀러는 푸코가 그의 권력 담론에서 고려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지움'이며, 정체성이 있으려면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한 사회가 탈북자의 시간을 지워버림으로써 남한 사회에 존재하는 그들의 존재를 거부한 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지운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갈등 또한 이질적인 두 집단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 어떤 상호작용이라곤 없이 각자 존재할 뿐인 위와 같은 양상이 진정한 통일 한국이라 일컬을 수 있을지 되묻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타자성이 배제된 균질적 공간

앞서 제시한 시공간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살폈다면, 이 절에서는 만남은 있되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공간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이질적인 존재인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가하는 균열을 봉합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곧 타자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균질적인 공간으로서 탈북자를 기존의 남한 사회의 한 편으로 흡수시키고 동화시키려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갈등적 양상이 결국 남한의 단일한 목소리로 포섭되는 모습은 이질성을 배척하는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서 통일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선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배경이 되는 이태원에 위치한 '미아장'은 대표적인 균질적 공간이다. 1997년 서울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태원은 각양각색의 외국어를 쓰고 세계 음식을 즐기는 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도 요리점, 게이 바 등 낯선 가게까지 어엿이 자리한 이곳은 국민국가의 경계도, 근대의 이분법적 구분도 사라진 경계 없는 곳으로 묘사된다.[307] 은유의 말에 따르면 이태원은 임진왜란 때 이곳에 귀화한 왜군들, 즉 '이타인(異他人)'에서 출발한 명칭으로, 지명 유래에 걸맞게 '멜팅팟'을 추구하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위치한 미아장은 이태원의 다채롭고 활기찬 그것과는 다른 획일적인 질서를 형성한다.

미아장은 허울 좋은 호텔업을 내걸었으나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위치한 허름한 여관으로, 미아장을 운영하는 미로의 일가족과 투숙객 대학생 남필 그리고 탈북자 리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다. 이곳은 우리 사회의 타자들이 모인 곳이지만[308] 오히려 획일적인 기준을 이탈하는 타자들이 모인 곳이기에 이곳을 관리·통제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질서를 더욱 강조한다. 질서를 추구하는 주체들은 미아장의 어른들-민호, 은유, 우익-로 집약해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아동질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인물들로, 그중에서도 유일한 인텔리인 은유는 집착적으로 질서정연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모두 타자화한다.[309] 타자들이 지닌 타자성은 점차 배제되고

---

307) '몇 년 전만 해도 지저분한 이미지였던 이태원은 이제 홍콩의 랑 콰이 펑처럼 예술적으로 변했다. 서양도, 동양도 아닌 곳. 서울 속의 작은 아메리카. 가짜 명품과 뱀 가죽 허리띠가 인기이고, 싸구려 나이트클럽에 드나드는 미군들을 수시로 볼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음식점 골목 사이사이로 젊은 배낭여행객과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돌아다니는 이방인의 거리. 이태원은 그렇게 탈바꿈되어 가고 있었다.(pp.118-119)'

308) 최종학력이 중학교인 미로의 아버지 민호는 트럭 운전 및 옷 수선 일을 하다 현재 미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학 박사 과정을 밟았던 어머니 은유는 스승을 비판한 죄로 학교에서 쫓겨나 꿈을 실현하기는커녕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 과외를 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할아버지 우익은 양로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미로와 미아는 어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적 기질을 지닌 아이들이며, 심지어 하숙생 남필 또한 시골 지방 출신의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 명문대를 진학했음에도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309) 미로에게는 질서 체계로 분류되는 할아버지 우익과 아버지 민호 또한 은유의 질서에서 타자화된다. 우익은 한국전쟁 중 친어머니를 잃고 양어머니 밑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온 상흔을 지닌 존재로, 그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사실 어디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의 표출이었음에도, 며느리 은유에겐 눈엣가시가 되어 갈등을 반복한다. 민호 또한 조기 축구회 사람들과 '중년의 로망 3일 천하'라는 일탈 이력이 있는 인물로,

인위적으로 통제된 구성물로써 미아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이 동일한 ‘자기 닮음’과 ‘순환성’을 갖고 있는 구조(129)”를 의미하는 ‘프랙털’과 다름없는 이곳은 타자성을 배제하는 은유의 질서로 가득하며, 이처럼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균질적 공간에서 이방인인 리우리는 배제된다.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리우리는 평소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던 미아장 사람들의 그 어떤 변호도 받지 못한 채 추방되는 것이다.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된 리우리가 미아장을 영영 떠나 버린 날, 꿈속에서 리우리와 채팅하게 된 미로는 자신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냐는 그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늘 다른 게이머들을 죽이던 예전 자신의 모습이 생각난다며 “왜 몬스터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 진짜 적은 어쩌면 같은 플레이어일지도 모르는데.(133)”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흔히 ‘몬스터’와 같이 이질적인 존재 혹은 낯선 이를 물리치면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같은 플레이어’, 곧 익숙하고 친숙한 존재인 가족으로부터 더 폭력적인 경험을 당하고 그 사이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던 미로의 마음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로는 자신의 질서를 강요하는 엄마 은유와 늘 남을 의식하면서 스스로를 기득권으로 두고자 하는 아빠 민호, 왼쪽이라면 모든 걸 싫어하는 할아버지 우익 등으로 온전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편 이러한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 게임에 몰두할 뿐이다. 리지혁이 남한 사회에 편입하고자 ‘미스터 리의 이력서’ 양식에 맞추어 행동했음에도 결국 배제된 것처럼, 균질적 공간에서는 국민국가 밖의 탈북자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의 협소한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국민들도 소외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수치>[310]의 배경이 되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도시’ 또한 이러한 맥락으로 살필 수 있다. 정황상 남한의 평창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유골이 다량 출토되며 남남(南南) 갈등이 시작된다.[311] 정부에서는 이를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에 쫓겨 후퇴하던 인민군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속에서 가장으로서 여러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가족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인물이다. 그러나 은유는 남편이 ‘중년의 로망 3일’ 동안 도박장을 전전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아이들이 ‘브루마블’과 같은 도박성 게임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대응할 뿐이다.

310) 전수찬의 <수치>는 평창에서 출토된 유골을 정쟁화하는 남한 사회 속에서 소외된 탈북자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311) “저기가 바로 유골이 나온 곳이네, 하하! 우습지 않나? 저 손바닥만 한 땅뙈기 때문

학살로 규정하고 공식 발표(17)"했으나 이후 민간 학회의 교수들의 반박 성명 발표 및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해당 지역의 할머니의 증언이 등장하며 양 측의 갈등은 첨예화된다. "정부 조사단의 발표가 그 참사 원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되었고 잠시 중단했던 선수촌 아파트 공사도 재개했지만, 사람들이 정부의 발표를 전적으로 믿는 것 같지는 않(17)"는 상황 속에서 '진실'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평창에 등장했고, 올림픽 유치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던 지역 주민들은 시위대가 애초에 '이 정부에 뿌리 깊은 불신'을 지닌 불순한 사람들이라며 배척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정치적 대립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충돌 속에서, 갈등의 '희생자'였던 유골에 대한 애도는 없으며 유골들에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짓밟힌다는 것이다. 천주교 신부 출신의 연출가가 기획한 '참회 연극'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한 군인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 참회하는 순수한 애도의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나, 연극의 '참회 주체'가 곧 해당 사건이 누구—미군 혹은 인민군—의 소행이냐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각자의 이익을 저울질한 입장들이 지속적으로 개입된다.[312] 극한 대립 속에서 연극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자 한 연출자는 영남을 겁박한 협회 측에겐 출토된 유골이 누구의 소행인지, 희생자들의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올림픽 시설 공사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것일 뿐임을 설명한다. 애초에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지 않았던 참회연극이었기에, 연출자가 점차 변질되어가는 연극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참회 연극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탈북자 영남에게도 남남 갈등은 직접적으로 개입되는데, 이때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극렬하게 드러난다. 함께 고충을 앓았던 탈북자 동백의 죽음으로 더없이 흔들리고 생(生)의 의지까지 잃어가던 영남에게 참회 연극은 죄책감의 고통으로부

에 그동안 남조선 전체가 들썩거렸단 말이야!" "그럼 저기만 내놓고 공사를 한단 말인가?" "그렇지. 이 거대한 건설현장에서 남조선 사람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작은 땅이란 말이지."(39)

312)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그저 '가해자'의 자리에 대입된 인민군 장교가 참회 주체가 되기로 했으나, 정부 발표에 반발하여 미군의 소행이라고 믿는 이들이 더 많아져 해당 연극이 미군 역할의 연기로 채워져야 한다는 여론이 앞선다. 이후 미군의 소행으로 역할을 변경하려 할 무렵, 협회 측에서는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급기야 해당 연극을 취소할 것으로 겁박한다.

터의 유일한 탈출구나 다름없었을 뿐더러, 또한 남북한 갈등의 '희생자'로서 출토지 유골들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지녔음에도 영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313]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영남이지만 극렬한 남남 갈등 속에서 탈북자라는 정체성은 그의 목소리를 더욱 지워버리며 대립하고 있는 두 남한의 입장 중 하나로 편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민국가의 논리에서 영남의 논리, 다시 말해 영남이 그토록 연극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기괴한 변명이며[314] 국가적 대 행사라는 명목으로 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수자가 희생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이들은 오로지 근대국가의 발전 및 그 구성원으로서 취하고자 하는 이익에만 몰두할 뿐이다. 때문에 그들은 탈북 과정에서 식구들을 잃고 그에 대한 죄책감에 참회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지워버리는 것이다.[315] 출토지를 둘러싼 시위장은 이른바 '양극의 정치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으로, 냉전시대의 거대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자 개개인은 사라지고 정치적 목적만이 깃든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토록 배타적인 균질적 공간은 사실상 '회복'의 의미를 띤다는 점에서 그간의 통일 담론에서 빈번하게 추구되어온 지향상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은 역사적인 의미를, 공간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므로[316] 곧 거꾸로 시간을 되돌린다는 점에서 분단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시간적 측면, 그리고 분단되었던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공간적 측면을 지님으로써 과거지향적

---

313) 그저 극 중 배역이 되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참회하는 것, 이러한 "연극을 내 삶의 계기로 삼아보고 싶(26)"은 목적이기에 양 측의 남한 주민들이 제안하는 인물 설정은 사실 영남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나, 남한 주민들은 기어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연극이 흘러가길 원한다. 그런 그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아닌, 억울하게 희생당한 개개인을 추모하고 싶은 것뿐이라는 영남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이해할 필요도 없는 타자의 목소리다.

314)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내가 그걸 왜 이해해야 돼? 자기 식구들한테 사죄한다고 온 국민이 응원하는 올림픽을 망치고 있는데, 누구더러 이해하라느니 말라느니 해? 이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164)

315) "자네가 내려온 데는 자본주의 사회야. 그럼 여기 법칙에 따를 줄 알아야지. (…) 아니 뭘 얻으려고 하는 거야?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장사를 벌여놓은 판에, 그 앞에서 정의니 참회니 하고 떠들어서 뭘 할 건데? 그것도 육십년도 더 지난 전쟁 때 일을 가지고.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들이 없어. 자, 이제 됐으니 앞으로 돌아가서 연극 같은 건 아예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열심히 돈 벌 생각 해. 돈 벌려는 욕심도 좀 가지고 살아. 그래야 여기 온 보람이 있을 게 아니야?" (167)

316) Gary Saul Morson·Caryl Emerson, *Mikhal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p.630.

공간을 상정하게 된다.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분단 이전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이러한 지향상은 민족주의 중심의 통일 담론에서 빈번히 논의되었던 바다. 민족주의는 결국 근대의 확장, 곧 동일선상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획일적인 선상으로서 시공간을 형성한다. 획일적인 선상에서 추구되는 동질성은 타자성을 지워낸 동질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상 근대 민족주의가 공고했던 한반도라는 균일한 세계는 균열을 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타자가 억압되었던 곳인 것이다.

그러나 <수치>에서 보여주듯 이미 분단이 된 지 수 십년이 흐르는 동안 불가역적인 변화들이 발생했으며, 때문에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 곧 재영토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한반도는 정태적인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축적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다변적인 시공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느 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아니라면, 기존의 통일상인 균질적 공간보다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과거 회귀 혹은 단순한 재결합이 아닌 새로운 사회 형성의 과정이다. 이 항에서 살핀 시공간에서 탈북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엷어져가며 남한 사회의 강한 목소리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상대화로 보다 나아가고자 하는 다문화적 통일의 측면에 비추어본다면 개선의 여지는 다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지향점으로서의 혼종적 화합의 공간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향점으로서의 혼종적 공간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화합과 공존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317] 남한도 북한도 아닌 경계 밖의 공간은 양극성의 정치학이

---

317) 고인환(2009)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남북의 관계로 국한시켜 바라볼 때 최종 목적지를 '남한'으로 상정하게 될 위험성에 응전하여 '탈국경의 상상력'을 방안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남한 사회에 무사히 정착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성 기반의 흡수 논리가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자각에 의거한다.(고인환,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그러나 본고가 지향하는 혼종적 공간은 남북 관계에 천착하면서도 균질성이 아닌 다양성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이 지향했던 분단 소설의 영역을 넘어서 최근의 통일 담론에

사라진 곳으로, 갈등을 겪었던 인물들 간의 이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들 공간에서 인물들은 국민국가로서의 남북한이 아닌 한반도를 벗어난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양극의 정치학이 사라진 제3의 공간은 남북한 주민이 진심으로 만나는 공간이자 집단에 귀속되지 않은 개별 존재로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며 동등한 지위를 갖는 곳으로 묘사된다. 바바에 의하면 문화적 불확정성(cultural undecidability)의 공간은 익숙했던 문화적 동질성이 더 이상 권위 있게 재현되지 못하며 사회적 인과관계도 결정론적 결과 혹은 결과론적 결과로 이해될 수 없다.[318] 이러한 문화적 불확정성의 특징을 띠는 공간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촉구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남한 주민 혹은 북한 주민이 아닌 그저 개인 대 개인으로 마주하게 된다. 정해진 정체성 혹은 문화가 없기에 혼성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포용력이 있는 이곳은 그 누구도 이방인 및 소수자가 될 수 있기에 고정적 이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상상력, 곧 자아가 타자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느슨함이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319]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번째 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은 일본의 모지항과 중국의 장백현 두 곳이다. 전자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지만 탈북자가 스스로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후자에서 이루어지는 남한 주민 인호와의 만남이 화합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의 초석이 되기에 같은 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모지항은 성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이 깃든 과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성옥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현재의 공간이기도, 남한 주민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이라 할 수도 있다. 북한에 있을 무렵, 당성이 투철했던 소녀 성옥은 일본에서 나고 자랐던 '귀국자'[320] 아버지와 잦은 갈등을 겪곤 했다. 그 어떤 균열도 인정하지 않았

서 이루어진 다문화주의와 탈북자 소설의 지향점이 맞물리는 지점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318) Bhabha H. K., 위의 글, 2016, p.154.

319) 이석구,「호미 바바의 탈민족주의와 이산적 상상력」,『비평과이론』9(1), 한국비평이론학회, 2004, p.172.

320) '귀국자'는 일제강점기 무렵, 일자리 등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해방 후 북한의 대대적인 홍보로 북한으로 재입국한 재일 교포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체험했던 이들에게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 사회는 차별적으로

던 북한 사회에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체험했던 '귀국자'들은 차별의 대상이었고, 성옥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닥뜨리며 노골적으로 북한 체제에 비판하곤 했던 귀국자 출신의 아버지를 무능한 사회 부적응자로 여기곤 한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자신 또한 탈북자가 되었을 때, 성옥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깃든 일본의 모지항을 방문하며 아버지의 삶을 돌아본다. 일제강점기에 혈혈단신으로 징용되어 일본에서 '조센징'이 된 할아버지와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국한 '귀국자'가 된 아버지, 그리고 북한에서 태어나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 성옥이 마주하는 것이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성옥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주하였고 새로운 곳에서 그 낙인 때문에 또다시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성옥은 '귀국자' 신분으로서 뼈저리게 차별을 받아온 자신의 삶이 딸에게 되풀이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던[321]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과거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과거 북한에서의 삶을 잊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곤 했으나[322] 성옥은 기꺼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역사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장백현은 이처럼 자신의 역사성을 받아들이는 성옥을 인호가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공간이다. 물론 인호 또한 처음부터 타자지향의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이따금씩 성옥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으로 느껴질 때면 그 이질감에 황당한 막막함을 느끼곤 했다. 익숙지 않은 성옥의 타자성을 마주했을 때 당혹스러워하고 탈북 여자를 만나냐는 대학 동기의

대했다. 소설 속 성옥은 귀국자의 자녀다.

321) 성옥은 어릴 적부터 귀국자 자녀라는 차별을 받곤 했던 체험이 쌓이고 심지어 '좋은 토대'의 청년에게 청혼을 받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그 모든 것이 귀국자인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하자,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상상에 빠져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집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성옥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던 "귀국자들은 귀국자들끼리 만나서 사귀고 혼인도 해야 한다(128)"던 아버지의 말씀은 딸만큼은 자신처럼 차별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길 바라서였다.

322) 온갖 불안한 상상의 끝에 서울로 들어와, 국정원을 거치고 또 하나원에 왔을 때, 성옥은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u>이제 과거가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 과거와 이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것</u>. (…) 그런데 이상했다. 보위부와 공안에 대한 공포가 원천적으로 사라지자 그 빈자리로 슬그머니 슬픔 같은 것이 고여들었다. 마치 이른 봄날의 수액처럼 슬픔을 타고, <u>버려야 할 과거의 기억들</u>이 되살아났다.(122)

물음에 이성 관계임을 부정하며 그저 '동포'임을 강조하는 모습은 연대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인호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을 답습한 주변 지인들의 섣부른 판단과 달리,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 여기고 직접 탈북자에 대해 알아보며 소장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기꺼이 맡아보기로 한다. 그렇게 수복지구[323] 기념관 설계를 위해 숱한 자료를 찾고 접해왔던 인호는 성옥이 배워왔던 북한 교과서를 살피며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북한의 문화들도 이해하게 된다. "저 세상(북한)을 알려는 게 국가적 금기이던 시절에 유년과 청년기를 보냈(251)"던 인호는, 장백현에서 성옥과 성옥의 가족들의 삶을 느끼며 '국가적 금기 시절'의 시각을 벗어나,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마주한다.

㉠ *인호는 '분단된 조국'인 북한을 이 순간처럼 현실적인 느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비현실처럼 낯설었다. (…) 김대건의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어떻게 숨쉬었을까. 문득 인호는 본 적도 없는 김대건을 느꼈다.* *(세번째 집, 247)*

㉡ *인호는 시야를 가린 산 너머의 다른 세상을 상상했다. 국립도서관의 북한 자료관에서 보았던 천연색 화보의 사진들을 떠올렸다. 다른 나라에서 민족적 차별을 받는다면, 가난해서 늘 먹고사는 일이 불안하다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면…… 누구에게라도 천국 같았을 그 사진들. 인민이라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는 조국.* *(세번째 집, 250)*

㉢ *거기서 성옥은 목숨의 진액이 소진되어 저 강을 건넜다. (…) 자궁 속에서부터 김일성의 삶, 김일성의 생각과 느낌, 그의 혁명성과 위대함을 태양빛으로 받았을 성옥의 비애와 절망과 분노와 희망을 이해하는 일이 가능할까?* *(세번째 집, 251)*

---

323)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일컫는다. 소설 속 건축가 '인호'는 이곳 수복지구에 기념관 설계를 맡게 되며 북한 관련 자료를 접하며 성옥을 이해해간다.

인호는 성옥뿐만 아니라 가난과 차별의 서러움에 기꺼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성옥의 할머니(㉡), 일본과 북한의 이질적인 체제를 감내해야 했던 성옥의 아버지(㉠), 귀국자 자녀로서 탈북자로서 살아가는 성옥(㉢)을 이해한다. '지금-여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때-거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눈으로는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음을 깨달은 인호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그 어떤 삶을 살아왔더라도 포용하는 것, 곧 인물 내면에 쌓인 역사성과 다성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성옥이 그녀의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이해했듯 인호 또한 성옥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상대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이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324] 자신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있음을 인지하고 공유하되[325] 성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326]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성옥과의 만남을 통해 건축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은 인호는 자신이 설계하는 수복지구 기념관에도 그곳에 담길 역사적 정신을 담아낸다. 공간을 이루는 구성체이자 공간에서 살아가는 주체들과 상호작용으로서 공간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통일 한국 사회가 고정되고 균질적이며 부동의 공간이 아니라, "숨을 쉬는 생명의 공간"과도 같이 그 구성원들의 삶을 담아내며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오래도록 남한 사회는 탈북자의 정체성, 곧 북한에서 자라오며 겪어왔던 개인의 역사성을 지우고 '남한 주민'이 되길 기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남한 주민'처럼 변하되 절대 남한 주민과는 같아서는 안된다는 양가적 입장

---

324) 타자의 타자성은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며, 때문에 자아는 타자의 어떤 모습은 알고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은 당연하다. 타자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또다시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이때의 관계는 대화가 아닌 독백이며 고독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성원, 「왜 레비나스 철학인가?」, 강영안 외, 위의 책, 2017, pp.79-80; 윤대석, 위의 글, 2014, pp.211-212.)

325) "늘 생각나는 게 있어. 성옥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견딜 수 없었던 게 자유였다고 했지? 무엇이든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자유. 그런데 난 집단주의를 못 견뎌. 남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남이 정해준 대로 생각해야 하는 거.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이해할 수 있니?"(257-258)

326) 언젠가 술이 취해서였던가? 성옥이 투정하듯 말했다. 선생님, 제가 살아온 삶도 인정해주세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걸 송두리째 부정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어떡해요.(251), "생각해봤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볼까 해. 성옥이를 말이야, 조국의 반역자로도 생각하지 않고…… 빨갱이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257)"

을 취하면서도 과거의 정체성을 지워오길 요구했던 것이다. 장백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성옥이 “나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구나.(258)”라고 깨닫는 것은 탈북자가 남한 주민과 다르지 않은 균일한 정체성을 가지길 원했던 것 그리고 남한 주민과 동일한 개인의 역사성과 인생을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탈북자 개인이 살아온 그 모든 역사성까지 포용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왼손잡이 미스터 리>는 ‘플라스틱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갈등하던 인물들이 소통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미로의 꿈 속 공간인 ‘플라스틱 지구’는 가족들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곤 하던 미로가 ‘불안의 덩어리’를 키우며 형성한 일종의 미로(迷路)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던 리우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리우리를 비롯한 미아장 사람들을 불러오는 곳이다. 미로의 무의식대로 인물들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이곳은 왼손잡이가 80%를 이루며 일상 세계에서 소수자인 이들이 다수자가 되는 곳이자 은유의 질서가 무너진 곳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 갇힌 미로의 주변 인물들은 탈출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질서를 강요하며 미로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던 은유의 변화를 눈여겨 볼 수 있다. 미로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의 입장이 아닌 미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 은유는 비로소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미로의 마음을 헤아린다. 미로의 꿈을 새로이 연출하자는 은유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즉흥극은 일종의 롤플레잉 게임[327] 같은 역할극이었다. 그리고 인물들은 각자 맡은 배역에 충실히 임한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리우리에게 쏘아붙이는 다른 이들의 공세에 민호는 비로소 리우리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가 느꼈을 감정들을 직접 내뱉게 된다.[328] 뿐만 아니라 갈등하고 대립하던 며느리 은유와 시아버지 우익의 깊은 감정의 골도 아들이자 손자인 미로를 마주하며 치유된다. miro89와 온라인 채팅으로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리우리는 미로를 누구보다 잘 이해

327) 롤플레잉게임(RPG)은 가상 시나리오 내에서 주어진 역할(role)을 수행하는 방식의 게임이다.(이인화, 위의 글, 2005, p.22.)

328) “당신들 중에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증거도 없이 단지 탈북자란 이유로 미스터 리를 살인자로 몰고 가는 거 아니요? 나랑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며 솔직한 얘길 나눈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어딜 나가는 걸가, 대체 정체가 뭘까, 이런 것만 궁금해했지! 평화? 평화는 개뿔!(284)”

하고 있었고 미로의 역할을 맡았던 리우리는 미로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것, 그리고 왼손잡이라고 차별받아온 것에 대한 속상함을 털어놓게 된다. 처음으로 접한 미로의 속상함을 진심으로 달래고자 하던 며느리 은유와 시아버지의 우익 또한 그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329]

사람들은 어느새 각자의 배역을 버리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새로 태어난 가족의 곁으로 다가갔다. 은유가 미스터 리를 안은 우익을 두 팔 벌려 감싸 안았다. 그러자 민호가 다가와 우익을 안은 은유를 안았다. 은유를 안은 민호를 사이먼이 안았다. 민호를 안은 사이먼을 남필이 안았다. 그들은 각자가 하나씩의 미로였으나, 서로를 감싸 안자 하나의 퍼즐처럼 재구성되었다. *(왼손잡이 미스터 리, 289-290)*

미로의 꿈속은 시간과 공간이 혼종된 곳이다. “세계는 1차원인 시간과 3차원인 공간이 섞인 4차원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보는 이의 관측 태도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171)”다는 깁스 부인의 말처럼 이 공간에서 이들은 과거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그저 역할극을 통해 타인이 되어봄으로써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외계인의 관점’, 즉 그간 이해 못했던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틈새의 관점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놓치고 있는(293)” 세상의 빈틈을 보게 되는 것이다. 프랙털의 질서를 뛰어넘는 ‘카오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 ‘외계인의 관점’을 형성한 이들은 옳고 그름, 우열과 열등 등 대립적 관계의 이분법적 사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외계인의 관점’으로 바라본 미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각자가 살아온 경험들이 축적되고 타인의 지난 경험을 통해 그 이면까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던 미로와 남한의 차별

329) 은유 역의 우익도 미로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 네가 게임에 빠져 산다고 얼마나 걱정하는지……”(288). 질서정연을 추구하며 누구나 타인 취급을 했던 은유로부터 우익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해왔던 과거와 달리, 은유의 입장이 되어 그 또한 가족을 향한 은유의 마음이었음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적 시선에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탈북자 리우리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곧 '미아장' 구성원들의 화합으로 나아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질서와 무질서가 팽팽히 대립한 가족이었지만[330] "이분법을 깨뜨린 자(320)"인 리우리의 등장으로 이들의 대립이 와해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리우리는 경계의 안팎을 모호하게 하며 이방인과 토착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경계인'[331]과도 같다. 경계인은 항상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곤 하는데,[332] 이항대립에서 벗어난 독특한 존재로서 공고한 시공간의 동질성을 뒤흔들며 그 속의 인물들도 모두 비일관적이고 양가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333] '플라스틱 지구'를 "위상학적으로 직선과 같고 무질서는 또 하나의 질서이며 혼돈은 새로운 조화"[334]라고 볼 때, 이 사회를 균열시킨다고만 취급받던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이 내부 시선에서는 끝내 조화되지 못하던 갈등을 화해로 이끌고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335]

미로는 방을 새로 정리했다. 컴퓨터를 없애거나 게임을 끊지는 않았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횟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생일 때 우익으로부터 받은 왼손잡이용 글러브[336]로 주말마다 태우와 야구하는 취미가 생겼기 때문이다.

---

330) '세계에는 혼돈을 가장한 질서가 관통하고 있었다. 질서란 자본주의의 질서이고, 가진 자들의 질서, 기성복의 질서, 가치판단 이전의 질서를 가진 자들의 질서였다. 그 질서에 의해 세계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었다. 저마다 구조화된 잣대로 구조화된 세상을 해석했으므로 자연스레 구조화된 결과가 나왔다. 구조화된 세상에 이방인이 편입될 곳은 없었다.(116)'

331) 정은경, 「추방된 자, 어떻게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가」, 『실천문학』 83호, 실천문학사, 2006, p.422.

332) 이러한 경계인적 특성을 지닌 리우리는 플라스틱 지구에 맞닥뜨리기 이전의 은유의 질서 세계에서, 훗날 플라스틱 지구의 비밀을 푸는 단서를 암시하는 말을 은유에게 건네곤 한다. "우주는 암호로 되어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연결되어 있어서 수수께끼 하나를 풀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것도 풀릴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리우리는, 미로와 은유의 불화가 서로에 대한 포용이 부족했음을 경계인의 시선으로 이미 지각하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33) 서용순, 위의 글, 2014, pp.340-341.

334) 방민호, 「이 심원한 물음 -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론」,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p.349

335) "공동의 기억이 없으며 민족의식도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어 보편적 인간애 구현(241)"에 도달할 수 있었던 리우리의 개입으로, 진정 구획과 경계가 없는 '우리'라는 의미를 갖게된 것이다. (김인경, 위의 글, 2014, p.284.)

주변인들도 소소한 변화들을 겪었다. (…) 우익은 미아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환경 친화 캠페인을 겸한 국내 여행을 떠났고 민호는 은유한테 했던 '삼천 원짜리 농담'으로 구청 장기 자랑 때 인기상을 탔다.

(왼손잡이 미스터 리, 336-337)

공간이 뒤섞인 듯한 환상적 요소로서의 꿈속 세계처럼 '너'와 '나'의 뚜렷한 구분없이 서로의 입장이 되어봄으로써 갈등하던 관계를 풀고 서로에 대한 성숙한 이해로 나아가며 타인의 이면까지 이해하게 되었을 때, "타인의 땅에서, 타인의 언어로, 타인의 인생을 살아야 했(341)"던 리우리는 "장갑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기를 느끼(341)"며 온라인 가상 게임을 종료한다. 이는 <유령>의 주철이 가상 게임 세계로 도피하고 오래도록 머물 것임을 암시하던 결말과는 대조적이다. 탈북자들이 온라인 가상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소외된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도피처이자 유일한 안식처임을 고려할 때,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실 세계를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 곧 이분법적인 질서가 아닌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인 혼종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이를 따스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공존과 화합의 통일 한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337]

---

336) 어린 시절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곤 했던 미로는 왼쪽, 오른쪽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 이러한 헷갈림에, 어린 시절 야구를 하다가 할머니 얼굴에 공을 던졌고, 민호는 미로가 할머니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야구를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로는 점점 집과 학교를 따돌리고 게임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로의 아픔이 비로소 치유되었을 때, 그는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다시 야구를 하게 된 것이다.

337) 이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으나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탈북자 소설인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이러한 관점으로 분석한 유경수(2009)의 논문을 함께 살필 수 있다. 탈북 이후 제3국에서 바리가 살아가는 연립주택은 타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작은 지구촌"으로 "다국적 공간이고 혼성성이 존재하는 곳이면서도 나름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유경수는 이러한 연립주택을 바바의 개념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 문화적 혼성성을 받아들이는 틈새의 공간이자 연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파악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가는 이 공간에서 다원적 소통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경수, 위의 글, 2009, pp.448-450.)

Ⅳ.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설계

이상 Ⅲ장에서 통일 교육의 관점에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통일 문학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해내었다. 본 연구가 기존의 개별 교과로서 문학 교육에서 주로 활용되던 분단 소설이 아닌 탈북자 소설을 내세운 것은 다문화적 관점의 통일 문학교육으로 향하고자 함에 탈북자 소설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을 읽는 관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탈북자 소설이라는 제재를 통해 통일 문학교육의 가능성을 살폈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 기반의 내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 장에서는 이처럼 소설에서 도출해낸 교육 내용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교육 설계를 구안하고자 한다.

교육 설계는 문학 교실의 학습자에게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탈북자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 학생들의 반응 양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융합 교육으로서 범교과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통일 문학교육을 설계하고자 기존의 통일 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되 수집한 초점 질문 반응 자료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확인한 Ⅱ장 3절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학습자 정보 및 활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상문을 인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기를 따르도록 한다.[338]

---

338) 학습자 감상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학교명-작품명(초점질문 번호)-학습자 일련번호]의 기호와 방식을 사용하며, 연구자의 윤색 없이 학습자 자료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단, 경기 E 중학교는 경기 E 고등학교와 이니셜이 겹치므로, 중학교(Middle school)를 표시하는 M을 덧붙여 EM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강조 부분은 인용자에 의해 밑줄로 표시하도록 한다.

339) 실험 대상자를 이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의 청소년 통일의식조사에서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와 성별 정보도 함께 수합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아 집단의 대표성을 논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선행연구의 통일의식조사가 소설을 읽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대상[339]	인원		성별	텍스트[340]	
경기 B 고등학교 3학년	33명		남	〈길치라는 이름의 물고기〉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中)	㉠
경기 E 중학교 1학년	56명	35명	남		
		21명	여		
경기 E 고등학교 3학년	19명	8명	남	〈타인-인터뷰〉·〈소설가를 만나다〉 (이경자, 《세번째 집》 中)	㉡
		11명	여		

<표 2. 학습자 정보>

소설 읽기 전 <초점 질문>
1. '통일'하면 떠오르는 것들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2.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들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3. '탈북자(북한 주민)'하면 떠오르는 것들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4. 우리 사회 속의 다문화 이주민과 '탈북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소설 읽은 후 <감상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북한 혹은 탈북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탈북자(북한 주민)와 만나게 된다면 어떠해야 할지,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등을 염두하여 소설을 분석해보고, 여러분의 감상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표 3. 학습자 활동사항>

설문을 하였다면, 본고의 학습활동은 소설을 읽은 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텍스트 자체의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다. 이에 본고에서 이들 나이, 성별 등에 초점을 두지 않음을 밝혀둔다.

340) 실험에 활용한 작품은 〈길치라는 이름의 물고기〉(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pp.148-155), 〈타인-인터뷰〉·〈소설가를 만나다〉(이경자, 《세번째 집》, pp.109-117; 144-154) 두 편이며, 이하 표기는 각각 ㉠과 ㉡으로 한다. 이들의 간단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 미아장에 있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 탈북자 리우리는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어머니를 담보로 걸려온 브로커의 전화를 받고, 탈북 경위에 대해 회상을 한다. 어머니와 함께 탈북하던 과정에서 만난 선교사의 위선을 마주했던 중국에서의 삶, 어머니를 잃고 홀로 중국 남부와 미얀마를 거쳐 태국의 방콕에 도착하여 사이비 전도업자를 만났던 삶,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게 된 남한 사회의 적응하기 어려운 현재의 삶까지 그 외로움과 심적 고통으로 이태원 구석의 PC방으로 향한다.

㉡ : 탈북자 성옥은 북한대학원 대학원생 정윤희로부터 그녀의 친구이자 소설가 최아림을 소개받게 된다. 성옥은 남한 여성 둘과 함께한 술자리를 끝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과 '다름'을 느끼며 또다시 외로워진다. 정윤희의 연구 대상으로 참여하며 "마치 자신의 삶을 팔아버린 아주 고약한 기분(p.110)"이 들었던 성옥에게, 탈북자 이야기

탈북자 소설은 기존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돌아보고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는 등 그 자체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실천성을 가지지만 이것이 그대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다. 수집한 학습자 감상문에서는 통일 문학교육 측면에서 탈북자 소설을 잘 감상하고 있는 양상도 드러났으나, 교육적 방안이 필요한 경우 또한 볼 수 있었다. 탈북자 소설의 통일 문학교육적 특성은 소설의 특성일 뿐 학습자가 어떻게 이를 경험하고 내면화·자기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고안한 목표를 향한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고자 3장에서 도출해낸 시사점과 함께 학습자 감상문을 통해 살펴본 문제 사례들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보완하여 최종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을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일 교육의 내용[341] 및 통일의식조사 등을 참고하였음을 일러둔다. 이 장에서는 먼저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문학교실에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언하도록 한다.

1.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목표

오래도록 학교 통일 교육에서는 분단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는 교과 특징을 막론하고 주입식으로 이어지는 설명 위주의 수업, 관점 제시를 통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보다는 주어진 내용 습득에 급급한 양상을 보인다는 한계가 있었다.[342] 통일은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면서도 반공적 시각, 안보적 시각, 그리고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시각이 혼재되어 나타나거나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통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은 실생활과 괴리를 느끼며 사회에 만연해있는 담론을 답습하고 재생산

를 소설로 쓰고 싶은 최아림은 성옥에게 과도한 관심을 표하고 궁금증을 표출하며 이에 부담감을 느낀 성옥은 최아림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단 한번도 호기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인호를 떠올린다.

341) 본고는 기존의 통일 교육 내용을 참조하되 여러 내용 요소들이 주로 동질성 회복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내용 체계로 보완하여 살폈음을 일러둔다.

342) 오기성 외, 위의 글, 2007, p.391.

하는 분열적인 양상을[343] 보이기도 했다. 이는 남한의 우월적 시선에서 북한을 타자화하여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을 우리 민족의 고유함을 갖춘 향수(鄕愁)를 일으키는 곳으로 지나친 미화를 해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사회통합을 향한 통일 주체들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봄으로써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 모델에 근거한 경제 우월성이 곧 모든 방면의 우월성이 아니며,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제국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질적인 두 사회의 만남은 극도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이 곧 북한 사회와 문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안목은 그것을 무조건 옳은 것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지배 담론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 등 현실의 왜곡된 시선을 반복적으로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나아가 극단의 선악-옳고 그름 등의 이분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그간 주목하지 못한 부분까지 촘촘히 살피고 이를 총체적 안목으로 취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 정복이나 포섭, 굴복이 아니라 개입과 공존의 말걸기의 자세로[344] 통일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름에도 조화로울 수 있는 평화의 통일상을 형성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탈북자 소설을 제재로 통일 문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본고의 지향점은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 및 사건들이 학습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과 의

---

343) 이를테면 기존의 통일 교육에서 강조해온 '한민족'에 기댄 시각은 오히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학습자 반응을 이끌곤 했다. 예를 들어,"'탈북자'는 비슷한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주민은 다른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E-㉡(질문4)-2]", "다문화 이주민과 탈북자의 공통점은 같은 국적이 아니라는 거고 차이점은 탈북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B-㉠((가)-질문4)-32]"와 같은 반응은 '한민족'이라는 당위성에 강하게 기대면서 기꺼이 환대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탈북자는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가져서 더욱 무시하는 느낌이다.[E-㉡(질문4)-4]", "차이점 - 일부 사람들은 탈북자에게 큰 적개심을 표함 [E-㉡-8]'"과 같은 양상은 오히려 '한민족'이라는 틀 때문에 그들을 더 배척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탈북자는 다문화 이주민과 다르고 남한 주민들과 한민족이다'를 전제하면서도 '남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 또한 병존(竝存)시킴으로써 남한 주민으로서 우월적 정체성은 놓지 않으며, 이는 결국 다문화 이주민보다 탈북자를 더욱 멸시하는 편견을 이루는 분열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4) 조한혜정 외, 위의 글, 2000, p.352.

미를 지니고 있는지 경험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 스스로가 통일 주체가 되어 북한 주민과 함께 통일 한국 사회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어내는 역사적 과정의 한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일은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갖은 혼란과 어려움이 뒤섞이며 형성하는 역사적 과정의 실체이다. 학습자들이 통일만능론 혹은 통일의 이상주의적 면의 관념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통일의 방향에 대해 건설적으로 사유할 수 있어야 함은 통일 시대에 필수적인 역량인 것이다. 이에 이 연구가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제시하는 지향점은 이론적으로 탐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Ⅱ장 3절에서 살펴본 교육적 의의를 참고하였으며, 다문화적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탈북자 소설을 통한 체험 확장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찰하며 통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배양함으로써 이질적인 북한 주민과의 공존과 화합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통일 주체로서 능동적 태도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상을 제시할 수 있다.

2.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마련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살필 것이다. 교육 내용이라는 것은 곧 학습자들에게 기대되는 지향상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교육 내용들은 제시한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성을 취하며 이에 3장에서 분석한 탈북자 소설의 시사점과 수집한 학습자 감상문의 문제 사례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바탕으로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 둘째, 북한 주민과의 연대로서 만남의 태도 모색, 셋째, 통일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상상이 그것이다.

1)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통일인식조사에 의하면 학교 통일 교육을 통해 접한 내용은 반공 및 안보와 관련된 것이 절대적이었다.[345] 그러나 20대에서는 탈북자와 다문화 등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었다고 답한 것은 통일 교육의 내용이 체제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변해왔음을 보여주는 바다.[346] 이처럼 통일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교육 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347] 탈북자 소설의 탈북자 형상화는 북한의 사회 및 생활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남한에서 태어나 줄곧 남한에서 자라온 학습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접하긴 쉽지 않으나 탈북자 소설은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

분단 이래 각기 다른 체제를 바탕으로 형성해온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차이는 때로는 외국과의 그것보다도 큰 차이를 보이곤 한다. 그러

---

345)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학교 통일교육을 통해 접한 내용과 관련하여 '반공 및 안보(64.8%)'>'자유민주주의 가치(11%)'>'북한에 대한 이해(10.1%)'>'탈북자와 다문화(7.5%)'>'남북한 민족의식 함양(4.4%)'>'통일의 이익(2.2%)'라고 대답하였다.(정동준 외, 위의 글, 2019, p.55.)

346) 이는 연령별 학교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연령이 내려갈수록 '반공 및 안보'에 대한 비율은 줄어들고 '탈북자와 다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정동준 외, 위의 글, 2019, p.56 참조.)

학교 통일교육 내용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반공 및 안보	34.2	52.3	68.5	81.2	83.4
북한에 대한 이해	13.1	13.1	12.3	6.5	6.0
탈북자와 다문화	18.0	10.4	4.6	2.7	3.4
자유민주주의 가치	18.0	15.8	10.4	5.8	6.4
남북한 민족의식 함양	10.4	6.3	2.3	3.1	0.9
통일의 이익	6.3	2.3	1.9	0.8	0.0

347) 2001년에 조사했던 통일교육 조사에서 "북한관련 학습내용은 주로 어떤 분야가 강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주민생활(33%)"이 1위였고 "북한 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북한의 주민생활(35%)"이 1위였던 점, 그리고 2014년에 조사했던 통일교육 조사에서 학생들은 향후 통일교육 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하여 '북한 청소년, 주민 생활 등 북한 실상(31.8%)'>'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된 국가의 미래(26.7%)'>'통일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16.4%)>'우리 정부의 대북정책'(10.4%)>'남북한의 비교'(7.5%)>'기타'(7.3%) 순으로 대답하였음을 볼 때, 이러한 요구가 꾸준히 반영되어왔음을 볼 수 있다.(김동규 외, 『남북한관의 의식조사와 통일교육 개선방안』, 집문당, 2001, pp.68-70; 이혜정,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14, p.66 참조.)

나 탈북자 소설은 이러한 배경이 녹아든 탈북자 인물들을 형상화함으로써 남한의 학습자들이 관념적 측면에서가 아닌 구체적 형상으로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로 가닿게 한다. 이를테면 <찔레꽃>, <로기완을 만났다> 등에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 출신으로써 부유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는 한편 <유령>과 같은 소설에서는 북한의 집단주의·사회주의와 달리 개인주의·자본주의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탈북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리고 남한에서의 삶이 북한에서의 그것과 차이가 있고, 그 괴리로부터 힘들어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이는 기존의 통일 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접목되는 부분으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개념적 지식이 아닌 인식과 감각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구조주의적 인식이 아닌 인간 내면의 세밀한 부분에 천착한 문학적 형상화는 낯선 세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자극하기에 이르게 된다.

공감은 타자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자아의 의식적 태도이며 타자를 자아와 같은 실재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348] 이는 단지 타자가 처한 상황 자체만을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상황에서 타인이 느끼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49] 남한 사회는 흔히 북한을 적대적 혹은 동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지만, 탈북자 소설을 읽은 학습자들은 북한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탈북자의 삶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탈북자 소설 읽기는 학습자의 인물을 향한 공감을 촉구하며 학습자들은 인물에 대한 앎을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형성한 틀에서 벗어나 탈북자의 삶, 나아가 그 너머의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공감적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래는 남한 사회가 보고 싶은 대로 북한 및 탈북자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술회하며 북한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자하는 학습자 양상이다.

---

348) Scheler, M.,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이을상 역,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참조.

349) Sandra lee Bartky, "Sympathy and Solidarity", "Sympathy and solidarity" and other essays, Rowman&Littlefield Publicers, 2002, p.85.(김영미, 위의 글, 2017, p.11에서 재인용.)

“탈북자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성옥의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탈북자라고 하면 그저 궁핍한 삶과 부정적인 시선을 겪는 안쓰러운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지, 왜 그들이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떠올려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나도 이곳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이곳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말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날 신기하게 바라볼 때면 (혹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왠지 모를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 느낌이 가장 외로울 것 같았다. 우리가 북한이나 탈북자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성옥이 마치 아림과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눴듯, 한결같이 대해야 한다. [E-㉡-4]”

“그동안 자세히 탈북자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 통일이 된다면 지향점을 소문 해결 지향점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서로 상황을 몰라 각자 소문이 이상하게 나 있어서 그 소문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향점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B-㉠-32]”

[E-㉡-4]에서는 탈북자를 제 생각대로 여겨왔었음을 돌아보며, ‘왜 그들이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소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읊어낸다. 탈북자들을 향한 남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인지하는 한편 이에 안쓰러움을 느끼는 학습자는 탈북자들이 느끼는 이질감과 소외감의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았던 스스로를 성찰한다. 남한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임에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남한 현실에 비추어 ‘그 느낌이 가장 외로울 것 같았다’라고 공감적 측면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32] 또한 남북한이 서로 잘 모르는 무지함으로 ‘소문 이상하게 나’는, 즉 서로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며,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 소문들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연결지은 것과 같이 북한 주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소설은 학습자들이 탈북자들이 겪는 실상에 대한 이해 방식으로, 남한 사회에 팽배한 기존의 편견으로 성급히 종결하기보다 현상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하고 기존의 편견을 긍정하지 않으며 그 원인들을 생각해보

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전의 북한에서의 삶을 인식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북한 사회와 현재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문학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며 타자의 전반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350] 사회적 편견에 대해 성찰 및 반성을 할 수 있게 되며, 이질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융통성 있는 시각의 확보는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을 읽기 전 학습자들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를 접해온 만큼 북한에 대해 잘 모르거나[351] 일종의 편견[352]을 지닌 모습을 보이곤 했던 것을 고려하면[353]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로 나아가는 데 있어 탈북자 소설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은 후에도 설령 북한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입장을 잠시나마 체화해보는 것은 분명 단순히 남한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익숙지 않았던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소설을 통해 경험해본다는 것, 그리고 다시 소설 밖으로 나와서 탈북자들을 다시 한 번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 이것은 분명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봤던 것과는 다른 이해들이 가능해지는 지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50) 신응철, 「누스바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철학논집』 34,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3, pp.383-312.

351) "지도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르고 없는 듯이 살 수 있나 싶다.[E-(2)-16]"

352) "한 민족이지만 전혀 다른 나라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모습이 떠오르며 때론 이해하지 못하고 무섭기도 하다.(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자존심 세고 공격적인 나라?)[E-(2)-4]", "'북한'하면 공산주의가 떠오른다. 매우 강압적이며 서열이 나눠져있고 '동등'이란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것. 솔직히 말하면 통일하기 두렵기도 하다. 한국과 정반대인 방향인 북한과 과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EM-(2)-13]"

353) 학습자들은 읽기 전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공산주의 체제, 김정은, 미사일, 빨갱이, 동무, 남북정상회담, 사회주의, 독재, 친일파 청산, 핵무기, 독재정권, 핵, 군인들이 발맞춰 행진하는 장면, 독재에 시달리는 국민들, 도발, 4.3 평화 항쟁, 왜곡된 이미지, 그로 인해 심어진 공포심, 폭력과 무기력감'으로 답한 반면, '북한 주민'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 '사투리, 간첩, 불쌍한 사람들, 이산가족, 굳센 성격, 순수함'과 같이 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한 정권에 대해 정치적 사안으로 인지하는 것과 달리 북한 주민에 대해선 생활 세계를 중점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지만, 양측의 이미지가 일면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2) 북한 주민과의 연대로서 만남의 태도 모색

앞선 단계를 통해 북한 사회 및 탈북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하였다면, 학습자들은 이제 북한 주민과의 바람직한 만남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구안한 통일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학습자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조정은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갖추어야 할 선행 조건이라면, 탈북자의 복수적 정체성을 마주한 학습자들은 이후 단계로서 북한 주민과의 상호작용의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 통일은 상부구조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사건이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354] 이질적인 생활방식, 가치관, 태도 등에서 야기되는 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 탈북자 소설은 학습자의 비판적 성찰을 끌어냄으로써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지향하게 함을 볼 수 있다. 이질적인 타자와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기존의 통일 교육 내용에서 평화 지향성과 맞닿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탈북자 소설을 읽으며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했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무뎌졌던 아비투스에 대한 점검을 동반하게 된다. 타자를 과장하는 소설의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무뎌졌던 감각을 일깨우며 타자에 대한 섬세한 시각과 이를 통한 자기 반성 및 성찰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태우 담임 선생님, <청춘연가> 선화의 학원 수강생들의 모습은 남한 주민들의 시혜적 태도를 자각하게 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모델에 가까워질수록 세련되고 향상된 사회가 된다는 근대화론이 반영된 태도이자 우월-열등의 서열화된 시선의 반영으로,[355]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제한된 정보로 인해 쉽사리 편견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바라봤던 시선을 조정해나간다. 한편 <찔레꽃> 박선교사가 의도적으로 탈북자들의 모습을 특정 이미지로 만들어가는 장면은 노골적이기에 오히려 박선교사의 태도에 보다 비판적 시각을 이입해볼 수 있게 된다. 이때 학습자들은 남한 사회에 살

354) 정동준 외, 위의 글, 2019, pp.222-223.
355) 조한혜정 외, 위의 글, 2000, p.327

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했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무뎌졌던 아비투스에 대한 점검을 동반한다. 타자를 과장하는 소설의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무뎠던 감각을 일깨우며 타자에 대한 섬세한 시각과 이를 통한 자기 반성과 성찰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청춘연가>, <로기완을 만났다> 등의 탈북자들은 남한 주민들과 다름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임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탈북자에 대해 편견을 약화시킨 자리에 그들의 새로운 모습으로 채워 넣음으로써 편견 속에 갇히지 않은 다채로운 모습들을 두루 주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며 타자의 전반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356] 사회적 편견에 대해 성찰 및 반성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때 그간 보지 못했던 타자의 모습을 보는 시각이 확보된다. 탈북자의 다기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형성한 학습자들은 탈북자들의 상황을 핍진하게 묘사한 소설을 통해 그들과의 바람직한 만남을 사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70년 가까이 떨어져 있으며 서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화 이해하기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될 것 같다. 물론 모두의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 특히 남한-북한 사이에서는 '남한'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E-㉡-17]"

[E-㉡-17]에서는 탈북자의 입장에 서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탈북자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남북한의 '다름'에 대한 객관적 인식으로도 이어져, 섣불리 '한민족'이라는 당위성에 의거한 동질성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같은 민족이니까'를 내세우며 동질성을 강조하지 않고, '오래도록 떨어져 지내고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탈북자의 입장에 공감함으로써 우월적 태도를 '조심해야 할 것'을 실감하여 만남의 태도를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

356) 신응철, 위의 글, 2013, pp.383-312.

다.

“탈북자라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이들인지 그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게 우선인 것 같다. 남한인들이 남한 내 특정 지역 주민이나 중국인, 조선족 등을 혐오하는 모습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조명되지 않는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의 문제다. [E-㉡-16]”

“정말 말 그대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내멋대로 ‘탈북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 앞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가져야 할 태도와 별 다를 것 없이 그저 편견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나를 변화시키면 될 일이다. 우리나라는 ‘다름’을 너무 극대화시켜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 것에 더해져 원래 ‘틀림’으로 여기던 사람들과 살아가라 한다면 상상보다 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특히 그들을 ‘받는 사람’으로, 나는 ‘주는 사람’으로 입장 내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겠지만 이미 이 수직관계를 몸에 새긴 사람이 많은 듯하다. 때문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아주 긴 시간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며,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육에 큰 힘을 걸어야 할 거라 생각한다. [E-㉡-8]”

[E-㉡-16]에서는 ‘통일’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닌, 다문화 이주민과 같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한 주민들의 차별적인 시선과 배타적인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점에서 타자를 억압과 배제로 대하는 태도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E-㉡-8]에서 배타적인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아가 통일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점은 정치·경제뿐만이 아닌 개개인들의 인식 변화 등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변해야 함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곧 타자의 입장에서 상상해보고 동등한 입장으로 나아가고자 함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관계에 천착하는 탈북자 소설이 이끌어낼 수 있는 태도라 할 수 있겠다. 통일의 주체가 남북한 정부만이 아니며 주민들 또한 모두 통일의 주체임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은 타자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연대로써 북한 주민과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3) 통일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상상

북한 주민과의 만남까지 사유하게 된 학습자는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과의 공존과 화합을 지향하는 통일 한국 사회에 대한 상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통일 교육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곤 하던 통일 한국의 미래상과 밀접하다. 학습자들은 탈북자 소설을 읽기 전에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357] 혹은 부정적 생각[358]을 하곤 했으나, 소설을 읽은 학습자들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 통일이 된다면, 나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와 가치관, 문화관들을 가장 먼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장점들을 살려내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B-㉠-20]", "북한과 남한 사람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간극을 좁혀야 할텐데, 그건 통일이 되지 않은 남한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긴 하다.[E-㉡-14]"와 같은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형성해감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분단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에 주목하고 있는 탈북자 소설을 통해 통일상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맞게 된다. 곧 통일이 국가 간의 거대한 승리-패배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 새로운 상황 속에 발생하는 새로운 타자 등 실제 학습자 개개인과 밀접한 통일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상은 타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균질적 질서에 의거한 자아동일성으로의 포섭이 아니라,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통일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들 및 북한 주민들

---

357) "통일은 해야하지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B-(1)-9]",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매우 힘든 길이다.[B-(1)-25]", "통일이라고 하면 아직은 멀게만 느껴지고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느껴지는 것. 하지만 꼭 통일된 것을 보고 싶다.[EM-(1)-11]", "늘 언급하지만 실현 가능한지 알 수 없는[E-(1)-11]"

358) "남한의 희생으로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보는 것[B-(1)-2]", "더욱 안 좋아지는 지역 감정.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빈부격차 때문이다.[E-(1)-7]"

내에서도 각각 이질성이 무수하게 존재하는 바, 통일된 사회에서 이러한 이질성이 모두 동질성으로 모아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남한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균질적 공간의 추구는 오히려 이질적 문화들의 충돌을 야기하거나 내부 식민지의 형태로 갈등의 요소가 축적될 것임은 유추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학습자들은 탈북자가 지닌 역사성을 지우고 남한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탈바꿈하길 바라는 획일적 논리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통일 한국 사회에서는 남북한 각자가 지닌 역사성과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로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앞선 단계에서 북한 주민과의 상호 주체적 연대와 같은 사유에 도달했을지라도, 두 상호 주체가 살아가는 시공간인 사회로 시선이 확장되지 않는다면 두 주체의 만남 또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학습자들은 다문화 사회 편성 등 변화하는 남한 사회를 비롯한 이질적인 북한 사회가 결합된 통일상을 상상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갖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탈북자의 삶을 그 역사성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함을 <세번째 집>의 모지항과 장백현이라는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모두 지우고 온전히 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질성을 포용할 때 균열을 겪는 남한 사회가 더 균열되는 것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플라스틱 지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다. <청춘연가>의 하나원과 <유령>의 온라인 게임 세계의 고립된 공간 혹은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있어도 '병존'에 그칠 뿐인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그리는 공간은 결코 통일 사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설령 정치·경제 등의 체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치>의 평창과 <국가의 사생활>이 보여주듯 동등하지 않은 관계는 여전히 통일되지 않은 사회를 연상케 하고, 일종의 내부식민지를 형성함으로써 화합되지 못한 상태를 보인다. 미래의 통일 한국 사회를 억압과 혼란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할 때, 나아가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짐을 볼 때, 이러한 소설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이질성을 배척하는 남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소설적 형상화를 '현실'로 읽음으로써 현재 남한에 만연한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통일 한국에 큰 혼란이 올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한편으로, 형상화를 '상상'으로 읽음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통일상은 어떠해야하는지 살피도록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탈북자 소설은 일련의 탈북 과정을 거쳐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통해 통일 국가에 대한 상상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보다 확장적인 시선을 제시함을 볼 수 있었다. 탈북이라는 현상 자체가 함의할 수밖에 없는 국경을 넘는 과정, 국민국가의 경계에서 고통 받아야 했던 탈북자들의 경험 등을 함께 묘사하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에 정착했음에도 여전히 탈북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위와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난 상상을 자극한다. 다시 말해 현재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의 북한 및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삶이 혼종적 서사로 얽혀있는 탈북자 인물 자체가 한반도 경계를 넘어선 다기한 나라와 지역들을 거칠 수밖에 없음에 학습자들은 자연스레 한반도를 벗어난 시각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른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남한·한반도·동북아·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슈와 학습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통일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써 통일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배타적인 남한중심주의가 아닌 열린 자세로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 통일,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을 바탕으로[359] 건설적인 통일 사회의 상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3.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탈북자 소설을 제재로 한 통일 문학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안한 교육 내용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이자 본고가 내세운 교육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교육 내용을 원활히 이루어내기 위해선 교육 방법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360]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방안은 비판적 검토를 통한 편

359) 박성춘·이슬기, 위의 글, 2016, p.93.
360) 다만 이 연구가 융합 교육을 전제함에 따라 융합적 교육 방식도 함께 참조했음을 일러두는 바다.

견 점검,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한 타 교과 내용과의 접목, 사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 토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비판적 검토를 통한 편견 점검

탈북자 소설의 핍진한 형상화는 학습자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분단 메커니즘을 반성하고 성찰로 나아갈 객관적 시각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을 향한 학습자들의 무관심 혹은 경계, 차별은 막연한 무지와 편견에서 이루어져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어나온다. 타자의 타자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선제적으로 특정 의미를 형성해버린다면 접촉이 늘어나면 상호이해가 증진된다는 이른바 접촉 가설의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탈북자 소설에서 복수적 주체로서 현상된 인물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성찰의 계기를 배제해버린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비판적 검토를 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관점과 견해를 견주어 보는 행위를 통해 학습자가 속한 사회의 아비투스를 살피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61] 학습자는 비판적 검토를 통해 남한 사회의 담론과 자신이 지닌 생각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기회를 얻게 되며 비판적 성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은 탈북자 소설을 읽기 전, 기존에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습활동을 통해 스스로 점검하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탈북자 소설을 읽기 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은 남한 사회의 담론과 학습자 개인의 편견, 소설을 읽기 전과 후의 학습자 자신의 생각 등을 견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의 맥락에 놓여있는 것이다. 남한 주민인 이상 북한에 대해 특정 이미지를 지닐 수밖에 없는 학습자들은 익숙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적개심 혹은 편견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메타적 점검을 통해 예방하게 되는 것이다.[362] 이는 평소 생각을 털어놓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교육적 처치가 가해지지는 않으나 학습자

361) 김지혜, 위의 글, 2019, p.49.
362) 이우영, 「북쪽 영화 길라잡이」,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p.230 참조.

들이 직접 작성한 읽기 전 질문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기존의 자신의 편견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가 구체적인 교육 설계를 위해 학습자 감상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활동지를 먼저 작성한 후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쓰도록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읽기 전 질문들에서 유의미한 점들이 확인되곤 하였다. 이를테면 학습자들은 다문화 이주민보다 탈북자를 더 멀게 느끼기도 했는데[363] '탈북자'를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대단한 사람이라고 밝힌 학습자들도 있었으나 '무섭다'라고 밝힌 학습자들도 적지 않음은 눈여겨 봄 직하다. 다문화 이주민에 대해서는 '무섭다'와 비슷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익숙함의 정도 차이를 들 수 있다. 남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이주민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들에 대해선 정보 접근의 제한이 덜하지만 제한적 접근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편견적 요소가 더 작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며 학습자들은 소설을 읽기 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성찰해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설을 읽고 난 후, "소설을 읽기 전과 후에 '북한', '탈북자(북한 주민)', '통일' 등에 관한 생각에 변화가 생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추가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압달라-프렛세이(Martine Abdallah-Pretceille)에 의하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자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364] 인간은 누구나 익숙한 관점에서 사유할 수밖에 없으나, 낯설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메타적 접근은 자신의 참조 기준을 객관화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며 절대적인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나아가 일련의 지속적인 중심탈피를 거쳐 상대성을 배워나감으로써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다.[365] 소설을 읽기 전의 초점질문은 이후 소설을 읽은 후 질문과 비교하여 학습자들이 소설을 읽고 난 후의 생각 변화가 일어난 지

363) 관련하여 Ⅱ장 3절 '2)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태도 증진'에서 다룬 학습자 양상을 참고할 수 있다.
364) Abdallah-Pretceille, M., 앞의 책, 2010, p.80.
365) Abdallah-Pretceille, M., 위의 책, 2010, p.141.

점, 일어나지 않은 지점을 나누어보며 메타적으로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 본 활동에 앞서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한 타 교과 내용과의 접목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각자의 선입견을 점검한 학습자들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으로써 교육 활동을 접목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범교과 주제로서 통일 교육은 여러 교과의 접근을 필요로 하며 개별 교과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상호작용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융합 교육을 표방하여 인접 학문의 통일 교육 내용 및 접근법을 살폈던 것을 상기하여 그 방법으로 상호문화적 독법(Intercultural Reading)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 이질성을 함의한 텍스트들을 넘나들며 읽는 일종의 비교문학 혹은 문화적 읽기라 할 수 있다.[366] 여러 교과의 통일 교육 내용을 비교하며 읽는 것은 익히 알려진 상호텍스트적 읽기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이 명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을 가로지르며 타 교과의 통일 교육 내용과 교섭할 수 있는데 이때 문학 작품과 교류하는 타 교과의 통일 교육 내용 또한 각 교과만의 관점과 특징을 지닌 것으로써 일종의 담론 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별 교과의 경계를 넘어선 대화적 독법으로서 상호문화적 독법은 단일 교과의 관점에서 고착될 수 있는 편협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을 둘러싼 현상과 문제, 그리고 해결방안은 정책·제도와 인식·감각의 문제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때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의 통일 교육이 정책·제도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과의 통일 교육이 인식·감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후자의 경우와 밀접하되 진정성[367]을 추구하는 문학적 형상화는 정책·제도에 영

366) 우신영, 「동아시아 소설의 상호문화적 독법 연구」, 『현대소설연구』 6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p.274.

367) 이는 허구적 성격을 지닌 소설이 단순히 공상(空想)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된다. 특히 작가들에게도 미지의 세계인 북한 및 탈북자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탈북자 소설의 뒷면에는 수많은 참고자료가 덧붙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현실에 대한 핍진한 탐구라는 점에서 전자와도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 다만 타 교과의 통일 교육이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문학은 분단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개개인들에 초점을 두어 인간 문제로써 접근하게 한다. 범주화된 양상이 아닌 개별 인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로 인지적 측면의 틀에서 나아가 정의적 측면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로기완을 만났다>에서는 난민 지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찔레꽃>에서는 탈북자를 비법 월경자로써 불법 체류자로 여기는 중국에서 보다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각국 외교 관계에 따라 국민국가의 타자에 위치한 탈북자들이 겪는 법적 지위 또한 달라지며 이것이 개별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핍진하게 형상화하는 것이다. 한편 <청춘연가>에서는 탈북자들의 하나원 생활이 묘사되곤 하는데, 이때 하나원의 정책이 일종의 동화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때문에 탈북자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섬세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 통일 사회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고자 하는 도덕과의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사회과에서 학습한 지식으로써 탈북자 및 북한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탐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탈북자 소설을 통해 제도·정책을 비롯한 개별 인간의 삶을 두루 살피며 탈북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개별 인간으로써 탈북자에겐 어떠한 경험이 발생되고 있나요?”, “위와 같은 문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개별 인간의 입장에서 제안해 봅시다.”와 같은 발문은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학습자들이 정책·제도의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관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비계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묻게 되고 이에 남북한 주민들의 관계를 주목함으로써 학습자들은 각자를 통일 주체로써 주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가로지르며 타 교과의 통일 교육 관점 및 내용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각 교과마다 통일에 대한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하는 한편, 나아가 개별 교과 내의 사고에 그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사고를 이루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여타 교과의 정보와 달리 개념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형상성을 통해 제공되며, 설명하기보다 보여줌으로써 경험의 질료를 제공한다.[368] 때문에 인접 학문에서 익힌 통일 교육의 내용을 문학 작품과 접목하여 살피는 것은 보편적 지식으로부터 개별 인간을 향하되 또 다시 개별 인간의 삶으로부터 보편적 세계로 향하게 되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문학교육 내 작품 범위에서 벗어나 타 교과의 관점을 학습자가 직접 문학교육과 접목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학은 타 교과 지식 학습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습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현상을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게 되는 경로가 되어준다. 개념적 지식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유가 이루어지기보다 객관화·대상화되는 데 그칠 위험성이 크지만, 문학 경험이 동반됨으로써 학습자의 삶의 맥락으로 들어온 개념적 지식이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369] 이렇게 자기화된 다방면의 지식은 또한 탈북자 소설 이해의 바탕이 되어줌으로써 새롭게 해석하는 안목을 기르는 등 작품 이해의 심화가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3) 사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

한편 통일 교육이 범교과 교육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실제 현실과의 연관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 내 개별 교과들이 소위 대학 내 학문 체계에 기반하는 것과 달리 범교과 교육은 다방면의 관점이 얽힌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써 교육과정에 들어온 특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의 융복합적 접근은 결국 실세계와의 연결로 이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370] 학습자들은 교과 내 지식 및 문학 작품 속 형상화에서 벗어난 실제 세계에서 탈북자 및 북한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제시하는 활동은 신문 기사 등에서 사례를 찾고 이와 관련된 소설[371]을 창작해보는 것이다.

---

368) 김대행, 앞의 책, 2008, p.41.
369) 구본관 외, 『언어 중심의 교과 융합 교육』,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참조.
370) 구본관 외, 「융합 교육과 언어 중심의 교과 융합 교육」, 위의 책, 2018, pp.56-57.
371) 여기서 소설 창작은 문학성을 띤 거창한 창작 활동이라기보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

이는 익히 통일 교육의 활동 방안으로서 제안된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372] 통일 교육은 결국 실천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에 주목하게 한다. 다만 여기서 덧붙이는 활동으로써 학습자들은 해당 사례를 탐구하여 이야기로 재창작하는 경험을 제안하고자 한다. 짤막한 사례를 이야기로 재창작한다는 것은 해당 사례의 인물의 배경, 성격, 삶 등을 상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학습자들은 타 교과의 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사례의 인물에 공감하는 문학적 감각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 창작은 일종의 타자되기 활동으로써 상황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동반하는 과정에서 공감력 또한 향상되는데, 구조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할 때와 다른 사고력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면 소설은 일종의 지향점을 내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실과 지향점의 괴리는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비계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탈북자 소설 속 지향점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 탐구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써 탈북자 소설을 읽으면서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소설에서 추출한 내용 요소	사례에 적용
· 소설 속 한국은 어떠한 상황인지 말해보자. · 위와 같은 상황을 야기한 배경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일 한국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지 생각해보자. · 위와 같은 상황이 바람직한 통일상	· 사례 속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을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정리해보자. · 사례 속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 추측해서 말해보자. · 사례 속 인물이 남한 사회에서 느꼈을 감정과 상태를 말해보자. · 위와 같은 사례에서 발견되는 문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어떠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다만 학습자들의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되 인물·사건·배경이라는 소설의 3요소를 고려할 때 타자로써 탈북자를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하여 '소설'이라는 명칭을 활용했음을 밝혀둔다.

372) 이른바 '신문활동교육'으로 불리는 것으로,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 유발, 효율적인 학습 및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찬석 외(2000)에서는 통일 교육의 방안으로써 NIE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찬석 외, 앞의 책, 2000, pp.223-234.)

과 거리가 멀다면, 개선되어야 할 지점은 어떤 부분일지 얘기해보자.	해야 할지 얘기해보자.

위와 같은 내용 요소 추출은 학습자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교사가 마련하여 학습자들에게는 사례 탐구와 소설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 다만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소설의 초점인물 혹은 서술자로서 사례 속 탈북자로 상정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찾은 사례는 대체로 남한 주민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써 탈북자의 입장에 주목하기보다 남한 사회의 시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탈북자를 서술자로 하여 쓰는 글은 남한 입장의 서술자가 존재론적 한계로서 짚어낼 수 없는 탈북자의 내밀한 감정과 상황에 보다 천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극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갈등 요소가 어느 부분에서 부각되는지 살핌으로써, 다시 말해 남한 사회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외적·내적 갈등이 일어나는지 사고하는 과정에서 남한 주민의 아비투스를 섬세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탈북자가 되는 것, 일종의 '타자 되기'를 경험하며 탈북자에 대한 공감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남한 사회의 아비투스에 대한 성찰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토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마지막으로 문학 교실에서는 동료 학습자들 간 토론 활동을 통해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다.[373] 다문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통일 문학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이 통일에 대해 지속적인 사유를 촉구하고자 하지만, 탈북자 및 북한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담론들은 지식의 권력화를 통해 개인에게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이 진공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익히 접해온 있는 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통일에 대

373) 융합 교육은 개별 학문의 정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심화하는 가운데 타 교과와 교섭적인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융합 교육의 상호성이 궁극적으로 개별 교과의 세계에 발전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했음을 고려할 때 문학 교실의 특성을 살린 활동을 제시해볼 수 있는 것이다. (박인기, 「국어교육과 타 교과 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참조.)

해 기존의 담론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노출되기 쉽다면, 학습자들은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화하고 조정해갈 필요가 있다.

이인화(2013)에서는 문학 교실의 학습자들은 개개인의 해석을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하며 타자 해석과의 경쟁·협상·조정 등을 통해 자신의 해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해석 공동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374] 이는 문학 교실이 개인의 해석 작업을 재고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료 학습자들 간 토론은 '문예적 공론장'의 형성 및 그곳에서의 활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문예적 공론장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문학 교실 역시 획일화되지 않은 가치들의 역동성과 갈등이 상존하는 곳인 동시에 민주적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동료 학습자들과의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의견의 조정 및 심화·확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론 활동은 개별 학습자들의 통일 인식 향상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평을 확장하고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통일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형성해갈 담론 공동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탈북자 소설에서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는 장면을 쟁점화하여, 각자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토론의 방향을 이끌 수 있다. 이를테면 <큰돈과 콘돔>의 표창숙은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인 한편 북한에서의 정체성을 지워내고 거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생활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녀는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며 남한 사회에 잘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물상은 동질성 회복의 관점에서의 통일상에는 부합하는 인물이지만, 다문화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혼종적 통일상과는 거리가 멀다. 통일은 남북한의 이질성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들 및 북한 주민들 내에서도 각각 이질성이 무수하게 존재하는 바, 통일된 사회에서 이러한 이질성이 모두 동질성으로 모아질 수 없음은 물론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상적인 인물로 여겨질 수 있는 인물이, 다문화적 통일 사회의 관점에서는

374) 이인화,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 또한 남한 사회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탈북자 양상이기도 하다. 학습자들은 이처럼 탈북자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장면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토론하며, 궁극적인 통일 한국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소설을 입체적으로 읽는 한편 복잡다기한 현상으로써 통일에 대한 다방면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개념어를 중점으로 읽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소설 해석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통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태도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을 표방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함을 목표로 하였다. 통일 담론의 변천을 적극 수용한 인접 교과의 통일 교육은 70여 년간 이어져온 분단 현실 속에서 이질화된 남북한의 통합은 일종의 다문화적 상황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이질성 극복 및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종래의 통일 담론을 넘어서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당위적 주장만으로 통일 사회의 혼란을 완화할 수 없듯이, 통일 사회에 대한 막연한 이상적 환상만으로는 통일 한국 사회의 적대적 대립의 분단에서 화합 및 공존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타 교과의 통일 교육 관점과 교섭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의 제재 또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에 다문화적 통일 지향성을 함의하고 있는 탈북자 소설이 가능성을 지닌다고 보며 교육 설계를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범교과 교육으로서 통일 교육의 정의를 짚어보고자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에 주목하여 문학교육의 통일 교육 방식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다문화적 관점의 인접 통일 교육 관점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일 문학교육을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그간의 통일 문학교육은 분단 이래 반공적 성향의 작품, 비극성 강조 및 민족 화해를 강조한 작품, 남북한이 공동으로 향유하고 있는 작품, 나아가 현존하고 있는 북한 작가의 작품까지도 그 범위에 들여오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처럼 다양한 작품들이 결국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음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통일 담론 및 통일 교육의 패러다임이 다문화적 측면으로 이행해가는 가운데, 통일 문학교육의 범주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대적 국가 및 민족에 의존하고 있음은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이 연구는 동질성 및 회복 집착의 근대의 억압적 기제를 상대화하며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정으로 새로운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탈북자 소설은 다문화적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에 적확했다. 탈북자 소설은 탈북이라는 현상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어 탈북의 계기, 열악해진 배급 체계의 북한 사회, 탈북 과정의 어려움을 다루기도 하지만 점차 탈북자들이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분투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그 흐름이 이어져옴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적 통일 문학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탈북자 소설은 탈북자가 탈북 이후 겪는 일을 형상화한 소설로, 더불어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은 남북한 주민들의 만남을 형상화 한 소설로 바람직한 만남 모색을 사유하게 하는 소설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탈북자 소설은 당위적 통일 교육의 내용에서 벗어나 분단 체제를 스스로 답습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성찰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까지 사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고안하였다. 정형성을 벗어난 복수성으로서의 인물 인식, 억압·배제를 넘어서 환대로서 관계 맺기, 균질적 공간에서 혼종적 공간으로 이행이 그것인데, 이들은 각각 소설의 주요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과 부합된다. 복합적 주체로서의 형상화는 탈북자 형상화 이면의 남한 사회 담론까지 조명하며 익숙한 편견 속 이미지로서가 아닌 성격이 있는 존재로서 탈북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 조정의 과정이며, 환대로서 관계 맺기는 타자의 타자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상호 주체로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혼종성의 시공간으로 이행은 회복 지향의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 혼종적이고 다성적인 통일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들은 종전의 민족주의 기반의 통일 교육 관점에서 벗어나 다문화적 방향으로 접근하는 과정이자 통일 교육의 관점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통일 문학교육의 내용을 도출해내기 위한 시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실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형성을 넘어 주체성으로 형상화하는 인물 양상은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탈북자, 열등한 타자로서의 탈북자, 복합적 주체로서의 탈북자로 나누어볼 수 있었는데 탈북자 인물을 둘러싼 남한 사회의 현실 및 남한 주민들의 시선에 대한 반성 및 조정으로 이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고립과 타자화를 넘어 연대로 나아가는 관계 양상은 현실 반영의 배타적 관계, 우열성

에 따른 시혜적 연대, 상호 주체성에 입각한 연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은 갈등과 외면과 같은 배타적 관계뿐만 아니라 흔히 문제 삼지 못했던 시혜적 태도 또한 우월성을 기반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상호 주체로서의 상승작용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태도를 모색한다고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균질적 공간에서 혼종적 공간으로 이행하는 양상은 타자들의 고립된 공간, 타자성이 배제된 균질적 공간, 지향점으로서의 혼종적 화합의 공간으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북자가 지나온 삶이 모두 탈맥락화되는 고립된 공간도, 균질성을 근거로 타자성을 억압하고 회복 지향의 과거의 공간도 아닌 각기 쌓아온 역사성을 인정하는 다성적이고 혼성적인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나아가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소설 분석을 통해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탐구한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가능성을 실제로 가늠해보고 통일 문학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이처럼 소설에 근거해 도출해낸 시사점과 함께 학습자 감상 양상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설계를 고안하였다. 내용과 방법 마련에 앞서 Ⅱ장 3절에서 살핀 교육적 의의와 함께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의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ⅰ) 탈북자 소설을 통한 체험 확장을 바탕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찰하며 통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 ⅱ)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배양함으로써 이질적인 북한 주민과의 공존과 화합을 모색할 수 있다. ⅲ) 통일 주체로서 능동적 태도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상을 제시할 수 있다가 그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 내용 및 내용 요소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었다. ⅰ) 탈북자를 통해 본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 ⅱ) 북한 주민과의 연대로서 만남의 태도 모색, ⅲ) 통일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상상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서 비판적 검토를 통한 편견 점검, 상호문화적 독법을 통한 타 교과 내용과의 접목, 사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 창작, 토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바다.

언어 중심의 융합 교육을 표방한 다문화적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이 갖는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자들에게 낯설었던 탈북자들의 삶을 핍진하게 묘사한 소설을 통해 정신적 체험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것, 나아가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이면이자 남한 사회에 만연한 배타성, 곧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태도 증진을 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단일한 통일상이 아닌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통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유추해봄으로써 통일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자 소설 교육은 대립적이고 침체된 논리를 벗어나 통일 사회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 주체로서의 의지를 지니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의 내부적 시선을 중심으로 사유하던 것에서 벗어나, 안팎의 경계를 해체한 시선을 통해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성찰하며 지향점을 모색할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는 다문화적 방향의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이라는 새로운 제재를 발굴하며, 통일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탈북자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설계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가 지닌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한 학습자 반응 양상은 소설을 읽기 전 초점질문 및 소설을 읽은 후 전반적인 감상문의 형태였기에 학습자들이 탈북자 소설을 읽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등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통일이 야기할 다문화 문제는 결국 제도적 측면을 넘어선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와 결부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통일의 주체로서 학습자들의 반응 과정에 천착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소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이 그때마다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정교한 교육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 연구가 마련한 교육 내용 및 방안을 확인하는 검증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의성이 짙은 통일이라는 주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현실 상황에 따라 본 연구가 마련한 교육 내용에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가 마련한 교육 설계들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장 밀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다.

참고문헌

1. 자료

<소설>
강희진, 『유령』, 은행나무, 2011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김유경, 『청춘연가』, 웅진지식하우스, 2012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 웅진출판, 1998
이대환, 『큰돈과 콘돔』, 실천문학, 2008
이경자, 『세 번째 집』, 문학동네, 2013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전수찬, 『수치』, 창비, 2014
정도상, 『찔레꽃』, 창비, 2008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교과서>
방민호 외, 『문학』(2015 개정), 미래엔
정호웅 외, 『문학』(2015 개정), 천재
조정래 외, 『문학』(2015 개정), 해냄

2. 국내 논저

강명순, 「분단 소설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5.
강영안 외, 『레비나스 철학의 맥락들』, 그린비, 2017.
강주원, 「제5장. 남한사회의 구별짓기」, 정병호·전우택·정진경 엮음, 『웰컴 투 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업무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리포트 - 먼저 온 미래』, 늘봄플러스, 2009.
고부응, 「에드워드 사이드와 탈식민주의 이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4.8.
고영화, 「고전문학을 활용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교육연구』 61,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2014.
고인환, 「이방인 문학의 흐름과 방향성-이주 노동자와 탈북자의 삶을 다룬 작품을 중심으로」, 『문학들』, 2008년 가을.
_____, 「탈북자 문제 형상화의 새로운 양상 연구: <바리데기>와 <리나>에 나타난 '탈국경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2, 한국문학회, 2009.
_____,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한 양상 - 정철훈의 『인간의 악보』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37, 한국비평문학회, 2010.
_____, 「탈북서사와 탈국경의 문학적 상상력」, 『문학, 경계를 넘다』, 국학자료원, 2015.
고정희 외,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을 위한 기초 연구 - 통일 대비 단계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6, 2015
고정희, 「문학과 영상의 창의적 융합을 통한 공감교육」, 『문학치료연구』 3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_____. 「문학과 미술의 교육적 융합을 위한 제언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필리아>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고정희·이옥선, 「문학과 체육 융합교육 내용 탐구 - <어부사시사>에 나타난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64, 국어교육학회, 2017.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2017.
구본관 외, 『언어 중심의 교과 융합 교육』,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사랑, 2004.
김근호,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 이청준의 <소문의 벽> 읽

기를 중심으로 -」, 『독서연구』 19, 2008.
_____, 「문학교육에서의 국민 형성을 위한 정전과 감정의 역학—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56호, 한국어교육학회, 2017.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김동규 외, 『남북한관의 의식조사와 통일교육 개선방안』, 집문당, 2001.
김미영,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김미영·유리, 「통일 시대 문학교육의 한 방법, 간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54,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김미영, 「통일한국에 대한 문학교육의 대응」, 『문학교육학』 5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김범춘, 「다문화 사회의 소통 패러다임으로서 레비나스의 타자성」, 『통일인문학』 5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김선태, 「중·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분단 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문학과학사, 2006.
김세령,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에 재현된 조선족 이주민」, 『우리문학연구』 37. 우리문학회, 2012.
김소륜,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39, 한국현상학회, 2008.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김영미, 「탈북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69,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김영숙, 「바흐친과 다문화사회 담론」, 『노어노문학』 24(2), 한국노어노문학회, 2012.

김영순,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북코리아, 2017.
김유신, 「융합 연구와 교육에서 '융합'의 의미」,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11.
김윤정, 「디아스포라 여성의 타자적 정체성 연구 - 『리나』와 『찔레꽃』을 중심으로」, 『세계한국어문학』 3,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김은하,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3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김인경,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김정숙, 『한국소설과 주체의 호명』, 역락, 2006.
김종군·정진아 편,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자 이야기』, 박이정, 2012.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김종철, 「융합교육을 위한 교과교육의 소통과 언어적 창의성 -<농가월령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7, 한중인문학회, 2015.
_____, 「국어 교재의 성격과 위상 재검토 - 기본교육, 교과교육, 교과융합교육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1(3), 2016.
_____, 「<춘향전>과 지리 - 문학교육과 지리교육의 공동 영역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김종호, 『소외시대의 철학』, 문음사, 1981.
김지은·한규훈, 「광고학과 교육학의 학제 간 융합 가능성 진단을 위한 고찰 - 광고의 교육적 효과 연구에 관한 메타분석을 토대로」, 『광고연구』 113, 한국광고홍보학회, 2017.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창환·한상효, 「언어적 창의성의 개념적 고찰」, 『교육종합연구』 4(1), 2006.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김현미,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문화, 2005.
김혜련, 「4·19와 현대 소설교육—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1963~1973)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32호, 문학교육학회, 2010.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_____, 『근대 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2001.
_____, 「탈식민주의와 제3의 공간 - 근대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1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남진숙, 「융복합을 통한 생태교육 방법론」, 『문학과환경』 15(4), 문학과환경학회, 2016.
노상우·안동순, 「학문융합 관점에서 본 현대교육의 이론적-실천적 변화 모색」, 『교육종합연구』 10(1), 교육종합연구소, 2012.
류찬열, 「분단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시공간의 확장과 깊이」, 『다문화콘텐츠연구』 18,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 사회와철학연구회, 2011.
민성길 외, 『탈북자와 통일준비』, 연세대학교출판부, 2002.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박구용, 『우리 안의 타자』, 철학과현실사, 2003.
박기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제재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박덕규, 「'북한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의 의미 - 『고발』과 『잔혹한 선물』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7(3), 2018.
박덕규·이성희 편저,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박명규 외,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박민수, 「문화 혼종성의 이론적 고찰 - 호미 바바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9,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박상기, 「호미 바바의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영어영문학』 46(2), 한국영어영문학회, 2000.
박상욱, 「융합은 얼마나: 이론상의 가능성과 실천상의 장벽에 관하여」, 홍성욱 엮음, 『융합이란 무엇인가』, 사이언스북스, 2012.
박성춘·이슬기,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집문당, 2016.

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박인기,「국어교육과 타 교과 교육의 상호성」,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2006.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박찬석, 『통일교육의 성립과 과정』, 한국학술정보, 2006.
방은수, 「미투 시대, 아동문학 교육의 방향 - 젠더 허물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배한동, 『새로운 통일교육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9.
서명희·김종철, 「창의적 문제 발견 능력 함양을 위한 문학·경제 융합 교육 -언어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서용순,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반(反)형이상학적 주체이론에서의 정치적 주체성」, 『사회와 철학』 28, 사회와철학연구회, 2014.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편, 『전환기 한국사회 국민의식과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6.
선주원, 「동화에 구현된 시공성 읽기 양상과 교육내용 구안」, 『한국초등국어교육』 5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5, p.96.
성하진, 「중·고교 『국어』, 『문학』 교과서 수록 분단 소설의 성향 연구 -6·7차 교과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7.
소영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 - 국경을 넘는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2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손정수, 「한국 소설의 수용 의식에 나타나고 있는 비심미적 독서 경향과 그 문학 교육적 의미 -수업 과정에서 젠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신경숙, 「공감, 보기, 그리고 감정노동-□『프랑켄스타인』의 아담 스미스 다시 읽기」, 『영어영문학』 58(2),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신응철, 「누스바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철학논집』 34,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3.
신형기,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삼인, 2003.
엄정미, 「분단시대의 소설교육: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5.
연남경, 「다문화소설과 몸 구현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8, 2010.
_____, 「이주여성 재현의 서사학적 분석 - 『리나』, 『테러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양서원, 2008.
_____, 『인문학으로 다가가는 통일교육』, 양성원, 2016.
오영훈,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5(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9.
오윤호,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정체성과 자본주의 생태의 비극성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학과 환경』 10(1), 문학과환경학회, 2009.
오창은, 「공간의 감수성과 제국의 감각」, 『모욕당한 자들을 위한 서사』, 실천문학사, 2011.
오현진, 「국어교육 내 생태주의 반영 양상에 대한 고찰」, 『문학과환경』 17(4), 문학과환경학회, 2018.
오혜진, 「순응과 탈주 사이의 청년, 좌절의 에피그램 - 청년세대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8, 우리문학회, 2013.
우신영, 「동화 독서와 젠더 이데올로기: 아동 권장도서목록 속 전래동화 여성인물 표상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8, 한국독서학회, 2016.
_____, 「동아시아 소설의 상호문화적 독법 연구」, 『현대소설연구』 6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_____, 「문학 교과서의 성별 편중성 분석: 젠더의 눈으로 문학 교과서 읽기」, 『교육문화연구』 25(1),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우찬제, 「분단 환경과 경계선의 상상력」, 『동아연구』 30(2), 서강대 연구소, 2011.
우한용, 「창의인성의 방향과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 140, 2013.
유경수, 「다원적 소통을 향한 디아스포라적 상상력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7(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윤대석, 「한국에서의 포스트콜로니얼 연구」, 『문학동네』 11(2), 문학동네, 2004.

_____,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_____, 「식민자와 식민지인의 세 가지 만남」,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2013.
_____, 「결혼 이주자를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 -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4, 국어교육학회, 2014.
_____, 「21세기 한국 소설에서의 만주 - 《밤은 노래한다》론」,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_____, 「대칭성의 문학 교육 시론」,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한국어교육학회, 2019.
이경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분석」, 『청람어문교육』 26, 2003.
이덕화, 「탈북여성 이주 소설에 나타난 혼종적 정체성 - 강영숙의 『리나』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이미림, 「2000년대 다문화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우리문학연구』 35, 우리문학회, 2012.
_____,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_____, 「다문화 서사구조와 문화적 특징」,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이미숙, 「범교과 학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교사·교육전문가의 인식 분석」,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타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이석구, 「호미 바바의 탈민족주의와 이산적 상상력」, 『비평과이론』 9(1), 한국비평이론학회, 2004.
이성희, 「탈북자 문제로 본 분단의식의 대비적 고찰 -김원일과 정도상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6, 한국문학회, 2010.
_____, 「탈북디아스포라로 살펴본 국가 의미의 재고(再考) - 김영하의 『빛의 제국』과 이응준의 『국가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3, 우리말글학회, 2014.
이순형·조수철·김창대·진미정,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이승갑, 「한국의 다문화화 사회 현실과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한 신학적 성찰: 호미 바바의 혼종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21, 한국조직신학회, 2008.
이연승, 「탈식민주의 페미니즘과 시교육 연구 - 김승희의 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5, 현대문학이론학회, 2018.
이영미, 「현대소설교육에서의 또 하나의 다문화성: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북한 문학정체성의 의미화와 관련하여」, 『평화학연구』 15(1), 한국평화통일학회, 2014.
이우영, 「북쪽 영화 길라잡이」,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이은홍, 「문학교육에서 생태비평 수용의 의의와 방안」, 『문학교육학』 64,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리니지 2' 바츠해방전쟁 이야기』, 살림, 2005.
이인화, 「소설 교육에서 해석소통의 구조와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재기,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2009.
이재형, 「생태주의적 문학교육을 위한 지향」,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3.
이정복 외, 『21세기 민족 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이지은, 「'교환'되는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정착기」, 『구보학보』 16, 구보학회, 2017.
이지하, 「가부장적 고전텍스트에 대한 문학교육현장의 고민과 모색」,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2018.
이혜정,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학생들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201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 숲, 1997.
임영봉, 「2006년 서울 율리시스, 그 좌절된 모험에 대한 기록 - 김영하의 『빛의 제국』」, 『리토피아』, 2006년 겨울호.
임헌영, 『분단시대의 문학』, 태학사, 1992

_____, 「통일정책과 문학」,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94
_____, 「남북한 만남의 문학 변천사」, 『불확실 시대의 문학』, 한길사, 2012.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전영평·장임숙, 「소수자로서 탈북자의 정책개입에 관한 분석: 정체성, 저항성, 이슈확산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4),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8.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오름, 2000.
정동준 외, 『2018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정병호 외,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한양대학교출판부, 2006.
정은경, 「추방된 자, 어떻게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가」, 『실천문학』 83호, 실천문학사, 2006.
정호웅, 『한국문학의 근본주의적 상상력』, 프레스21, 2000.
조용관·김윤영,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
조주현, 『벌거벗은 생명』, 또하나의문화, 2009.
조한혜정 외, 『탈분단 시대를 열며』, 삼인, 2000.
조효래, 『우리 속의 타자』, 한국학술정보, 2017.
조희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 교과서 현대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52, 2016.
주재우, 「통일 이후 고전문학 교육과정 개발 방향」,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차봉준, 「환경 인문학 담론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연구 - S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과환경』 15(3), 문학과환경학회, 2016.
채상훈, 「분단 소설 교육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천경록, 「사회적 독서와 비판적 문식성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최병우,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6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a.

_____, 「탈북이주민에 관한 소설적 대응 양상」, 『현대소설연구』 6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b.
최인자, 「현대소설 크로노토프들의 대화성과 교섭적 읽기」, 『문학교육학』 31, 2010.
최종렬, 『지구화의 이방인들』, 마음의거울, 2015.
최종천,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의 해체론적 접근 - 바바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61, 범한철학회, 2011.
최현덕, 「세계화, 이주, 문화 다양성」,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 이해 교육』, 동녘, 2010.
최홍원, 「범교과 학습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타색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_____, 「북한의 고전문학 교육 내용 연구」, 『고전문하고가 교육』 2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3.
_____, 「동질성과 이질성의 길항과 통일 문학교육의 도정 -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해 본 통일 문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 『문학교육학』 62, 문학교육학회, 2019.
추병완, 「통일 교육의 현상학적 접근」, 박찬석 외, 『통일 교육론』, 백의, 2000.
_____, 「학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교육 접근의 타당성」, 『도덕윤리과교육』 29,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9.
_____, 『문화 감응 교육학』, 도서출판 하우, 20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9』, 통일연구원, 199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범교과 학습의 체계화 방안 연구』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한길연, 「한민족 통일시대를 위한 고전소설의 성찰과 모색」, 『어문학』 127, 한국어문학회, 2015.
한만길,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_____,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한수영, 「주체와 타자의 변증법-분단체제의 극복과 탈북자 문제의 소설화」, 『작가와 사회』, 2006년 겨울.
한승환·경정운, 「학제간 융합연구의 촉진을 위한 실증분석 - 학문분야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한국정책학회, 2011.
한원균, 「탈북자 문제의 소설사회학」, 『비판과 성찰의 글쓰기』, 청동거울, 2005.
홍순애, 「다문화사회의 문학적 상상력과 교육방안 연구: 다문화소설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6,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6.
홍용희, 「고난의 행군과 북한의 시」, 『근대문학』, 2006.4.
_____, 「통일시대와 탈북자 문제의 소설적 인식 -정도상 『찔레꽃』, 이대환 『큰돈과 콘돔』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0, 한국언어문학회, 2009.
황선옥, 「탈북 소재 동화·청소년소설 연구 -인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3. 외국 논저

からたにこうじん, *倫理21*, 송태욱 역, 『윤리21』, 사회평론, 2001.
にしかわ ながお,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Abbott, P.,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Narrative*, 우찬제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Abdallah-Pretceille, M., *E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역, 『유럽의 상호문화교육-다문화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 아카데미, 2010.
Agamben, G., *Homo sacer*,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_____, *Stato di eccezione*, 김항 역, 『예외상태』, 새물결, 2009.
Ashcroft, B.,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nial Literatures*, 이석호 옮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Badiou, A., *Le Siècle*, 박정태 역, 『세기』, 이학사, 2014.
Bakhtin, M. M., *Voprosy literatury I estetiki*,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Bauman, Z., *Liquid love*, 권태우 외 역, 『리퀴드 러브』, 새물결, 2013.
Bhabha, H. K.,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16
Buber, M., *Ich und du*, 김천배 역,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2001.
Butler, J.,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_____, *Gender trouble*,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Derrida, J., *De L'hospitalite*,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Eagleton, T., *Literary theory*, 김명환 외 역, 『문학이론입문』, 창비, 1986.
Gandhi, L.,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이영욱 역,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Gary Saul Morson·Caryl Emerson, *Mikhall Bakhtin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Hall, S., *Modernity and its futures*, 전효관 외 역,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Ian Watt, *The Rise of Nove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7.
Levinas, E., *Le temps et l'autre,*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9.
McLeod, J., *Beginning Postcolonialism,* 박종성 역, 『탈식민주의 길잡이』, 한울, 2003.
Nussbaum, M.,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 2013.
_____, *Hiding from Humanity,*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Paul, H. R., *Theory of Literature,* 정영목 옮김, 『문학이론』, 문학동네, 2019.
Robinson, D.,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정혜욱 역, 『번역과 제국』, 동문선, 2002.
Said, E. W., *Orientalism,*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0.
Scheler, M.,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이을상 역, 『공감의 본질과 형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Sontag, S., *Regarding the Pain of Others*, 이재원 역,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Young, R. E., *Critical Theory and Classroom Talk*, 이정화 역,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 교실』, 우리교육, 2003.

4. 기타

문화일보, <獨통일 25년… “오씨-베씨 사라진다”>, 2015.10.0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0201071521301001)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Novels as a Unification Literary Education

Kwon, Kuenyoung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ise a plan for unified literature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novels. In the meantime, unification literature education has been in the form of sanctions education under the sub-system, but as a pan-text education, there was a limit to dealing with the multifaceted aspects of unification literature education.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social demands that go beyond the boundaries of individual subjects, although it can focus on understanding works with great literary and historical values when transferred to the logic of individual class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define unified literature education based on language-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and to prepare educational measur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North Korean defectors' novels as sanctions.

Pan-textual education is a kind of subject education that aims to put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which cannot be solved with a single curriculum, in cooperation with various subjects. More than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fication issue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deeper amid the intertwined reality of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changes in unification

agents and international affair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s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multi-faceted unification education calls for a converged educational approach. Convergence education is the introductio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to educational discourse, which has emerged criticizing the divisional system of modern learning, and can be the route of pan-text education, in which cooperation with various schools is request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new unified literature education with language-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that focuses on the common discussions of various subjects, but takes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When we looked at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neighboring schools as a convergence education, we could see that they were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direction that was more realistic and future-oriented than optimistic. On the other hand,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can be largely examined in both basic and individual subjects, and if the former is based on a specific and clear perception of the situation, the latter means to pay attention to individual human lives with literary imagination and seek solutions to it. It is a language-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that aims to focus on the lives of individual human beings as it moves toward multicultural unification.

The North Korean defector novel is a sanction that conforms to the above aspects of unification educa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has soared since the mid-1990s, has experienced both South and North Korean systems, and is also an experimental figure that examines the aspects of a unified Korean society. While the novels dealing with North Korean defectors can b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novels dealing with such defectors, the North Korean defector novel,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the unified literature education, was proposed as 'a novel that causes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to meet.'

The point of view of analyzing North Korean defector novels was set up based on the theory of post-colonialism, with the emphasis on criticism and orientation, or the point of grand drama. Thus, character portraits were characterized by stereotypicality and complicated charact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was oppression, exclusion and hospitality, and the space where the characters lived was examined by homogeneity and hybridity. Based on such a framework, the North Korean defector's novels lead to a person heading for self-reliance beyond stereotypes, a relationship beyond isolation and typography as solidarity, and a transition from homogeneous space to hybrid space. They are critical of the prejudice and ex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while also showing the self-reli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lack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harmony with South Koreans, suggesting tha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move forward toda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purpose of education was to design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ovels as unification literature education'. In additio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to reach this goal were reviewed together to promote the relevance of on-site education.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were "sympathet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s through defectors," "seeking an attitude of meeting with North Koreans" and "future-oriented imagination of unified Korean society," and "checking prejudices through non-judgmental reviews," "combining with other subjects through mutual cultural self-righteousness," "creating novels based on case studies," and "finding solutions to problems through discussion activities."

The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edefined unification literature education as a language-oriented convergence education, and discovered new sanctions on unification literature education called novels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further suggested a close direction to the current discourse on unificati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pan-text education based on the needs of the times.

Keyword: Unification education, multicultural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 novels, pan-textual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post-colonialism

Student Number: 2017-29311